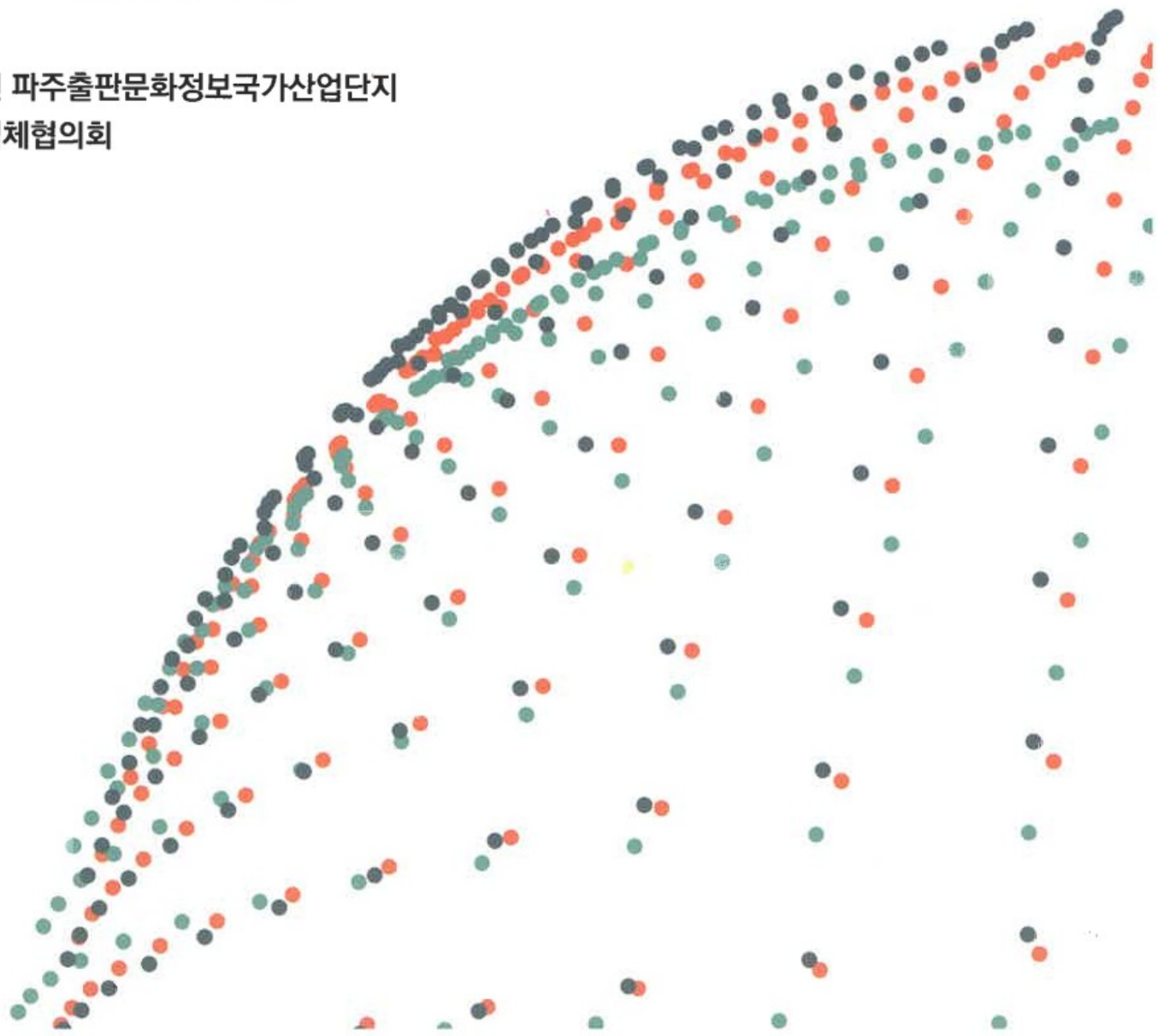
2020

남북문화교류사업 결과보고서

북 · BOOK과 함께

사단법인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2020 남북문화교류사업 결과보고서

북 · BOOK과 함께

사단법인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운영위원장 한정희 경인문화사 대표
운영위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
강성민 글항아리 대표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김도형 스튜디오 318 작가
김지은 한국학전문서적 과장
김춘식 (사)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사무국장
장지영 남북문화교류사업 팀장

2020 남북문화교류사업 결과보고서 – 북 · BOOK과 함께

발 행 일 2020년 12월 15일 초판 제1쇄 발행
발 행 인 김형근 (사)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장
발 행 처 (사)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제작총괄 김춘식 사무국장
사업담당 장지영 팀장

편집·제작 에이엔피리질리언트(주) 031-955-9202

ⓒ 사단법인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2020

ISBN | 978-89-499-4934-5 03060

본 보고서에 사용된 이미지들은 남북문화교류사업 행사(시민참여 사진 공모전, 남북 문화교류와 출판 산업 포럼,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에 사용된 이미지들로,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 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사업개요(요약) 005

Ⅱ. 사업추진 일정 011

Ⅲ. 사업추진 성과 017

1. 사업 개요 019

2. 사업 결과 020

시민 참여 사진 공모전

남북 문화교류와 출판 산업 포럼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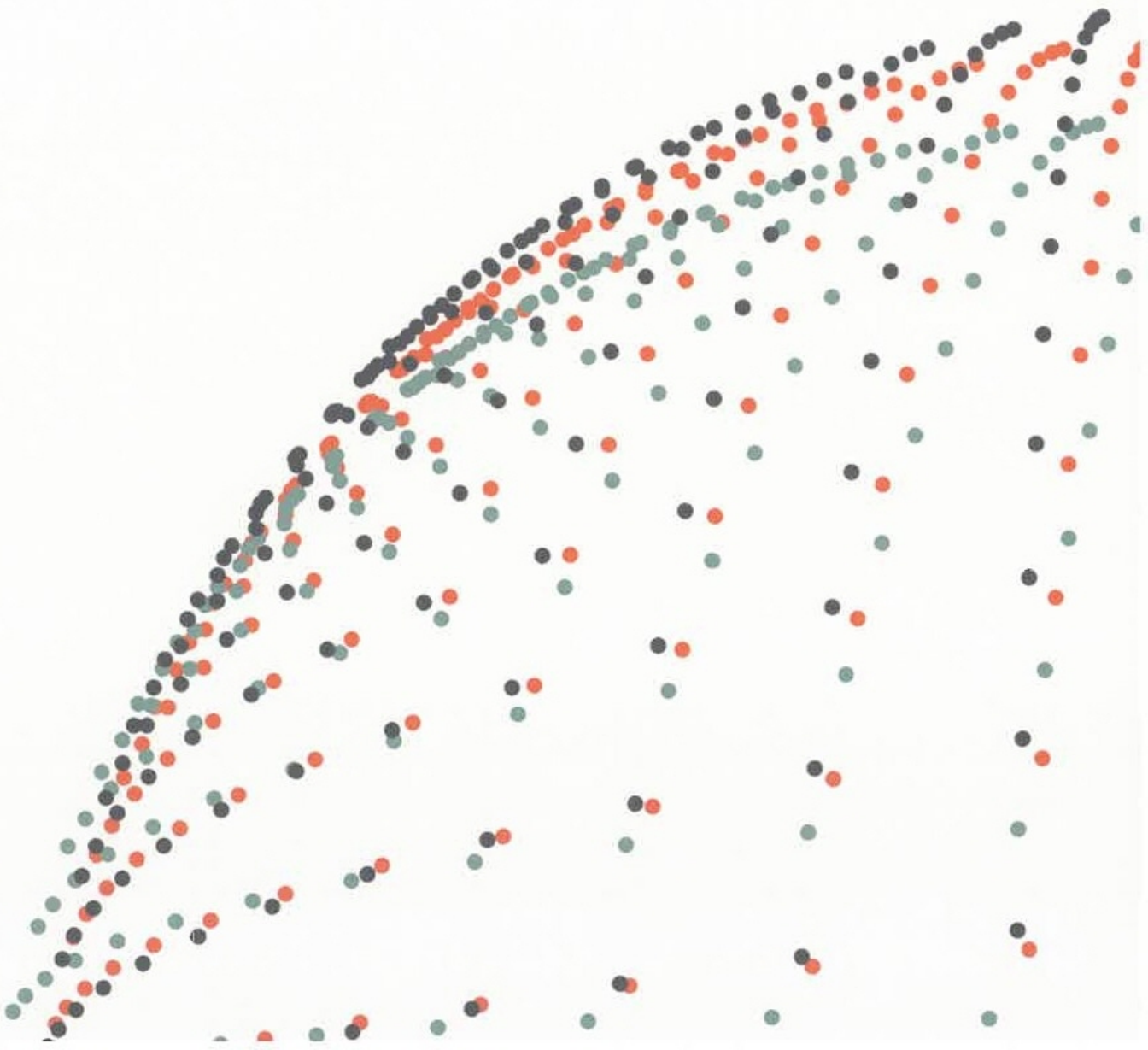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별 방역 대책

Ⅳ. 자체평가 099

Ⅴ. 별첨 103

I

사업개요(요약)



단체명

(사)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사업명

남북문화교류사업

사업기간

2020. 03.~12.

사업장소

파주 출판도시

사업목적

- **긍정적인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도서 관련 민간 주도 행사 진행**
  - ◈ 남과 북의 강이 하나로 만나는 남북 접경지역인 파주출판도시가 남북문화교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
  - ◈ 남북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남북문화교류 거점도시로서 지역적 성격인 도서와 관련된 민간 주도의 행사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역할 기대

사업 추진방법

- **사업 대상**

  대한민국 일반 시민

- **사업 추진 방법**
  - ◈ 북한의 도서 문화와 관련한 포럼 및 전시회 진행
  - ◈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 참여 사진 공모전 진행

추진실적

• 시민 참여 사진 공모전

작품 내용 남쪽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 풍경 등을 직접 촬영

참여 대상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1인 2점)

참여 방법 촬영 원본 파일 온라인 제출

응모 기간 2020년 9월 7일 ~ 27일

시상 내역

대상 1점: 상장 및 84×59cm 원목 액자

우수상 3점: 상장 및 76×50cm 원목 액자

입선 6점: 상장 및 42×59cm 원목 액자

참가상: 17×12cm 소형 탁상용 액자

참가 내역 총 8명 15점 사진 접수

수상작 선정 남북문화교류사업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상작을 선정하였으며, 대상 및 우수상 작품 선정 후 입선작에 대해서는 수상 작품 없음으로 결정

수상작 전시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에 수상작에 대한 전시 진행

시상식 남북 문화교류와 출판 산업 진행 시 사진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을 감안하여 취소

상장 및 상품 전달 상장 및 상품을 제작하여 각 시상자 및 참가자 자택으로 발송

• 남북 문화교류와 출판 산업 포럼

일시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

장소 파주 출판도시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프로그램

개회식

▸ 환영사 김형근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 환영사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

▸ 축사 홍익표 국회의원

기조연설

▸ **남북교류 환경과 의미 - 윤후덕 국회의원**

▸ **파주시 남북문화교류사업의 과제와 현황 - 최종환 파주시장**

▸ **파주와 개성은 가깝습니다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 토론 세션 (사회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 발제1: 북한의 출판언론 정책과 출판문화 - 전영선 건국대학교 교수

▸ 발제2: 김정은 시대의 출판체계 - 김은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발제3: 출판 분야의 남북교류 현황 - 임채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사업팀장

▸ 토론: 박은주 파주시 시의원, 김보근 한겨레 선임기자, 이시종 민화협 정책실장

라운드 테이블

▸ 발제: 한반도 평화와 파주시의 남북 문화교류 - 최순미 아주대학교 교수

▸ 토론: 한경준 파주시 평화협력과장,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출입은 제한하여 진행하였고, 포럼은 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형태로 진행되었음

※ 행사 종료 후 포럼 영상은 협의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있음

•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

일시 2020년 10월 9일(금) ~ 18일(일) / 10일간(전시 설치기간 3일)

장소 파주 출판도시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다목적홀

전시 내용 북한 도서문화와 관련된 사진 164점, 상업 광고물 44점, 달력 6점, 북한 도서 75점, 국내 출간된 북한 관련 도서 108점

전시 방문객 1,980명

• 행사 홍보

홍보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병행

온라인 홍보

지역 카페 2곳: 파주맘 (회원 수 25만6천명), 일산아지매 (회원 수 3만2천명)

인플루언서 블로그 5곳: 캐리정 (일반문객 평균 11,200명), 김대형 (일방문객 평균 6,700명), 프레 (일방문객 평균 12,000명), 귤사온희 (일방문객 평균 13,000명), 무스미엘 (일방문객 평균 10,000명)

협의회 SNS: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오프라인 홍보

지역 관공서 포스터 배포: 운정 행정복지지원센터 등 총 14곳의 관공서

지역 도서관 포스터 배포: 파주시 중앙도서관 등 총 18곳의 지역 도서관

X배너 설치: 파주 출판도시 내 지혜의 숲 입구

보도자료 배포

행사 관련 보도자료를 주요 일간지 및 언론사 기자 이메일 230곳으로 발송

사업성과

-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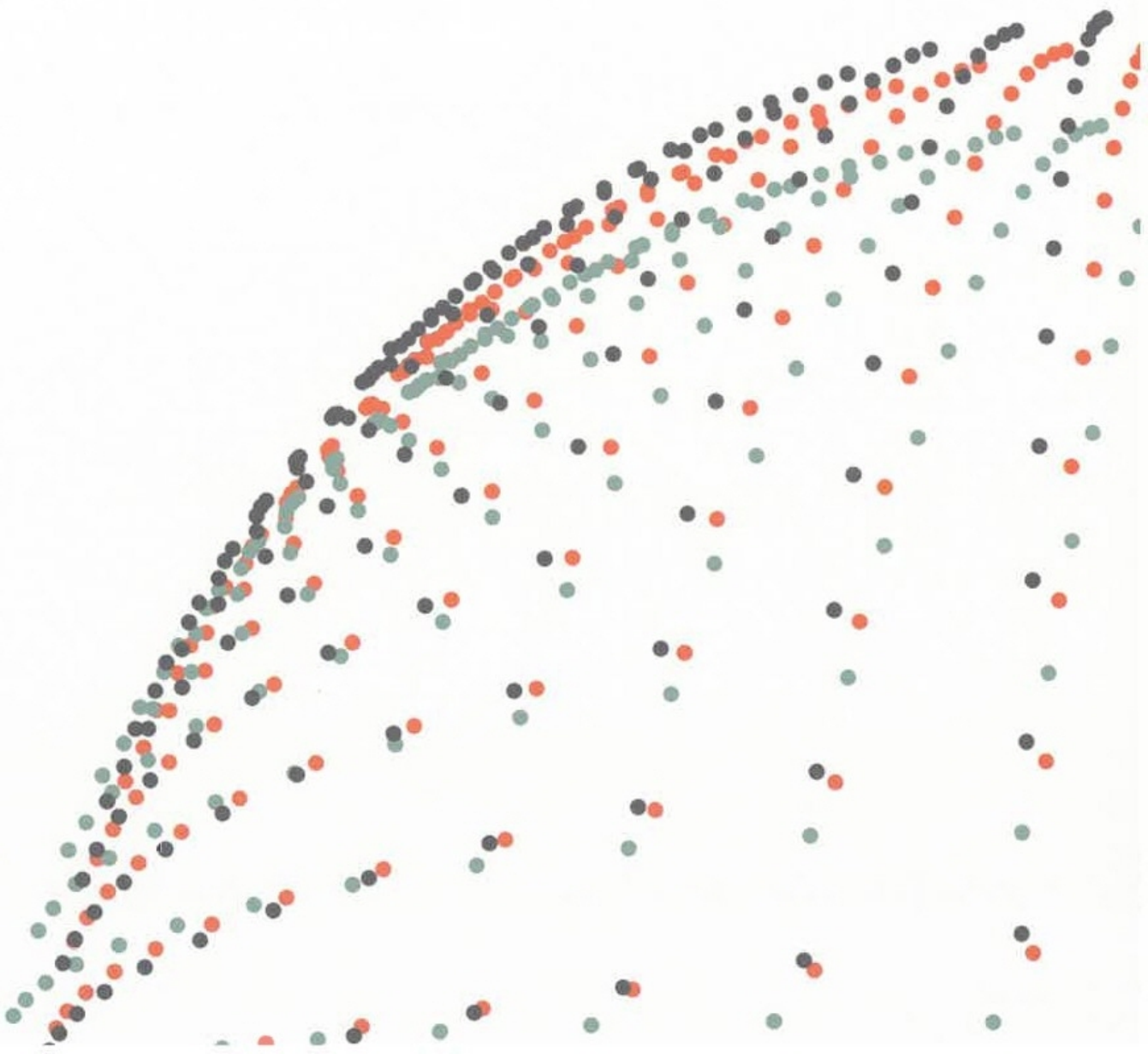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총 7곳의 언론사에서 행사 관련 보도 개제

- **남북관계의 긍정적 영향**

  전시회를 다녀간 방문객 대상 조사 결과 대다수가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바램을 희망하였음

II

사업추진 일정



4~7월

- **사업계획**

  ◈ 운영위원회 진행

  ◈ 행사 세부 기획 수립

  ◈ 홍보

- **추진실적**

  운영위원회 (4회)

  4월 9일: 남북문화교류사업 주제, 목적, 사업 진행 방향 등에 대해 논의

  4월 28일: 남북문화교류사업 행사 일정, 세부 주제 및 행사 콘텐츠 협의

  7월 16일: 남북문화교류사업 행사 세부 계획 협의

  7월 30일: 행사 공식 명칭 등 행사 세부 계획 수립

  실무 회의 (9회)

  5월 13일: 남북문화교류사업 행사 세부 계획 협의

  5월 27일: 남북문화교류사업 행사 세부 계획 협의

  5월 28일: 남북문화교류사업 행사 세부 계획 협의

  6월 9일: 행사 예정 공간 확인 및 세부 행사 계획 협의

  6월 11일: 남북문화교류사업 행사 세부 계획 협의

  6월 23일: 남북문화교류사업 전시 행사 세부 계획 협의

  6월 29일: 통일문화재단 역할 축소 관련 협의

  7월 2일: 남북문화교류사업 행사 세부 계획 협의

  7월 13일: 남북문화교류사업 전시 행사 세부 계획 협의

  전시 기획 용역 계약 (6월)

  용역업체: 스튜디오 블룸

  용역내용: 전시 기획, 전시물 별 원고 작성, 이미지 보정, 전시장 작품 관리 등

8~9월

- **사업계획**

  ◈ 행사 홍보물 제작

  ◈ 세미나, 포럼 참가자 섭외

  ◈ 전시장 조성 및 전시물 준비

  ◈ 사진 공모전 작품 모집 및 당선작 선정

- **추진실적**

  운영위원회 (1회)

  9월 28일: 사진 공모전 당선작 선정 및 행사 준비 사항 최종 점검

  실무 회의 (1회)

  9월 29일: 포럼 온라인 생중계 및 영상 제작 관련 협의

  전시장 조성 용역 계약 (8월)

  용역업체: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

  용역내용: 전시장 안내 사인물 제작, 가벽 및 조명 설치, 전시 목공 제작, 전시물 및 인포 그래픽 제작, 대형 현수막 제작 등

  행사 홍보 대행 용역 계약 (8월)

  용역업체: 코드마

  용역내용: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대행 등

  전시 저작물 임차 용역 계약 (9월)

  용역업체: 평화의길

  용역내용: 북한 도서문화 관련 사진; 북한 도서, 상품 브로셔 및 달력, 북한 도서문화 관련 동영상 임차 대행 등

  포럼 온라인 생중계 및 영상 제작 용역 계약 (9월)

  용역업체: 기빙휠엔테인먼트

  용역내용: 포럼 온라인 생중계 및 영상물 제작 등

  국내 출판 북한 도서 협찬 섭외 (9월)

  40개 출판사 108권 협찬

  시민 참여 사진 공모전 진행 (9월)

  기간: 9월 7일 ~ 27일

  작품응모: 1인당 2점

주제: 남쪽에서 바라 본 북한모습

시상내역: 대상 1점, 우수상 3점, 입선 6점 총 10점

포럼 진행 준비

기조연설, 발제 및 토론 참가자 섭외 진행

온/오프라인 홍보 진행

지역 카페, 인플루언서 블로그, 협의회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진행

지역 관공서 및 도서관, 출판도시 내 오프라인 홍보 진행

방역 대책 수립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장 방역대책 수립

10월

- **사업계획**

◈ 포럼 진행

◈ 전시회 진행

◈ 사진 공모전 시상식 진행

- **추진실적**

사진 공모전 당선작 선정

출품작품: 총 8명 15작품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시민들이 외부활동을 자제하여 예상보다 참여가 저조하였음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상 1점, 우수상 3점을 선정하고 입선작에 대해서는 수상작 없음으로 결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 인해 별도의 시상식은 취소

상품: 각 수상자에게는 당선작으로 제작한 원목액자를 증정하고, 출품자 모두에게는 출품작 중 하나로 제작한 탁상용 액자를 증정

포럼 진행

일시: 2020년 10월 9일(금)

장소: 파주 출판도시 내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참석: 김형근 입주기업협의회 회장, 최종환 파주시장, 윤후덕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 등 약 20명의 내외인사

진행: 일반인 출입은 제한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 진행

전시회 진행

일시: 2020년 10월 9일~18일

장소: 파주 출판도시 내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 다목적홀

전시주제: 북한 도서문화 관련 사진, 영상 및 도서 전시

방문객: 1,980명

11~12월

- **사업계획**

  ◈ 비용 처리 및 정산 업무

  ◈ 실적 및 정산보고서 작성

  ◈ 회계검사 실시

- **추진실적**

  운영위원회 (1회)

  11월 25일: 행사 진행 결과 보고

  실무 회의 (1회)

  11월 03일: 행사 진행 결과 내부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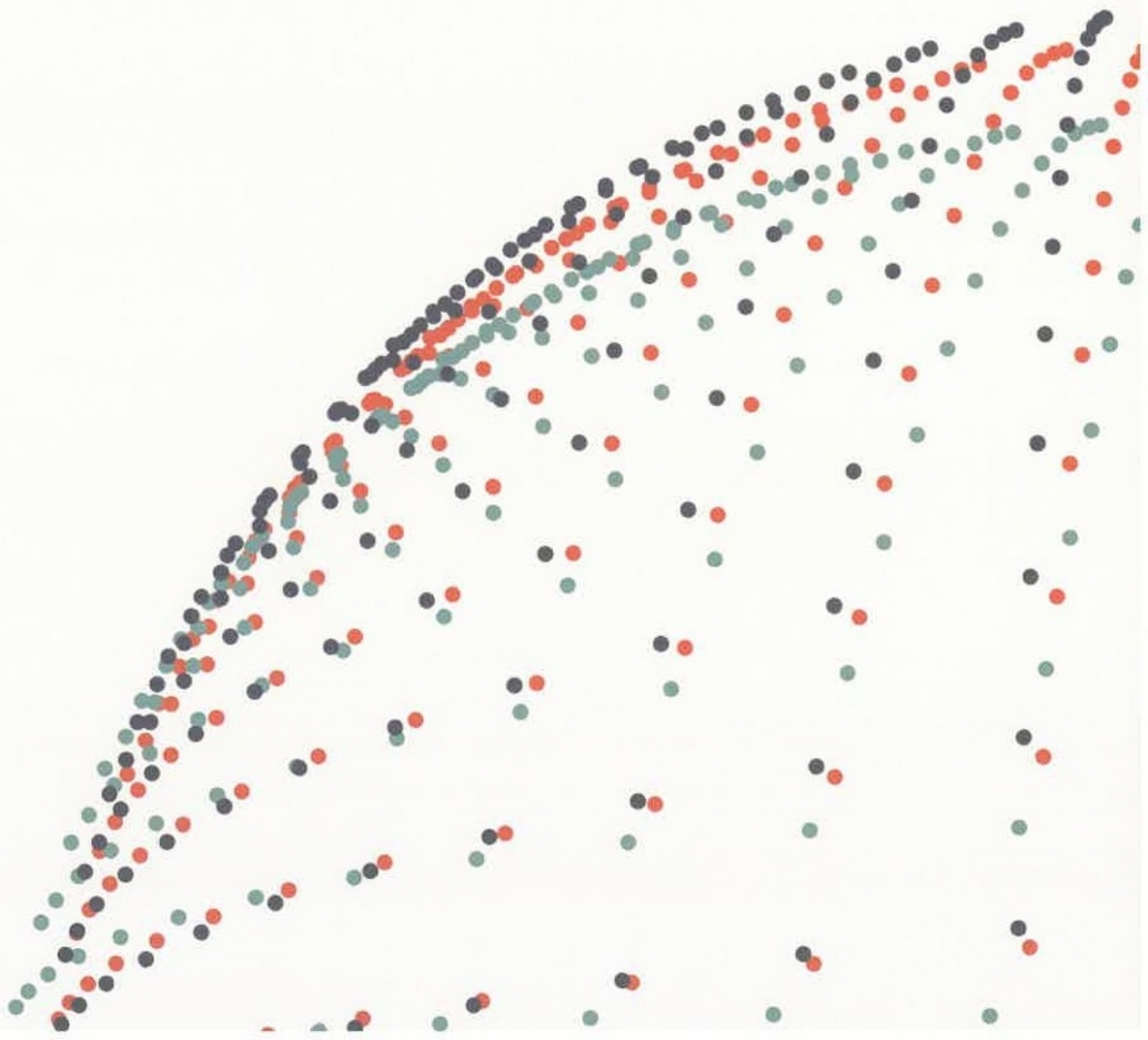
  비용 처리 및 정산 업무

  사업비 사용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업무 진행

  실적 및 정산보고서 작성

III

사업추진 성과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 세 차례 북중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남과 북의 강이 하나로 만나는 남북 접경지역인 파주출판도시가 남북문화교류 도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향후 남북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거점도시로 탈바꿈하고, 국가적 차원의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내는 역할을 기대

- **주요 내용**

  북한 출판문화와 관련된 포럼 진행, 북한 도서 및 문화와 관련된 사진/도서/영상물 전시회 개최, 시민 참여 사진 공모전 진행 등

- **행사 명칭**

  ◈ 전체 행사명: 북·BOOK과 함께

  ◈ 포럼명: 남북 문화교류와 출판 산업

  ◈ 전시회명: BOOK(北) 읽는 풍경

- **사업 기간**

  2020년 3~12월

- **사업 관계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사업 주관**

  (사)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 **사업 참여**

  파주시, 파주시의회

사업 결과

- 시민 참여 사진 공모전

개요

목적: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진 공모전으로써, 남쪽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통해 북한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일정: 2020년 9월 7일~27일

공모 주제: 남쪽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 풍경 등을 촬영한 작품

출품 방법

- 촬영한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 파일 이메일 접수
- 2020년 촬영한 사진에 한하며, 1인당 2작품까지 접수 가능
- 출품 시 출품자 명, 작품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 요망

심사 기준: 남북문화교류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로 선정

선정작: 대상 1점, 우수상 3점, 입선 6점

시상 내역: 상장 및 선정작으로 제작된 원목 액자 증정 (수상 등급에 따라 차등 제작)

- 대상: 상장 및 84×59cm 원목 액자
- 우수상: 상장 및 76×50cm 원목 액자
- 입선: 상장 및 59×42cm 원목 액자
- 참가상: 17×12cm 소형 탁상용 액자

시상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취소

사진 공모전 홍보

홍보 방법

- 온라인 홍보: 지역 온라인 카페, 인플루언서 블로그, 협의회 SNS 등을 통한 홍보 진행
- 오프라인 홍보: 지역 도서관 및 파주 출판도시 내 홍보물 부착 및 설치
- 협의회 회원사 대상 행사 협조관련 공문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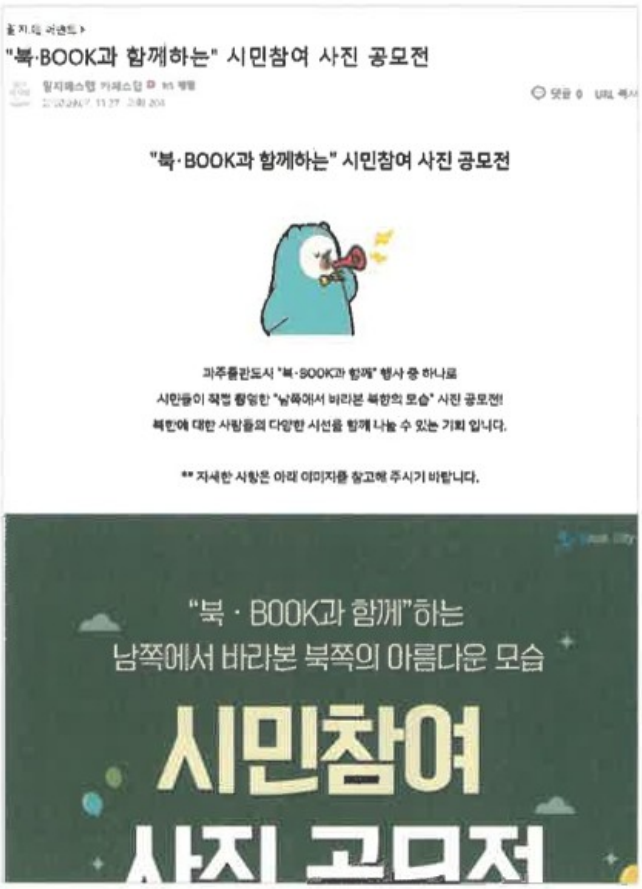
홈페이지용 카드 뉴스 이미지

▸ 지역 온라인 카페

[표] 지역 온라인 카페 홍보 결과

No.	카페 명	오픈 날짜	조회수	댓글	비고
1	일산 아지매	2020년 9월 7일	864	0	
2	파주맘	2020년 9월 7일	659	4	
계			1,523	4	

지역 온라인 카페 게시 홍보글



일산 아지매(회원수: 352,000여 명)
https://cafe.naver.com/isajime/4709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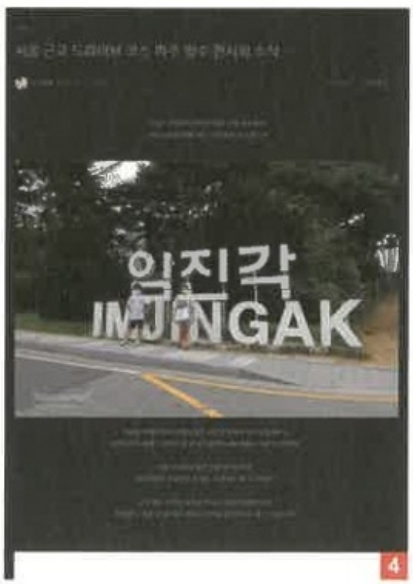
파주맘(회원수: 256,000여 명)
https://cafe.naver.com/pajumom/3731384

▸ 인플루언서 블로그

[표] 인플루언서 블로그 홍보 결과

No.	카테고리	블로거 명	오픈 날짜	방문자	공감	댓글	비고
1	사진	사진작가 김대형	2020년 9월 15일	16,224	192	28	
2		프레	2020년 9월 15일	24,512	34	8	
3		캐리정	2020년 9월 15일	22,349	15	7	
4	일상	무스미엘	2020년 9월 15일	20,956	28	15	
5		귤사온희	2020년 9월 18일	25,717	12	1	
계				109,758	281	59	

인플루언서 블로그 게시 홍보글



1. 사진작가 김대형
(https://blog.naver.com/suntill0210/222082111509)

2. 프레
(https://blog.naver.com/framei/222082024371)

3. 캐리정
(https://blog.naver.com/hnn888/222089852647)

4. 무스미엘
(https://blog.naver.com/reser45/222092000073)

5. 귤사온희
(https://blog.naver.com/3010462/222092843180)

▸ 협의회 SNS

협의회 홈페이지 게시 홍보글

http://bookcity.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862&page=3

협의회 블로그 게시 홍보글

https://blog.naver.com/ilovebookcity/222090834954

협의회 인스타그램 게시 홍보글

https://www.instagram.com/pajubookcity.story

협의회 페이스북 게시 홍보글

https://www.facebook.com/pajubookcity.story

▸ 오프라인 홍보 이미지

포스터

X배너

▸ 오프라인 홍보 진행

포스터 배포

가람도서관, 교하도서관, 한울도서관, 한빛도서관, 해솔도서관, 파주시 중앙도서관, 시립금촌도서관, 금촌3동 솔빛도서관, 운정행복복합센터 등

X배너 설치

파주 출판도시 지혜의 숲 입구 2곳

사진 공모전 결과

응모: 총 8명 15점 작품 응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시민들이 외부활동을 자제하여 예상보다 참여가 저조하였던 것으로 자체 분석

출품 작품

사진 공모전 출품 작품

1. 강 건너 햇살 드는 북한 땅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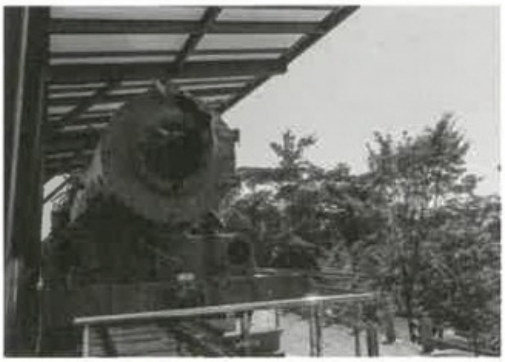
2. 철조망 너머 북한 땅 마을

3.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손에 닿을 듯한 북한의 개풍군 모습

4. 수많은 바램

5. 아름다운 바램

6. 끝이 아닌 자유의 시작



7. 다시 출발해볼까요

8. 소식

9. 흔적

10. 남에서 북으로 보다

11. 바라보다

12. 평화의 길이 열리길

13. 희망이 오기를

14. 통일전망대와 송악산

15. 가깝고도 먼 송악산

당선 작품

- 대상: 희망이 오기를 (장O애)
- 우수상: 철조망 너머 북한 땅 마을 (조O범),
  끝이 아닌 자유의 시작 (주O윤), 소식 (이O미)
- 입선: 선정작 없음

상품: 상장 및 액자

사진 공모전 상장

사진 공모전 상품 (액자)

대상

우수상 1

우수상 2

우수상 3

참가상 (참가자 전원)

시상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 인해 별도의 시상식은 취소하고, 상장 및 상품은 각 출품자 자택으로 발송

당선작 전시: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 기간 동안 당선작에 대한 전시 진행

당선작 전시

• 남북 문화교류와 출판 산업 포럼

개요

목적: 김정은 체제 이후의 남북교류분야에 있어서 파주시 및 출판도시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현재 북한의 출판분야에 대한 현황을 확인

일정: 2020년 10월 9일(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

장소: 파주 출판도시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프로그램

시간	행사 내용	기타
~10:00	접수 및 등록	
10:00~10:05	[내빈소개]	[진행사회] 박유진
10:05~10:50	[개회식] 환영사 -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회장 - 파주시의회 의장 축사 - 홍익표 국회의원(민주연구원 원장)	 김형근 회장 한양수 의장 홍익표 국회의원
10:20~11:00	[기조연설] "남북교류 환경과 의미" "파주시 남북문화교류사업의 과제와 현황" "파주와 개성은 가깝습니다"	윤후덕 국회의원 최종환 파주시장 김진향 이사장
11:00~11:20	포토타임 및 정리	
11:20~12:00	'북한도서 및 영상물 전시회' 테이프 커팅 및 관람	
12:00~13:30	오찬 및 커피 타임(도시락)	
13:30~15:00	[포럼] 발제 1 : "북한의 출판언론 정책과 출판문화" 전영선 (건국대) 발제 2 : "김정은 시대의 출판체계" 김은정 (한국외대) 발제 3 : "출판 분야의 남북교류 현황" 임채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토론] 토론 1 : 박은주 (파주시의원) 토론 2 : 김보근 (한겨레 선임기자) 토론 3 : 이시종 (민화협 정책실장)	[사회] 정창현 소장 [발제] 전영선 교수 김은정 교수 임채선 사업팀장 [토론] 박은주 시의원 김보근 선임기자 이시종 정책실장
15:00~15:15	커피 타임	
15:15~16:30	[라운드 테이블] 좌장 :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 발제 : "한반도 평화와 파주시의 남북 문화교류" 최순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토론] 한경준 (파주시 평화협력과장)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사회] 정창현 소장 [발제] 최순미 교수 [토론] 한경준 과장 김치관 편집국장
16:30~	마무리	[진행사회]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라 포럼 행사장 내부에는 20명 내외의 인원이 동시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일반인 출입은 제한하여 진행

※ 포럼 진행 전 과정은 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

홍보

홍보 방법

- 온라인 홍보: 지역 온라인 카페, 협의회 SNS 등을 통한 홍보 진행
- 오프라인 홍보: 지역 관공서 및 도서관 행사 포스터 배포, 파주 출판도시 내 홍보물 부착 및 설치
- 주요 일간지 및 언론사 기자 이메일 230곳으로 행사 관련 보도자료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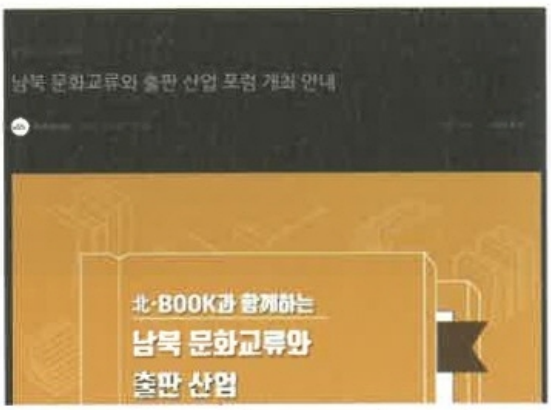
홍보 결과

- 협의회 SNS

협의회 홈페이지 게시 홍보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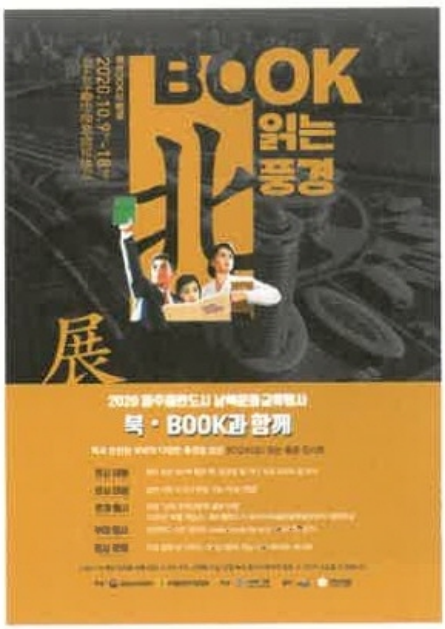
http://bookcity.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871&page=2

협의회 블로그 게시 홍보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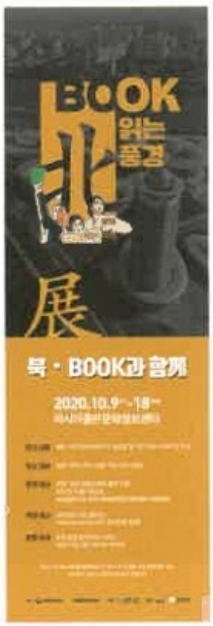


https://blog.naver.com/ilovebookcity/222110434150

- 오프라인 홍보 이미지



포스터



X배너

▸ 오프라인 홍보 진행

포스터 배포

우편 발송

관공서 (14곳):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파평면 행정복지센터,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탄현면 행정복지센터,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월롱면 행정복지센터, 운정1,2,3동 행정복지센터,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18곳): 해솔도서관, 파평도서관, 술이홀도서관, 탄현도서관, 물푸레도서관, 적성도서관, 월롱도서관, 한빛도서관, 금촌3동솔빛도서관, 금촌도서관, 교하도서관, 파주시중앙도서관, 법원도서관, 행복어린이도서관, 문산도서관(분관), 조리도서관, 한울도서관, 가람도서관

직접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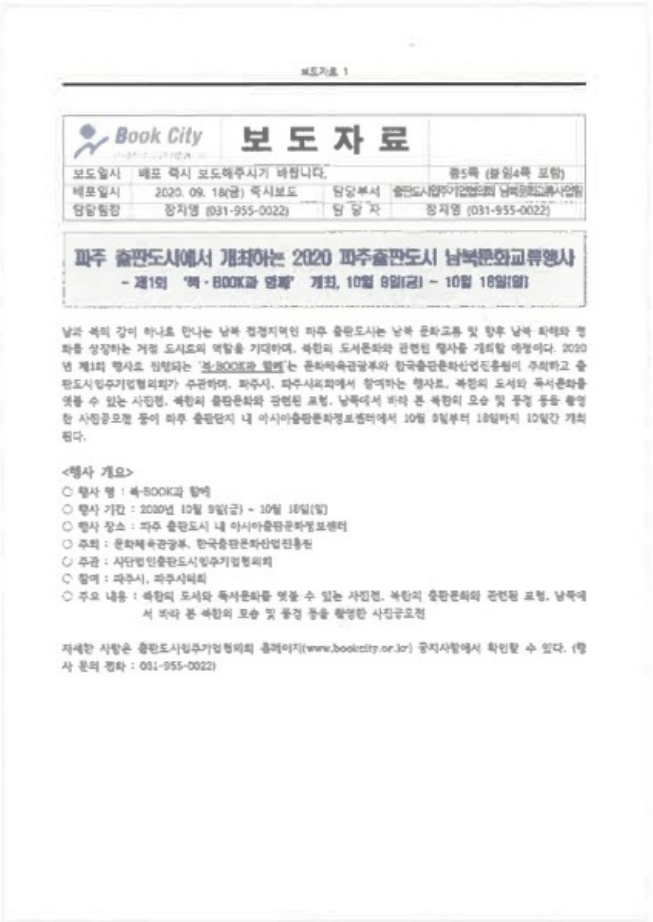
파주 출판도시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X배너 설치

파주 출판도시 지혜의 숲 입구 2곳

▸ 보도자료 배포

보도자료



보도자료 1

Book City

보 도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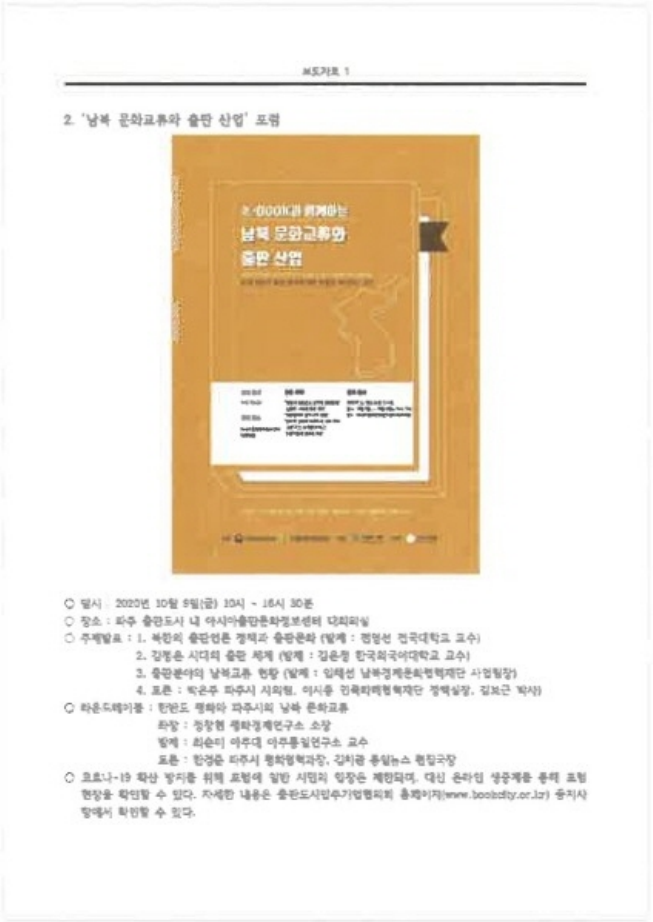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5쪽 (붙임4쪽 포함)
배포일시	2020. 09. 18(금) 즉시보도	담당부서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남북문화교류사업팀
담당팀장	장지영 (031-955-0022)	담 당 자	장지영 (031-955-0022)

파주 출판도시에서 개최하는 2020 파주출판도시 남북문화교류행사
- 제1회 '북·BOOK과 함께' 개최, 10월 9일(금) ~ 10월 18일(일)

남과 북의 강이 하나로 만나는 남북 접경지역인 파주 출판도시는 남북 문화교류 및 향후 남북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거점 도시로의 역할을 기대하며, 북한의 도서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년 제1회 행사로 진행되는 '북·BOOK과 함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가 주관하며, 파주시, 파주시의회에서 참여하는 행사로, 북한의 도서와 독서문화를 엿볼 수 있는 사진전, 북한의 출판문화와 관련된 포럼, 남북에서 바라 본 북한의 모습 및 풍경 등을 촬영한 사진공모전 등이 파주 출판단지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

<행사 개요>
○ 행사 명 : 북·BOOK과 함께
○ 행사 기간 : 2020년 10월 9일(금) ~ 10월 18일(일)
○ 행사 장소 : 파주 출판도시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주관 : 사단법인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 참여 : 파주시, 파주시의회
○ 주요 내용 : 북한의 도서와 독서문화를 엿볼 수 있는 사진전, 북한의 출판문화와 관련된 포럼, 남북에서 바라 본 북한의 모습 및 풍경 등을 촬영한 사진공모전

자세한 사항은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홈페이지(www.bookcity.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문의 전화 : 031-955-0022)



보도자료 1

2. '남북 문화교류와 출판 산업' 포럼

○ 일시 : 2020년 10월 9일(금) 10시 ~ 16시 30분
○ 장소 : 파주 출판도시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 주제발표 : 1. 북한의 출판언론 정책과 출판문화 (발제 : 전영선 전국대학교 교수)
2. 김정은 시대의 출판 체계 (발제 : 김은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3. 출판분야의 남북교류 현황 (발제 : 임채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사업팀장)
4. 표론 : 박은주 파주시 시의원, 이시종 건축화해협력재단 정책실장, 김보근 박사)
○ 라운드테이블 : 한반도 평화와 파주시의 남북 문화교류
좌장 :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발제 : 최순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
표론 : 한경준 파주시 평화협력과장,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포럼에 일반 시민의 입장은 제한되며, 대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포럼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홈페이지(www.bookcity.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일간지 및 언론사 기자 이메일 230곳 배포

포럼 결과

포럼 참석 VIP 현황

No.	이름	소속	직함	비고
1	김형근	(사)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	
2	고영은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3	이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4	최종환	파주시	시장	
5	윤후덕		국회의원	
6	홍익표		국회의원	
7	손희정	경기도의회	도의원	
8	오지혜	경기도의회	도의원	
9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	
10	박대성	파주시의회	시의원	자치행정위원장
11	이용욱	파주시의회	시의원	도시산업위원장
12	박은주	파주시의회	시의원	
13	손배찬	파주시의회	시의원	
14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포럼 중계

- 협의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진행
- 중계 후 포럼 영상 유튜브 업로드

언론 보도 자료

- 파주에서 (2020년 9월 18일) https://www.atpaju.com/news/page/archives.php?idx=18888
- 파주시대 (2020년 9월 18일) http://www.pajusidae.com/archives/news/11800
- 파주저널 (2020년 9월 20일) http://pjjn.co.kr/coding/news.aspx/4/1/382382
- 고양신문 (2020년 9월 21일)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19
- 위클리오늘 (2020년 9월 21일)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322
- 경기북부탑뉴스 (2020년 9월 21일) http://gbtopnews.net/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20603
- 파주人 해피코리아 (2020년 9월 23일) http://paju.happykorea.com/article/Gi4Xpyfik1
- 통일뉴스 (2020년 10월 9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530

남북 문화교류와 출판 산업 포럼 사진

협의회 김형근 회장 환영사

파주시의회 한양수 의장 환영사

홍익표 국회의원 축사

윤후덕 국회의원 기조연설

최종환 파주시장 기조연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기조연설

참석자 기념 촬영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 오프닝 행사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 관람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 관람

포럼 제1세션

포럼 제1세션

포럼 제2세션

포럼 제2세션

•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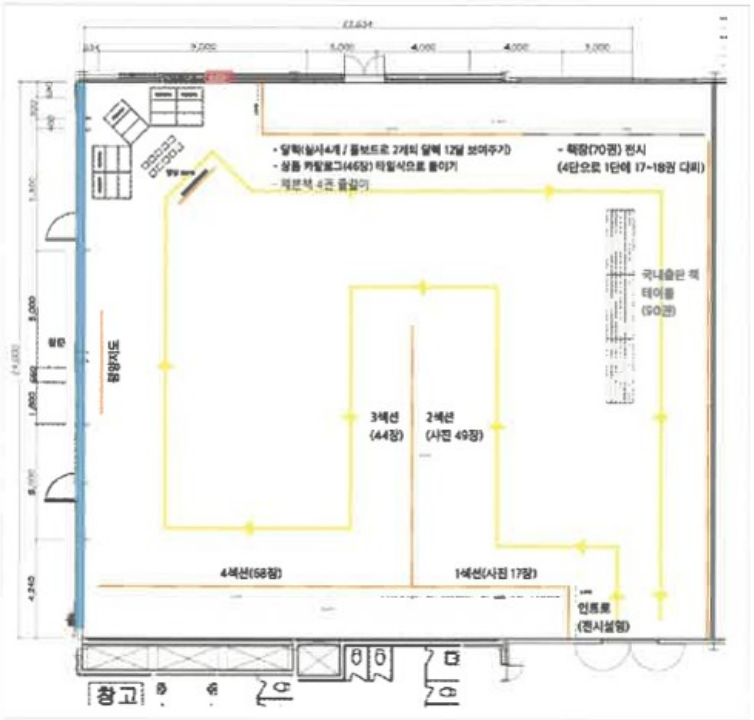
목적: 북한의 출판 및 도서분야에 대한 사진, 도서, 동영상 등을 전시하고 이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모습을 일반 시민들에게 소개

일정: 2020년 10월 9일(금) ~ 10월 18일(일)

장소: 파주 출판도시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다목적홀

전시 저작물

- 북한 도서문화와 관련된 사진 164점
- 상업 광고물 44점
- 달력 6점
- 북한 도서 75점
- 국내 출간된 북한 관련 도서 108점



전시장 도면

전시 공간 구성

섹션	타이틀	구성	사진	도서	영상	그래픽	기타
프롤로그	전시개요	타이틀, 설명패널					
1	독서의 출발점-까막눈 벗어나기 "책을 읽으려면 한글 깨우치자"	설명패널, 캡션	16			14	
2	북한의 출판 역사	설명패널, 캡션	49			50	
3	도서관을 중심으로 본 독서문화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설명패널, 캡션	45			45	
4	일상생활 속 독서 열풍과 정보화 바람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자"	설명패널, 캡션	47			48	
5	북한 출판물의 변화와 발전 "젊은 세대 겨냥해 화려한 색감 적극 도입"	설명패널, 캡션	122	75	1	10	9
6	국내 출판된 북한 관련 도서	설명패널, 캡션		108		42	
7	시민참여 사진 공모전 입상작	캡션				4	
계			309	183	1	213	9

전시장 구성 (프롤로그, 1섹션)

전시장 구성 (2섹션)

전시장 구성 (3섹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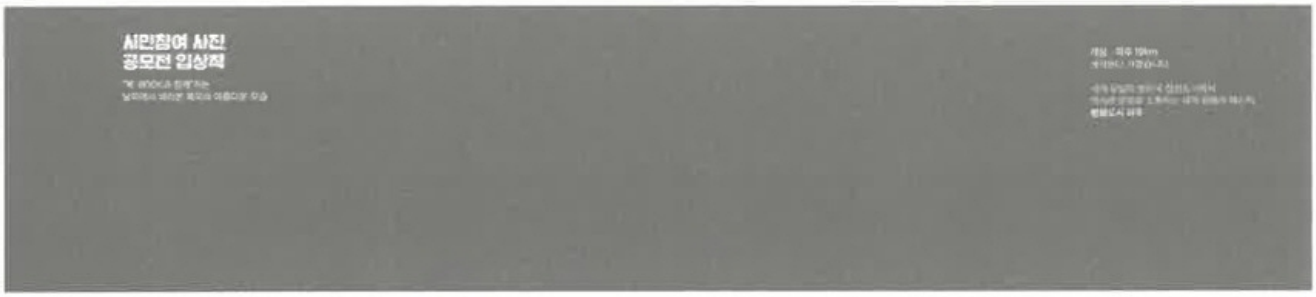
전시장 구성 (4섹션)

전시장 구성 (브릿지)

전시장 구성 (영상존)

전시장 구성 (5섹션)

전시장 구성 (6섹션)



전시장 구성 (7섹션)

전시장 실내 천정 현수막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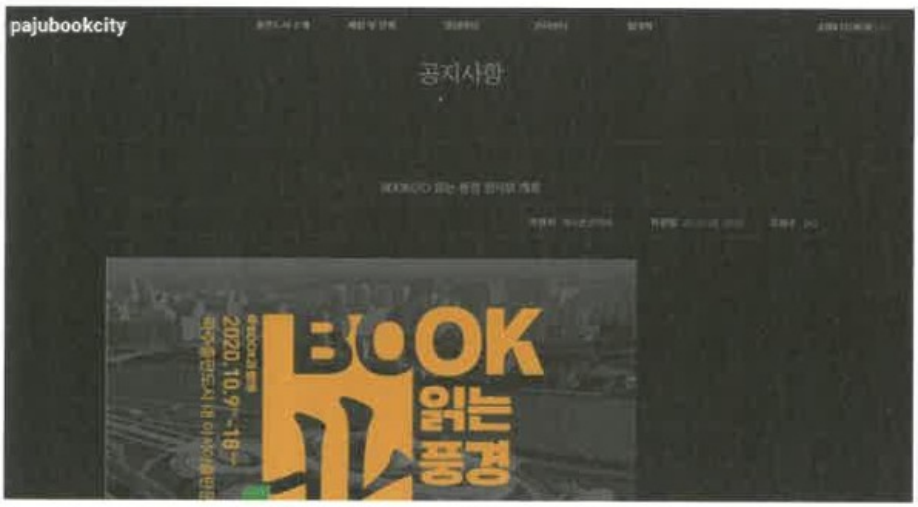
홍보 방법

- 온라인 홍보: 지역 온라인 카페, 협의회 SNS 등을 통한 홍보 진행
- 오프라인 홍보: 지역 관공서 및 도서관 행사 포스터 배포, 파주 출판도시 내 홍보물 부착 및 설치
- 주요 일간지 및 언론사 기자 이메일 230곳으로 행사 관련 보도자료 배포

홍보 결과

- 협의회 SNS

협의회 홈페이지 게시 홍보글



http://bookcity.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872&page=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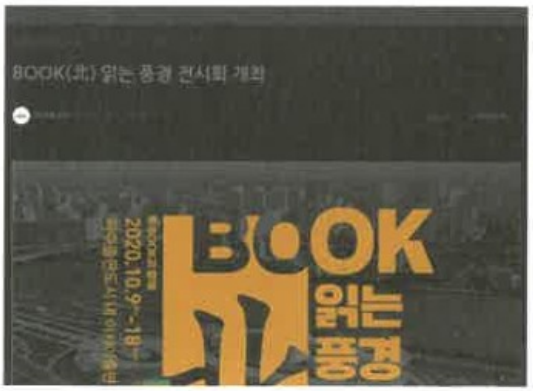
협의회 페이스북 게시 홍보글

https://www.facebook.com/paju-bookcity.story

협의회 인스타그램 게시 홍보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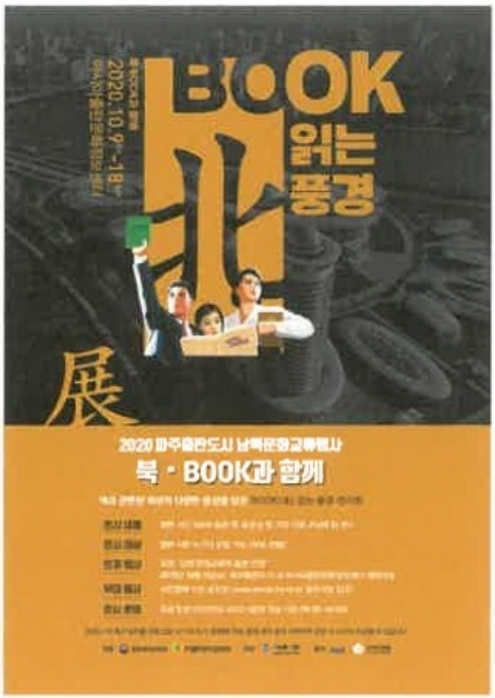
https://www.instagram.com/pajubookcity.story

협의회 블로그 게시 홍보글



https://blog.naver.com/ilovebookcity

▸ 오프라인 홍보 이미지



포스터

X배너

▸ 오프라인 홍보 진행

포스터 배포

직접 배포
파주 출판도시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외부
※ 배포처는 포럼 홍보물 배포처와 동일함

X배너 설치

파주 출판도시 지혜의 숲 입구 2곳

외부 현수막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외벽 대형 현수막

▸ 보도자료 배포

보도자료

주요 일간지 및 언론사 기자 이메일 230곳 배포

특수자료 취급지침 승인

승인 절차

- 북한 도서를 보유한 업체는 해당 도서들에 대한 임차 요청에 대한 대출 및 공개 활용과 관련된 승인을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에게 활용계획서와 함께 공문으로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공문 및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검토한 후 공개 여부를 승인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처리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9조 (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 취급기관의 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 해당 감독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기관의 장은 해당 감독부처의 장에게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감독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 및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공개활용을 승인할 수 있다.

본 전시회에 활용되는 저작물 중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한 공개활용 승인이 필요한 저작물은 북한 도서 75점이 해당됨

전시 진행

전시장 운영

전시장 운영 업무 내역

전시장 외부	전시장 내부
1. 입장객 2m 거리 유지하며 입장 순서 기다리기 안내	1. 각 섹션 별 총 인원 10명이 넘지 않도록 안내
2. 입장객 입장 정보 수집 (성명 및 개인정보수집동의 체크)	2. 전시 도서를 읽으시는 관람객의 경우 다시 제자리에 꽂아놓도록 안내
3. 입장객 발열체크	3. 전시물 훼손 방지 안내
4. 기념품 노트, 리플렛 및 책갈피 증정	4. 전시된 북한 도서는 눈으로만 관람하도록 안내
5. 전시장 내 총 인원 50명 (행사 운영 인력 포함) 넘지 않도록 안내	5. 유아동 관람객 색칠 놀이 참여 안내

- 협의회 소속 해설사를 활용한 현장 운영: 18명의 해설사가 1일 4명씩 순차적으로 근무
- 2명은 전시장 외부에서 입장객 관리를 담당하고, 2명은 전시장 내부에서 관람객 안내를 담당

전시 운영 결과

전시장 총 방문객: 1,980명 (1일 평균 198명)

날짜	방문 인원	비고
10월 09일 (금)	366	휴일
10월 10일 (토)	302	휴일
10월 11일 (일)	280	휴일
10월 12일 (월)	21	
10월 13일 (화)	56	
10월 14일 (수)	68	
10월 15일 (목)	180	
10월 16일 (금)	71	
10월 17일 (토)	277	휴일
10월 18일 (일)	359	휴일
계	1,980	휴일 5일, 평일 5일

전시회 평가

- 방문객 중 총 137명이 전시회에 대한 평가 작성에 응해주었음
- 응답자 중 86%가 전시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었음

전시 저작물

1섹션

1. '문맹 퇴치 강원도지도위원회'가 만든 포스터 (1948)
북한은 1947년 12월 1일부터 1948년 3월 31일까지를 '문맹 퇴치 돌격 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문맹 퇴치 운동을 진행했다.

2. 부산 지역 초등학생이 영어 수업을 하고 있다. (1945. 10.)
해방 후 38선 이남 학교에서는 한글과 영어 교육이 시작됐고, 문맹 퇴치를 위한 성인교육이 병행됐다.

3. 정의여고 2학년 김옥숙 학생이 러시아어 단어를 칠판에 쓰고 있다. (1946. 5.)
소련군이 진주한 후 북한의 각급 학교에서는 러시아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4. 1946년 겨울 '성인학교'에서 대학생으로부터 한글을 배우고 있는 주민들
북한은 만 12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녀 문맹자들은 의무적으로 '성인학교'에 입학 시켜 매일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수료자에게 수료 증서를 발급했다.

5. 남녀 문맹자를 대상으로 개설된 '성인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주민들. (1946)

6. 문맹퇴치를 위해 한글을 배우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하다. (1946)

7. 아이를 안고 공부하는 여성의 모습이 이채롭다. (1946)
12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녀 문맹자를 대상으로 개설된 '성인학교'에서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

8. 평양의 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교과서를 보며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1946)

9. 1947년 교육, 문화시설, 제지공업의 목표를 제시한 포스터들
도서관의 경우 35개에서 3배 정도 확충된 102개로 늘린 계획을 세웠다.

1

2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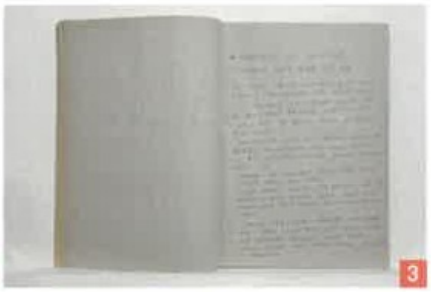
7

1. 관련 포스터 5종
2. 관련 포스터 6종
3. 관련 포스터 7종
4. 관련 포스터 8종
5. 평양소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1947)
6. 김일성종합대학 여학생들이 교정에서 책을 읽고 있다. (1947)
7. 휴식시간에 근로자들이 신문을 읽으며 학습하고 있다. (1948)

1. 한창 건설 중인 평양역 앞 거리 오른쪽 건물 사이에 서점 간판도 보인다. (1958)
2. 조소문화협회 간부들이 출간 도서를 검토하고 있다. (1946)
3. 평양의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사람들. (1948)
4. 평양 국제서점에서 해외서적을 구입해 나오고 있는 사람들. (1954)
5. 조선소년단 창립일을 기념하여 벽보를 만들고 있는 학생들.
6. 평양 중앙도서관에서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 대학생과 지식인들. (1948)
7. 평양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1955)
8. 평양 중앙도서관 서고 모습. (1954)
9. 평양 중앙도서관 사서들이 새로 들어온 책을 정리하고 있다. (1954)
10. 전쟁으로 파괴된 교사를 복구하는 일을 거들고 있는 소학교 학생들 . (1953)
11. 전쟁으로 파괴된 대학 본관 건설 앞에서 수업하고 있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 (1953)
12. 평양 국제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사람들. (1955)

1. 평양의 학생들이 '소년출판물 및 소년창작작품전람회'에 전시된 책을 살펴보고 있다. (1955)
2. 졸업시험을 앞두고 평양제3학교 학생들이 교사들의 개별학습지도를 받고 있다. (1953)
3. 황해남도 옹진군 도원소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1954)
4. 황해남도 옹진군 수대리 농민들이 한글 공부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1954)
5. 황해남도 연안소학교 학생들이 책가방 대신 보자기에 교과서 등을 싸서 등교하고 있다. (1954)
6. 개성 고려소학교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 아래 책을 읽고 있다. (1954)
7. 해주 제2초등학원(고아학교) 학생들이 부용당 앞에서 야외학습을 하고 있다. (1954)
8. 평양의 한 가정에서 할머니가 손자의 학습을 도와주고 있다. (1963)
9. 평양 모란봉 구역에 있는 신문가판대에서 신문을 사서 읽는 사람들. (1974)

1. 평양의 공원에서 신문을 읽으며 아이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노인. (1977)
2.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책 전람회를 참관하고 있는 외국인사들. (1979)
3. 다정하게 책을 읽고 있는 쌍둥이 3형제. (1981년)
4. 평양의 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 학습과 독서를 강조하는 선전사진. (1981년)
5. 평양 지하철역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책을 읽는 사람들. (1988)
6. 평양 보통문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책과 신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 (1988)
7. 평양 지하철 안의 독서 풍경. (1990년대)
8. 수업을 마치고 책을 보면서 나오고 있는 평안남도 안주시 안주고등화학전문학교 학생들. (1993)
9. 평양 대동강가 주체사상탑 앞에 세워진 조형물 낫(농민), 붓(지식인), 망치(노동자)이 형상화 돼 있다. (2008)



1. 북한의 첫 여성지휘자 문경옥이 쓴 수기 원고1.
2. 북한의 첫 여성지휘자 문경옥이 쓴 수기 원고2.
3. 북한의 첫 여성지휘자 문경옥이 쓴 수기 원고3.
4. 제본작업을 하고 있는 평양 종합인쇄공장의 여성노동자들. (2000년대 초)
5. 제본기를 둘러보고 있는 평양 교육도서인쇄공장 여성노동자.(2009)
6. 제본기를 둘러보고 있는 평양 교육도서인쇄공장 노동자들. (2009)
7. 신문을 인쇄하고 있는 로동신문사 인쇄공장.
8. 2012년 6월 새로 건설된 외국문출판사의 동백인쇄합영공장 전경.
9. 도서와 공책을 생산하고 있는 민들레학습장공장. (2016)
10. 새로 들어온 책들을 보고 있는 평양시 선교구역 도서관 사서들. (2008)
11. 효율적인 도서보급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앙출판보급소의 보급원들
    출판물보급소는 신간 등의 도서를 각 구역 책방에 보급(유통)하는 일을 한다. (2009)
12. 거리의 책방. (2015)

1

2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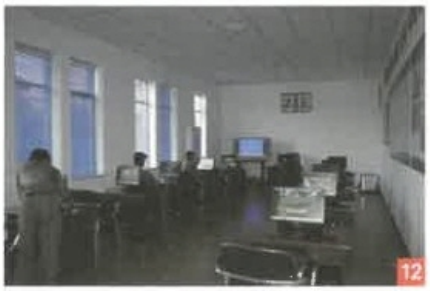
7

1. 신문, 잡지, 신간 등을 팔고 있는 지하철 통일역 안에 새로 마련된 도서판매점. (2020)
2. 2000년대 중반 평양 양각도호텔 1층에 있는 책방 내부 모습.
3. 해외 관광객을 위해 외국어로 출간된 책들을 판매하는 호텔 책방.
4. 호텔 책방에서 전시 판매하고 있는 서적과 관광책자들. (2012)
5. 마식령호텔 책방.
6.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각종 단행본과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하고 있는 평양의 기념품판매점. (2006)
7.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람회. (2003)

1. 북한의 중앙도서관인 인민대학습당의 대동강 맞은 편 광장거리를 한 평양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 (2000년 중반)
2. 주체사상탑 꼭대기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인민대학습당 전경.
3. 인민대학습당 1,2층의 내부 전경.
4.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걸려 있는 표어,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5. 새책 소개 알림판.
6. 인민대학습당의 역사와 전통을 설명하는 벽면 소개판1
7. 인민대학습당의 역사와 전통을 설명하는 벽면 소개판2
8. 인민대학습당의 역사와 전통을 설명하는 벽면 소개판3
9. 인민대학습당의 역사와 전통을 설명하는 벽면 소개판4

1. 전산화가 되지 않은 도서 목록을 찾아보고 있다. (2007)
2. 도서를 대출하고 있는 대학생.(2006)
3. 도서열람창구에서 한 시민이 신분증을 보이며 도서대출을 신청하고 있다.
4. 열람식을 꽉 채운 열람인들이 책을 읽고 있다. (2000년 중반)
5. 진지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고령의 한 노인. (2000년 중반)
6. 한 여성학자가 독서에 열중하고 있다. (2007)
7.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 (2007)
8. 인민대학습당 2층에서 신청도서를 기다리며 책을 읽고 있는 대학생들. (2006)
9. 전자열람실에서 검색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
10. 전자열람실에서 북한의 포털사이트(내나라)에 접속해 자료를 검색하거나 채팅하는 평양의 학생들.
11. 인민대학습당 외국어강의실에서 캐나다 원어민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12. 인민대학습당 음반자료실의 모습.

1.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외부 전경.
2.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장이 학생들의 검색을 도와주고 있다. (2008)
3.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의 개가식 도서열람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2007)
4. 전자도서관 열람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수.(2007)
5. 전자도서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여대생 창 너머로 평양의 상징인 고려호텔이 보인다. (2007)
6. 전자도서관 열람식에서 책을 읽고 있는 대학생들.(2008)
7. 김책공업종합대학 여대생이 전자도서관 열람실에 나란히 앉아 공부하고 있다. (2007)
8. 하늘에서 바라본 평양 과학기술전당의 전망. (2016)
9. 평양 과학기술전당의 전면.(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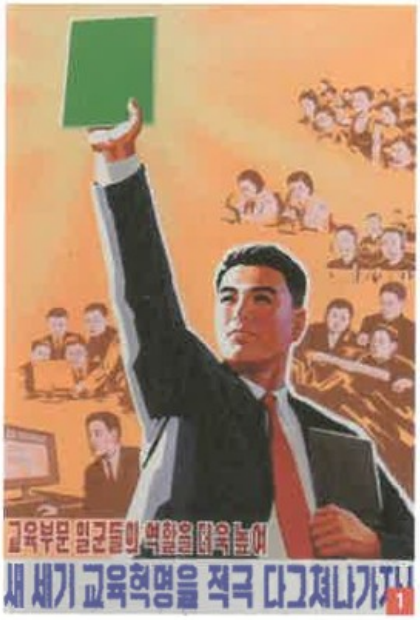
1. 평양 과학기술전당의 야경.(2016)
2. 평양 과학기술전당 중앙홀 전경. (2016)
3. 평양 과학기술전당 내 소개판.
4. 영상열람실에서는 5.1음향체계 및 3차원 영상들을 비롯한 각 분야의 과학기술 영상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다.
5.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중앙)과 사회과학청사(22층)
   전자도서관은 과거에 있던 사적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2010년에 문을 열었다.
6. 2010년 완공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의 정면 모습.
7. 전자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
8. 2013년 함흥시에 문을 연 함경남도 도서관의 전경 한옥을 연상케 하는 외관이 인상적이다.
9.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건설된 전자도서관.
10. 평양시 광복거리에 있는 학생도서관 모습. (2003)
11. 2000년대 후반에 설치된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컴퓨터실.

1. 김책공업종합대학 여학생이 다정하게 노트를 보며 학교를 나오고 있다. (2007)
2. 수업시간에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려명유치원 원아들. (2019)
3. 소학교 학생들이 수업 집중 모습.(2007)
4. 컴퓨터와 예술분야 수재를 양성하는 금성학원의 소학교 학급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 (2007)
5. 평양제1중학교 복도 게시판에 붙어 있는 성적순위표
   남쪽의 전국 모의고사 성적에 해당하며, 북한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모든 시험의 성적을 공개한다.
6. 평양 만경대학생소년야양소에 입소한 학생들이 야영소 안에 마련된 도서실에서 책을 고르고 있다. (2019)
7. 수업교재를 보며 공부하다 사진사에게 포즈를 취해준 금성제1중학교 학생. (2013)
8. 책방에서 아동도서를 읽고 있는 어린이. (2018)
9. 평양시내 구역공원에서 소학교 학생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세계명작동화를 읽고 있다. (2017)

1. 수업을 마친 소학교 학생들이 삼삼오오 평양 김일성경기장 앞을 지나고 있다.(2007)
2. 방과 후 인민대학습당 건너편 주체사상탑 광장을 걸어가고 있는 중학생들. (2007)
3. 조선혁명박물관 참관수업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대학생들. (2008)
4. 평양 중심부에 있는 조선혁명박물관 참관학습을 마치고 나오는 중학생들. (2008)
5. 평양 중심부에 있는 조선혁명박물관 참관을 나온 대학생들이 자료를 읽고 있다. (2008)
6. 보통강가에서 책을 읽으며 걷고 있는 한 남성.(2008)
7. 책을 읽으며 보통강가를 걸어가고 있는 여성.(2000년 중반)
8. 책을 들고 교정을 걷는 김일성종합대학생.(2007)
9. 고려호텔 앞 창광거리를 책을 읽으며 등교하고 있는 평양의학대학 여학생. (2006)

1. 김책공업종합대학 교내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 (2007)
2. 책을 읽으며 평양 양각교를 건너는 대학생들. (2013)
3. 평양애육원에서 여성보육원이 휴대폰을 앞에 놓고 자료를 보고 있다. (2015)
4. 아파트 앞 계단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노인들. (2017)
5. 양로원에 마련된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노인들. (2017)
6. 북한의 중학교 컴퓨터실 벽에 붙어 있는 구호와 컴퓨터 상식 글.
7. 북한의 중학교 컴퓨터실 벽에 붙어 있는 구호와 컴퓨터 상식 글.
8. 휴대폰으로 원격강의(온라인강의) 함께 보고 있는 평양의 근로자들. (2018)
9. 과학자 양성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전포스터.

1. 평양제1중학교 컴퓨터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2006)
2. 과학기술전당에서 한 소학교 학생이 만화영화를 감상하고 있다. (2018)
3. 북한의 중학교 학생들이 콤퓨터시간에 포토샵을 공부하고 있다.
4. 개성학생소년궁전 콤퓨터소조 학생들의 콤퓨터 실습 모습.(2019)
5. 평양교원대학 대학생들이 소학교 교수방법 실기 수업을 듣고 있다. (2018)
6. 평양건축종합대학 학생들이 컴퓨터로 건축 설계 공부를 하고 있다. (2014)
7. 과학과 교육을 강조하는 선전포스터.
8. 독서와 사색의 중요성을 알리는 북한의 선전포스터.
9.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북한의 선전포스터.



1

2

3

4

선전화초안
《과학기술로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자!》
평양미술대학 한경식, 리석남 작품
5

6

7

8

9

1. 새 세기 교육혁명을 강조하는 북의 선전포스터
   북한은 영화, 가극, 선전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공부와 독서의 중요성을 선전하고 있다.
2.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선전포스터. (2010)
3. 책읽기 생활화를 선전하는 포스터.
4. 지식 습득을 강조하는 북한의 선전포스터.
5. 첨단 과학기술 학습을 강조하는 선전포스터 평양미술대학 한경식, 이석남 작품.
6. 어린이들의 지능 계발을 강조하는 선전포스터.
7. 독서를 주제로 한 조선화로 평양 조선미술박물관 소장품. (2007)
8. 아이들의 독서를 주제로 그린 리영봉의 2007년 조선화 작품으로 평양 조선미술박물관 소장품. (2007)
9. 책과 휴대폰을 든 모습을 형상화 한 조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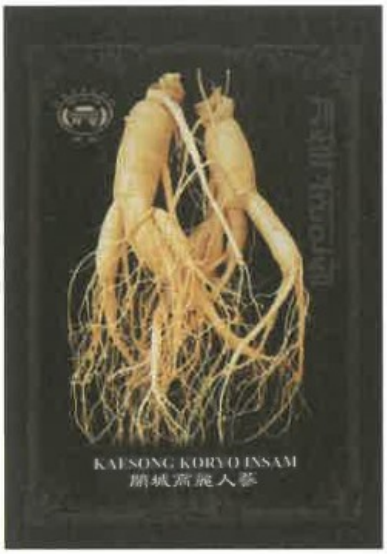
1. 방과 후 학습활동을 하는 평양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학생들이 책 읽기를 소재로 공연을 하고 있다. (2007)
2. 일제강점기 야학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혁명가극 〈해빛을 안고〉의 한 장면.

1. 금컵체육인공장에서 생산한 상품들.(2017)
2. 2017년 5월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제20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 개막식 광경. (2017)
3. 매년 2차례 열리는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전시관 전경.
4. 평양역 앞에 설치된 평화자동차의 광고판.
5. 평양에서 열린 국제마라톤경기 때 설치된 북한 기업들의 광고간판들.
6. 2000년대 새로 편찬된 교과서 시리즈.
7. 평양 대성백화점 1층 슈퍼마켓에서 평양 시민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19)

2018 조선상품 브로셔

2018 조선상품 브로셔

2018 조선상품 브로셔



2018 조선상품 브로셔

2018 조선상품 브로셔

조선달력 – 2014년 도자기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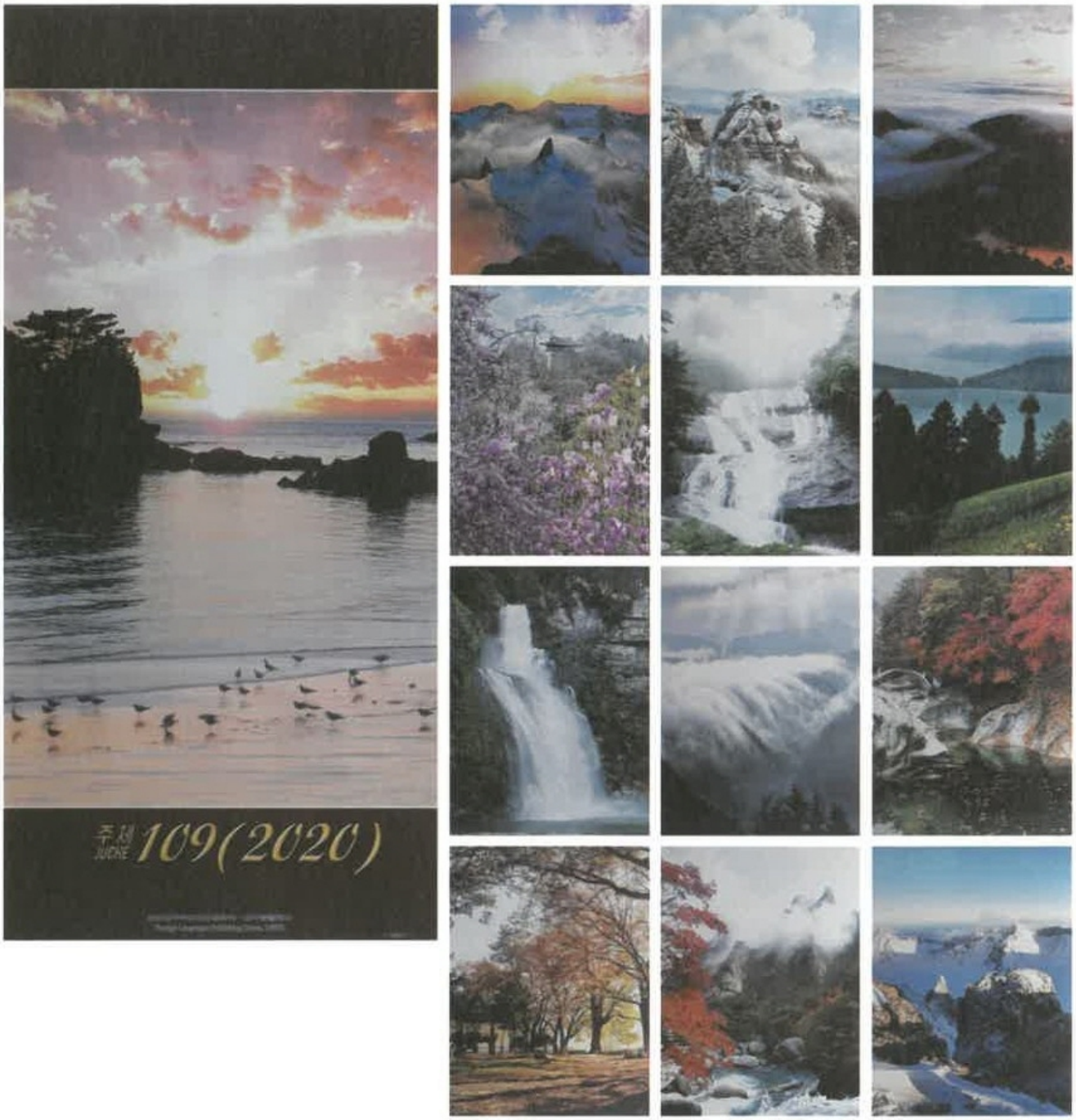
2015

조선달력 - 2015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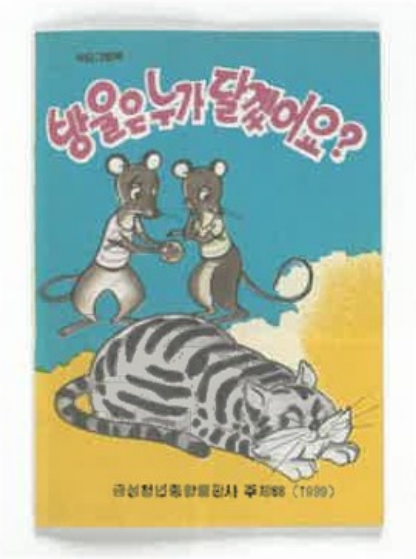
조선달력 – 2016년 6.15 통일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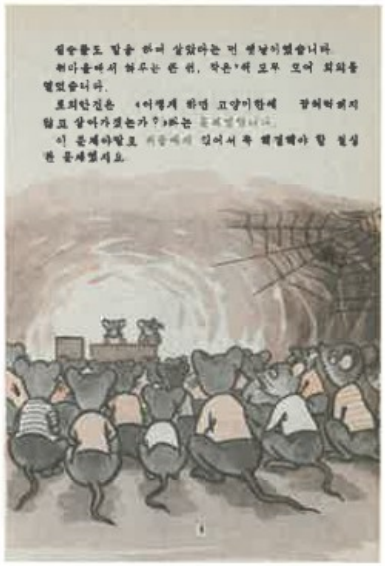
조선달력 – 2017년 Korea fil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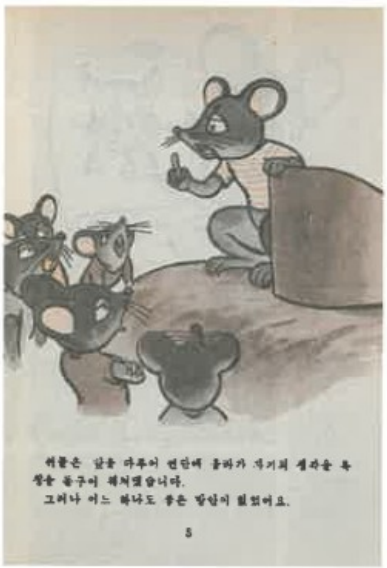
조선달력 - 2019년 고려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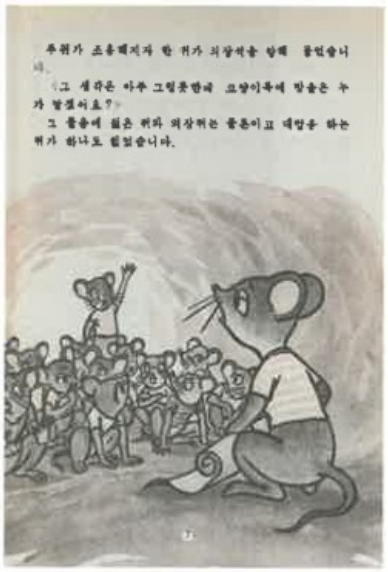


조선달력 – 2020년 자연









만화 – 방울은 누가 달겠어요?

만화 – 력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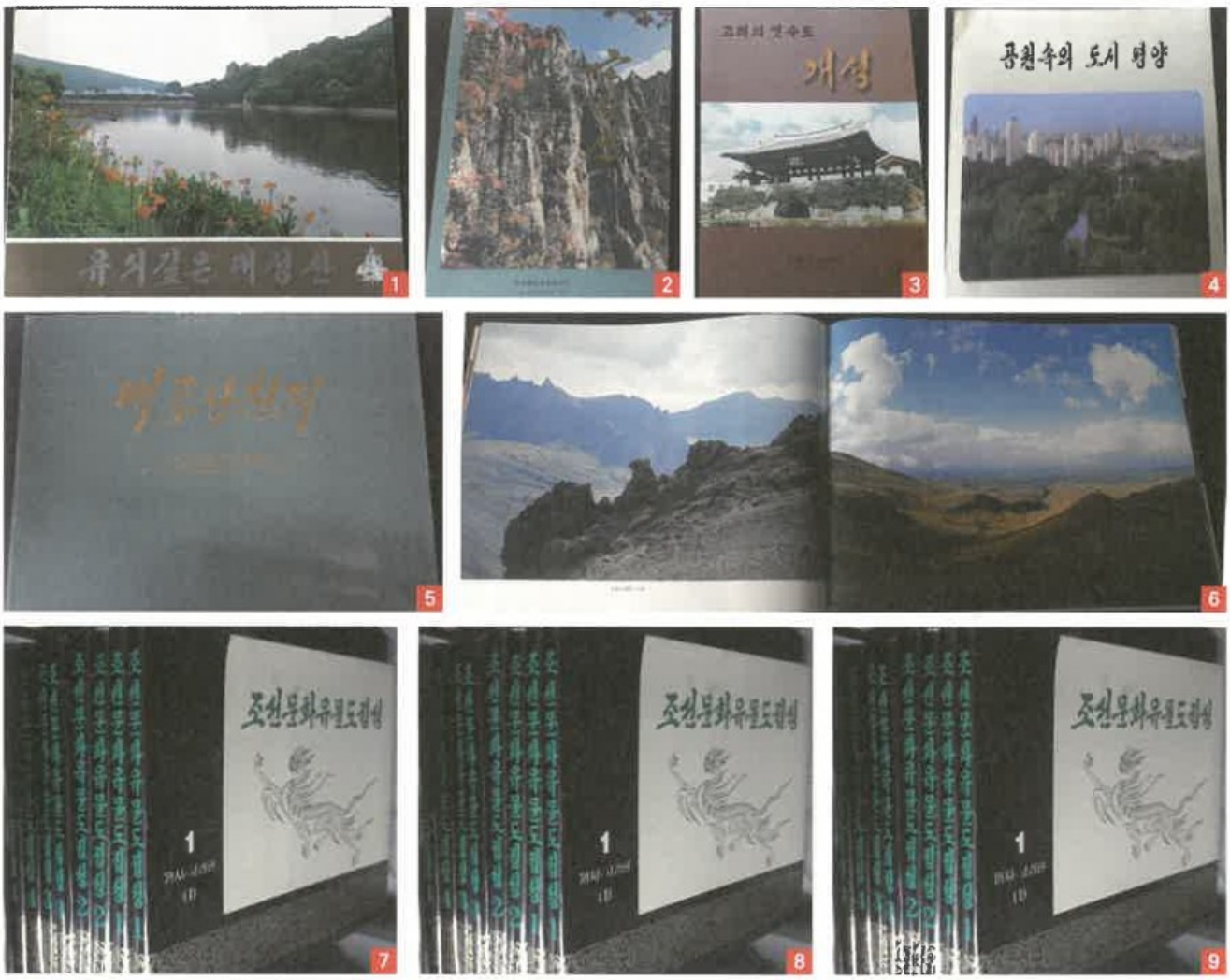
만화 – 물음동이

만화 – 한석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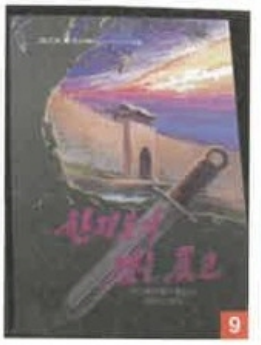
북한의 도서들(원서) - 문학, 예술, 상식, 아동, 관광, 화보 등

1. 문학도서 - 세계문학선집 - 레미제라블
2. 문학도서 - 조선고전문학선집 - 춘향전
3. 문학도서 - 조선고전문학선집 - 보심록
4. 문학도서 - 현대조선문학선집 - 1920년대 아동문학집
5. 문학도서 - 현대조선문학선집 - 1920년대 희곡선
6. 문학도서 - 조선민화집 - 토끼와 자라
7. 문학도서 - 조선민화집 - 대동강총각과 선녀
8. 상식도서 - 야담집
9. 상식도서 - 세계일화집
10. 상식도서 - 바둑 배우기
11. 역사도서 - 우리나라 지리와 풍속
12. 문화예술도서 - 세계영화인물집1
13. 문화예술도서 - 라운규와 수난기 영화
14. 문화예술도서 - 세계의 미술가와 명작들

1. 문화예술도서 – 림홍은 작품집
2. 문화예술도서 – 조선회화가 리석호의 화첩
3. 문화예술도서 – 조선회화가 리석호의 화첩 (펼친면 전시)
4. 문화예술도서 – 조선음악명인전1
5. 관광화보 & 도서 – 조선우표목록1
6. 관광화보 & 도서 – 조선우표목록2
7. 관광화보 & 도서 – 조선지도첩
8. 관광화보 & 도서 – 조선관광지도첩
9. 관광화보 & 도서 – 조선관광가이드
10. 관광화보 & 도서 – 조선관광가이드
11. 관광화보 & 도서 – 만경대학습소년궁전
12. 관광화보 & 도서 – 인민대학습당
13. 관광화보 & 도서 – 묘향산 보현사
14. 관광화보 & 도서 – 동명왕릉



1. 관광화보 & 도서 – 유서깊은 대성산
2. 관광화보 & 도서 – 금강산
3. 관광화보 & 도서 –개성
4. 관광화보 & 도서 –공원속의 도시 평양
5. 관광화보 & 도서 –백두산 천지
6. 관광화보 & 도서 –백두산 천지 (펼친면 전시)
7. 관광화보 & 도서 –조선문화유물도집성, 조선유적유물도감
8. 관광화보 & 도서 –조선문화유물도집성, 조선유적유물도감 (펼친면 전시)
9. 관광화보 & 도서 –조선문화유물도집성, 조선유적유물도감 (펼친면 전시)



1. 아동도서 – 조선민화그림책 시리즈
2. 아동도서 – 조선민화그림책 시리즈
3. 아동도서 – 조선민화그림책 시리즈
4. 아동도서 – 우리나라 옛이야기 그림책 시리즈
5. 아동도서 – 우리나라 옛이야기 그림책 시리즈
6. 아동도서 – 우리나라 옛이야기 그림책 시리즈
7. 아동도서 – 그림으로 본 조선력사 시리즈
8. 아동도서 – 그림으로 본 조선력사 시리즈
9. 아동도서 – 그림으로 본 조선력사 시리즈
10. 아동도서 – 전설그림책 시리즈
11. 아동도서 – 전설그림책 시리즈
12. 아동도서 – 세계아동문학선집 시리즈
13. 아동도서 – 세계아동문학선집 시리즈
14. 아동도서 – 동화그림책 – 개미와 곰
15. 아동도서 – 동화그림책 – 나비와 수닭

1. 아동도서 – 그림책 한석봉과 어머니
2. 아동도서 – 속담 그림책
3. 아동도서 – 알아맞추기 그림책
4. 아동도서 – 그림이야기 력도산
5. 아동도서 – 두뇌관련의 학교
6. 아동도서 – 봉이김선달
7. 아동도서 – 동화책 가장 아름다운 구슬
8. 아동도서 – 악기 교측본
9. 아동도서 – 어린이 가야금 배우기
10. 아동도서 – 어린이 바이올린 배우기
11. 아동도서 – 어린이 바이올린 배우기 (펼친면 전시)
12. 아동도서 – 악보 배우기
13. 아동도서 – 아동 노래집
14. 아동도서 – 아동 노래집
15. 아동도서 – 아동 노래집

1. 아동도서 – 아동 노래집
2. 아동도서 – 아동 노래집
3. 아동도서 – 아동 노래집
4. 아동도서– 만화–현무의 비밀
5. 아동도서– 만화–현무의 비밀
6. 아동도서– 만화–현무의 비밀
7. 민속도서– 민족의 자랑 조선옷
8. 민속도서–민족음식과 함께

동영상

인민대학습당 소개 – 170'

과학기술전당과 상품전람회 소개 – 190'

국내 출간 북한 도서 (기증 도서)

번호	출판사	도서명	분류
1	가나출판사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	경제
2	가람기획	북한의 도시를 미리 가봅니다	문학
3	가람기획	북한사 다이제스트	역사
4	경인문화사	남북 통일, 경제통합과 법제도통합	경제
5	경인문화사	황석중 장편소설 황진이	문학
6	경인문화사	남북 통일경제론	경제
7	경인문화사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역사
8	경인문화사	김정은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정치
9	경인문화사	북한특강 2020-과거와 미래	정치
10	경진출판	북한사회: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사회, 문화
11	경진출판	북한 연극을 읽다	문학, 예술
12	경진출판	The Society(북한사회):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사회
13	경진출판	북으로 간 미술사가와 미술비평가들	문학, 예술
14	경진출판	통일 잡수다	사회, 문화
15	교육과학사	통일과 북한으로의 산책	사회, 정치
16	국민출판사	북한아이들의 비밀 일기	아동
17	국민출판사	북녘 친구 남녘 동무	아동
18	국민출판사	놀아도 괜찮아, 딱 친구야	아동
19	꿈터	김하늘 북한에 가다	아동
20	내일을 여는 책	북한과 미국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정치, 외교
21	내일을 여는 책	개성공단 사람들	사회, 정치
22	내일을 여는 책	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 못하나	사회, 비평
23	내일을 여는 책	개성공단 아름다운 약속	아동
24	내일을 여는 책	좌충우돌 아줌마의 북맹탈출 평양이야기	사회
25	너나드리	북한담배	정치
26	너나드리	평양 밖 북조선	정치
27	너나드리	통일, 너를 만나면 심쿵	정치
28	너나드리	그들만의 평양	정치
29	너나드리	사람과 사람: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	정치
30	너나드리	김정은의 음악정치	정치
31	넥서스BOOKS	미리 가 보는 북한	문화, 여행
32	넥서스BOOKS	한반도를 달리다	문화, 여행
33	넥서스BOOKS	평양,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문화, 여행
34	넥서스BOOKS	남북한 언어 탐구생활	문학, 국어
35	노란돼지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	아동
36	늘품플러스	어서와 북한영화는 처음이지	문화, 예술
37	늘품플러스	세계의 옷 공장, 북한	문화, 예술
38	다할미디어	북한 사찰 음식	문화, 예술

39	다할미디어	북한의 기아	정치
40	담디	이제는 평양 건축	문화, 건축
41	담디	평양 2050. 미래공간	문화, 건축
42	담디	북한 도시 읽기	문화, 도시
43	라온북	북한 투자의 시대	경제
44	라이스메이커	북한은 처음이지?	문화, 도시
45	렛츠북	북한 투자 교역 미래	경제
46	리북스	변화하는 북한 부동산과 국토	경제
47	명인문화사	북한의 체제와 정책	정치, 외교
48	명인문화사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정치, 외교
49	명인문화사	남북한 체제통합론	정치, 외교
50	명인문화사	한류 통일의 바람	사회
51	미호	처음 만나는 북한 요리 수업	문화, 음식
52	박영사	그루터기: 북한 종교인 가족의 삶과 신앙의 궤적을 찾아서	종교
53	박영사	12개주제로 생각하는 기독교와 통일 그리고 북한	종교
54	박영사	12개주제로 생각하는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통일
55	박영사	남북통일팩트체크 Q&A 30선	아동
56	박영사	김정은시대, 유럽연합과 북한	정치, 외교
57	박영사	맛있게 읽는 북한 이야기	아동
58	박영사	북한투자법제해설	경제
59	박영사	강대국패권경쟁과 남북한관계	외교
60	박이정출판사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1	문학
61	박이정출판사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2	문학
62	박이정출판사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3	문학
63	북코리아	북한 김정은 체제 이해	정치
64	살림출판사	북한만화의 이해	문화
65	살림출판사	북한 애니메이션	문화
66	살림출판사	북한의 경제-개방과 폐쇄의 딜레마, 북한의 이중적 경제	경제
67	살림출판사	북한의 대중문화-연극과 영화를 통해 본 북한 사회	문학
68	살림출판사	북한의 외교-먹기 위한 개방, 살기 위한 핵외교	정치, 외교
69	살림출판사	북한의 급변-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과 대비	정치, 외교
70	살림출판사	북한의 군부-북한을 움직이는 힘, 군부의 패권경쟁	정치, 외교
71	살림출판사	북한의 인권-인민의 천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정치, 외교
72	살림출판사	북한 대남침투도발사	정치, 외교
73	살림출판사	북한남침이후 3일간, 이승만대통령의 행적	역사
74	서울셀렉션	나의 할아버지, 인민군 소년병	문학
75	서울셀렉션	김일성 1912-1945	역사
76	서울셀렉션	평양미술 조선화, 너는 누구냐	문화, 미술
77	서울셀렉션	영웅적 조선 녀성의 성과 국가	사회
78	서울셀렉션	조선 레볼루션	정치, 통일
79	서울셀렉션	압록강 블루	문학

80	시대의창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경제
81	아르볼	북한 친구를 추가하시겠습니까?	아동
82	아시아	청춘송가	문학
83	아시아	벗	문학
84	아시아	단풍은 락엽이 아니다	문학
85	아트북스	북한미술과 분단미술	문화, 미술
86	앨피	북한 녀자	사회
87	역락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문학
88	역락	경제제재 그리고 북한의 선택	정치 외교
89	온다프레스	북한 여행 회화	여행
90	창비	판문점의 협상가 정세현 회고록	사회, 정치
91	창비	와다 하루끼의 북한 현대사	역사
92	창비	고난과 웃음의 나라	사회
93	창비	장마당과 선군정치	사회, 정치
94	창비	70년의 대화	사회, 정치
95	창비	극장국가 북한	사회
96	커뮤니케이션북스	북한 애니메이션의 초기역사	문화, 영화
97	커뮤니케이션북스	북한의 조선예술영화	문화, 영화
98	커뮤니케이션북스	북한 기록영화	문화, 영화
99	탑북스	현대 북한 이해	외교
100	파랑새어린이	나는 북만길이다	아동
101	파랑새어린이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놀이를 할까	아동
102	푸른사상	남북한 맞춤법과 한국어 어휘 연구	문학, 국어
103	푸른사상	북한의 고전한시 연구	문학
104	푸른사상	해방기 북한 시문학론	문학
105	한겨레출판	북한여행	여행
106	한겨레출판	북한 사람과 거래하는 법	정치외교
107	함께자람	어린이가 처음 만나는 북한 전래 동화	아동
108	현실문화연구	길 위에서 만난 북한 근현대사	역사

방문객 대상 서비스

▸ 무지 노트

무지노트 표지

▸ 책갈피

▸ 리플렛

▸ 유아동 대상 그림 색칠 놀이

전시회 사진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별 방역 대책

- **개요**

  북·BOOK과 함께 행사 진행 시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인 관계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3판)』에 따라 행사를 진행하였음

- **방역 대책 수립**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별 상황에 맞는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행사	1단계	2단계	3단계	기타
포럼	◦ 방청객 수 **60명 선**으로 제한 ◦ 온라인을 통한 **녹화 중계** 진행 ◦ **방청객 및 진행인력** 출입 시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손소독제/마스크 비치 ◦ 행사 운영 인력에 대한 방역 지침 교육 ◦ 방청객을 위한 음료 및 다과 준비 ◦ 방청객 및 진행인력 간 간격 2m 유지 및 지속적 고지 진행	◦ 전체 입장객 수 **20명 미만**으로 제한 ◦ 온라인을 통한 **생중계** 진행 ◦ **입장객 및 진행인력** 출입 시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손소독제/마스크 비치 ◦ 행사 운영 인력에 대한 방역 지침 교육 ◦ 방청객을 위한 음료 및 다과 **개인별**로 제공 ◦ 방청객 및 진행인력 간 간격 2m 유지 및 지속적 고지 진행	◦ 행사 취소	◦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행사 일정을 연기하여 진행 검토
전시회	◦ 동시 입장객 수 및 전시장 내 관람객 수를 총 **60명 선**으로 제한 ◦ 관람객 입장 시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손소독제/마스크 비치 ◦ 관람객 입장 시 대기거리 2m 유지 ◦ 전시장 내 마스크 착용 지속적 고지 ◦ 행사 운영 인력에 대한 방역 지침 교육	◦ 전시장 내 관람객 수를 **각 세션 별 10명 미만**으로 제한 (총 동시 입장 인원 50명) ◦ 관람객 입장 시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안내 및 손소독제/마스크 비치 ◦ 관람객 입장 시 대기거리 2m 유지 ◦ 전시장 내 마스크 착용 지속적 고지 ◦ 행사 운영 인력에 대한 방역 지침 교육	◦ 행사 취소	◦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행사 일정을 연기하여 진행 검토
사진 공모전	◦ 일정대로 진행	◦ **시상식 취소** (상장 및 상품 우편 발송)	◦ 행사 취소	◦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행사 일정을 연기하여 진행 검토

◈ 파주 보건소 및 파주시청 담당자와 협의 후 행사 진행

- 파주 출판단지 내 행사의 경우 보건소가 아닌 파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에서 담당
- 담당자와 협의 후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3판)의 「1-11. 생활 속 서리 두기 지침 : 전시행사」에 명시되어 있는 지침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여 행사 진행

번호	대상	지침	조치사항	
			포럼	전시회
1	이용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일반인 입장 제한 / 관계자 입장 시 발열체크 및 해외 방문 여부 확인	방문객 입장 시 발열 체크 및 해외 방문 여부 확인
2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한 테이블 2명 이하 배치 및 의자간 거리 유지	입장 시 거리두기 안내 스티커 부착 및 행사 요원에 의한 안내 진행
3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홍보 안내문 배치	홍보 안내문 배치
4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홍보 안내문 배치	홍보 안내문 배치
5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홍보 안내문 배치	홍보 안내문 배치
6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마스크 착용 안내 고지 (행사 요원 안내 및 안내문)	마스크 착용 안내 고지 (행사 요원 안내 및 안내문)
7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마스크 착용 안내 고지 (행사 요원 안내 및 안내문)	마스크 착용 안내 고지 (행사 요원 안내 및 안내문)
8		가능하다면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참여하기	일반인 입장을 제한하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	영상을 활용한 홍보 자료 제작 후 SNS 공유
9		불가피하게 현장 참여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위생(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하기	홍보 안내문 배치	홍보 안내문 배치
10		불가피하게 현장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신원확인) 작성하기	QR 체크인 운영 및 수기 방문 명부 비치	QR 체크인 운영 및 수기 방문 명부 비치
11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전시회 방문 자제하기	일반인 입장 제한	행사 요원 고지 및 방문 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등의 방역 조치 시행
12		전시회 출입 시 손 위생,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협조 안내문 배치	협조 안내문 배치
13		한 개의 전시 부스에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분산하여 관람하기	해당 사항 없음	전시장 내 행사 요원을 배치하여 관람객에게 지속적 고지 진행
14		전시회 참가업체 및 바이어와 상담 시 악수 등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밀폐된 공간을 피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담 진행하기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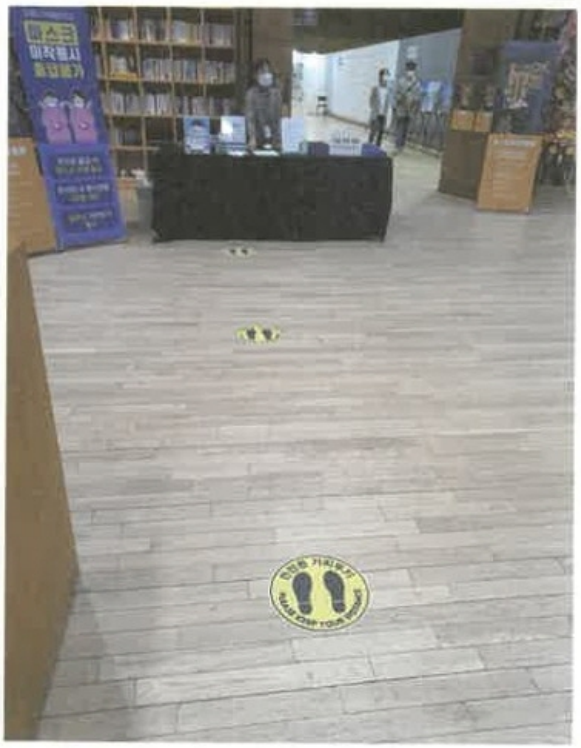
15	이용자	상담회장, 회의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2m (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한 테이블 2명 이하 배치 및 의자간 거리 유지	해당 사항 없음
16		전시회 현장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현금보다는 전자 결제방식 이용하기 (모바일페이, QR코드, NFC 카드, 신용카드 등)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7		전시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 자제하기	해당 사항 없음	음식 섭취 불가 안내
18		실내 휴게시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9		줄서기 등 대기할 때에는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을 두기	홍보 안내문 배치	홍보 안내문 배치
20		전시회 참여 중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시회 관계자에게 알리기	증상자 인지 후 보건소 즉각 연락 (031-940-4800)	증상자 인지 후 보건소 즉각 연락 (031-940-4800)
21	책임자 및 종사자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파주 보건소 (031-940-4800)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안광재 주무관(031-940-4721)	파주 보건소 (031-940-4800)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안광재 주무관(031-940-4721)
22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할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하기	해당 시 관련 기관 연락	해당 시 관련 기관 연락
23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즉시 조치	즉시 조치
24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행사 요원 거리두기 안내	행사 요원 거리두기 안내
25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화장실 위치 안내, 손소독제 및 여분의 마스크 비치	화장실 위치 안내, 손소독제 및 여분의 마스크 비치
26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전시장 문 및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1~2시간 사이 주기적 환기 진행	1~2시간 사이 주기적 환기 진행
27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손소독제를 활용하여 소독 진행	손소독제를 활용하여 소독 진행
28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마스크 착용 후 참석자 응대	마스크 착용 후 관람객 응대
29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방역 안내문 및 수기 방문 명부 비치	방역 안내문 및 수기 방문 명부 비치
30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방역 안내문 비치	방역 안내문 비치
31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방역 안내문 비치	방역 안내문 비치
32		가능하다면 온라인 또는 영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온라인 생중계 진행	영상을 활용한 홍보 자료 제작 후 SNS 공유

33	책임자 및 종사자	불가피하게 현장 전시회를 개최할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여 추진하기	비접촉 발열 체크기, 손소독제, 여분의 마스크 비치 및 방역 협조 안내문 설치	비접촉 발열 체크기, 손소독제, 여분의 마스크 비치 및 방역 협조 안내문 설치
34		현장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사전 예약제, 시간제 운영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참관객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 유도하기	온라인 생중계 진행	전시장 입장 시 전시장 내 동시(운영인력 포함) 50인을 넘지 않도록 운영하고 관람객에게 양해 안내 / 안내문 설치
35		현장에서 등록하기보다 사전 온라인 등록 안내하기	일반인 입장 제한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QR 체크인 운영 및 수기 방문 명부 비치
36		전시장이 밀집되지 않고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유지되도록 입장 정원을 제한하기	전체 20인 선에서 제한	전시장 내 50인을 넘지 않도록 운영
37		참관객, 진행요원 등 모든 전시장 출입자의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고, 등록신청서(신원확인) 제출자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기	비접촉 발열체크, QR 체크인 운영 및 수기 방문 명부 비치	비접촉 발열체크, QR 체크인 운영 및 수기 방문 명부 비치
38		전시시설, 전시회 주최기관, 참가업체 직원 대상 체온 등 증상 여부 일일 2회 점검 후 대장 작성하기	점검 대장 비치	점검 대장 비치
39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여 이용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동선을 마련하기	이용 가능한 출입문이 하나인 관계로, 행사 진행요원이 출입을 통제	이용 가능한 출입문이 하나인 관계로, 행사 진행요원이 출입을 통제
40		한 개의 전시 부스 내에 참관객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한꺼번에 밀집되지 않도록 하기	해당 사항 없음	행사 진행요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람객 대상 안내 진행
41		이동 시 참관객 및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기	해당 사항 없음	전시장 공간을 넓게 구성하여 이동간 충분한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
42		전시회 참가업체와 바이어는 상담 시 악수 등 가급적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밀폐된 공간을 피하며 마스크 착용 후 상담진행 하도록 유도 및 수시 안내하기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43		경연대회, 설명회 등 협소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부대행사 운영은 자제하기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44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구호 외치기 등)와 프로그램은 최소화하기	해당 프로그램 없음	해당 프로그램 없음
45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마이크는 커버를 씌우고, 개인마다 마이크 덮개를 새것으로 교체하기	개인용 마이크 사용	해당 사항 없음
46		전시장 외부에 기업, 제품 홍보 부스(코너)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부스 간에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참여자들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도록 안내하기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47		생활 속 거리 두기(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및 개인 위생수칙 홍보·안내하기	탁상용 안내문, 엑스 배너 등 안내문 설치	탁상용 안내문, 엑스 배너 등 안내문 설치

48	책임자 및 종사자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기	개인 도시락 제공	해당 사항 없음
49		가능한 포장 판매 활성화 및 대규모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50		현장 결제 시 전자 결제방식(모바일페이, QR 코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 시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기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51		식당,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유지 가능하도록 한 칸 띄어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를 배치하기	포럼 참석자 간 간격 유지 한 자리 배치	해당 사항 없음
52		외국 업체, 해외 거주민 등의 국내 초청은 자제하기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53		전시회 출입구 대기열에서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닥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고 안내하기	해당 사항 없음	바닥 스키터 부착
54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 소독제·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손소독제 등 비치	손소독제 등 비치
55		전시행사 전·중·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 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하기	행사 시작 전 방역 후 지속적 환기 실시	행사 시작 전 방역 후 지속적 환기 실시
56		셔틀버스 운영 시,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가 유지되도록 한 칸씩 띄어 앉고 대화 자제 안내하기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57		매표원, 출입 관리요원 등은 수시로 손세정제 (위생장갑 착용시 수시로 교체) 사용하기	손세정제 비치 및 수시 사용	손세정제 비치 및 수시 사용
58		진행요원 등의 식사 시간은 시차를 두고 운영하여 관계자 간 밀집을 최소화하기	개인 도시락 제공	외부 식당에서 개인 별로 식사

• 방역 대책 수행 결과

행사장 방역 대책



방역 안내문 설치

수기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 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

(사)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시설 출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3자 제공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수기출입명부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방문날짜, 방문시각 이름, 전화번호	감염병 예방 및 전파에 따른 방역조사	4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 시설을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파주시보건소	감염병 역학조사 및 방역에 따른 확진자 접촉 여부 확인	방문날짜, 방문시각, 이름, 전화번호	해당목적 달성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 시설을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만14세 이하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인과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 발열(37.5℃ 이상)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시 이용 제한함

(사)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5

<출입자 수기명부>

번호	날짜	방문시각	성명	체온	확인유무 (방역수칙 준수)	확인유무 (입주기업 종사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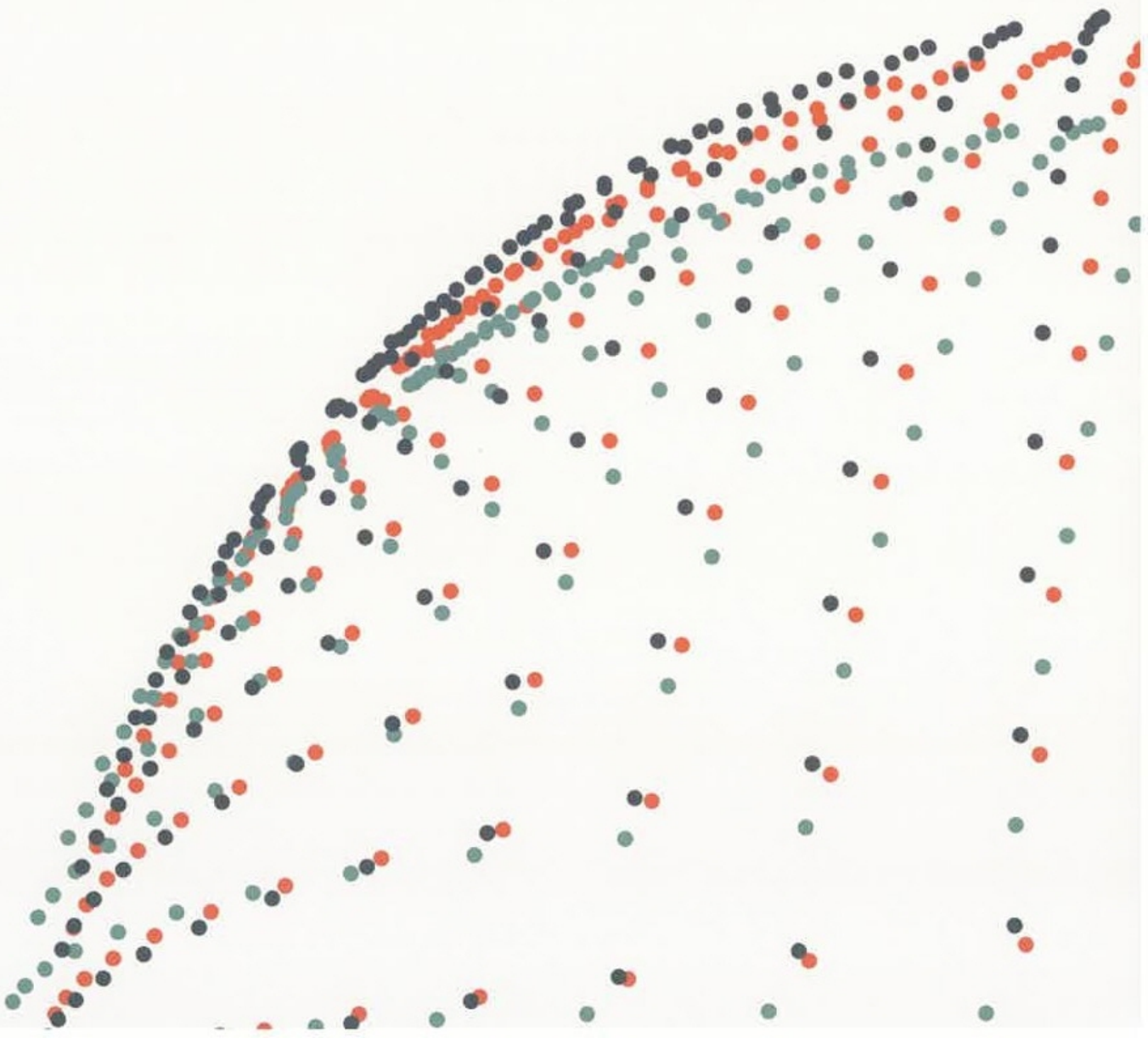
6

방역 장비 배치

1. 여분의 마스크 및 비접촉 체온계
2. 입장객 용 손 소독제
3. 전시장 내부 손 소독제 비치
4. 전시장 내부 손 소독제 비치
5. 수기출입명부 용 개인정보 수집동의
6. 수기 출입 명부

Ⅳ

자체평가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진행된 행사로, 행사 기간 중 10월 9일 54명의 전국 확진자를 시작으로 행사 기간동안 총 788명(10월 9일 54명, 10월 10일 72명, 10월 11일, 58명, 10월 12일 97명, 10월 13일 102명, 10월 14일 84명, 10월 15일 110명, 10월 16일 47명, 10월 17일 73명, 10월 18일 91명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이 진행되고 있었음

◈ 행사장 방역 관리 및 출입 통제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행사 기간 중 행사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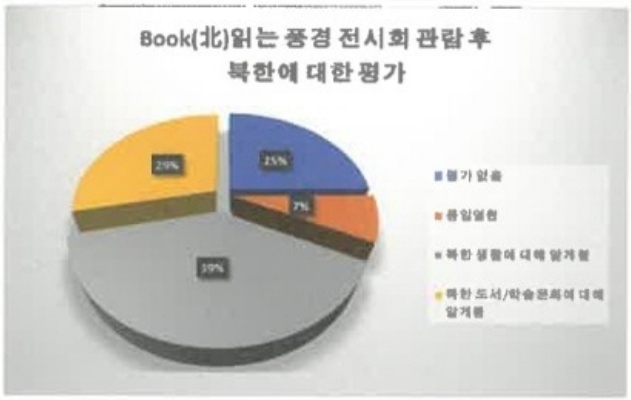
◈ 행사의 주제가 쉽게 접하기 힘든 북한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시장을 다녀가신 방문객에게 경험하기 어려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행사였다고 평가함

설문조사 결과

◈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 관람객 대상 전시회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요청하였고, 총 방문객 1,980명 중 137명이 답하였음

◈ 평가를 분석해 보면 전시회 자체 평가 및 전시회 관람 후 북한에 대한 평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음

전시회에 대한 평가는 작성자의 86%(118명)가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음



전시회 관람 후 북한에 대한 평가는 작성자의 39%(54명)가 북한 생활에 대해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29%(39명)가 북한의 도서/학습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점을, 7%(10명)가 통일을 염원한다는 답변을 주었음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연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행사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특히 당초 계획되었던 북콘서트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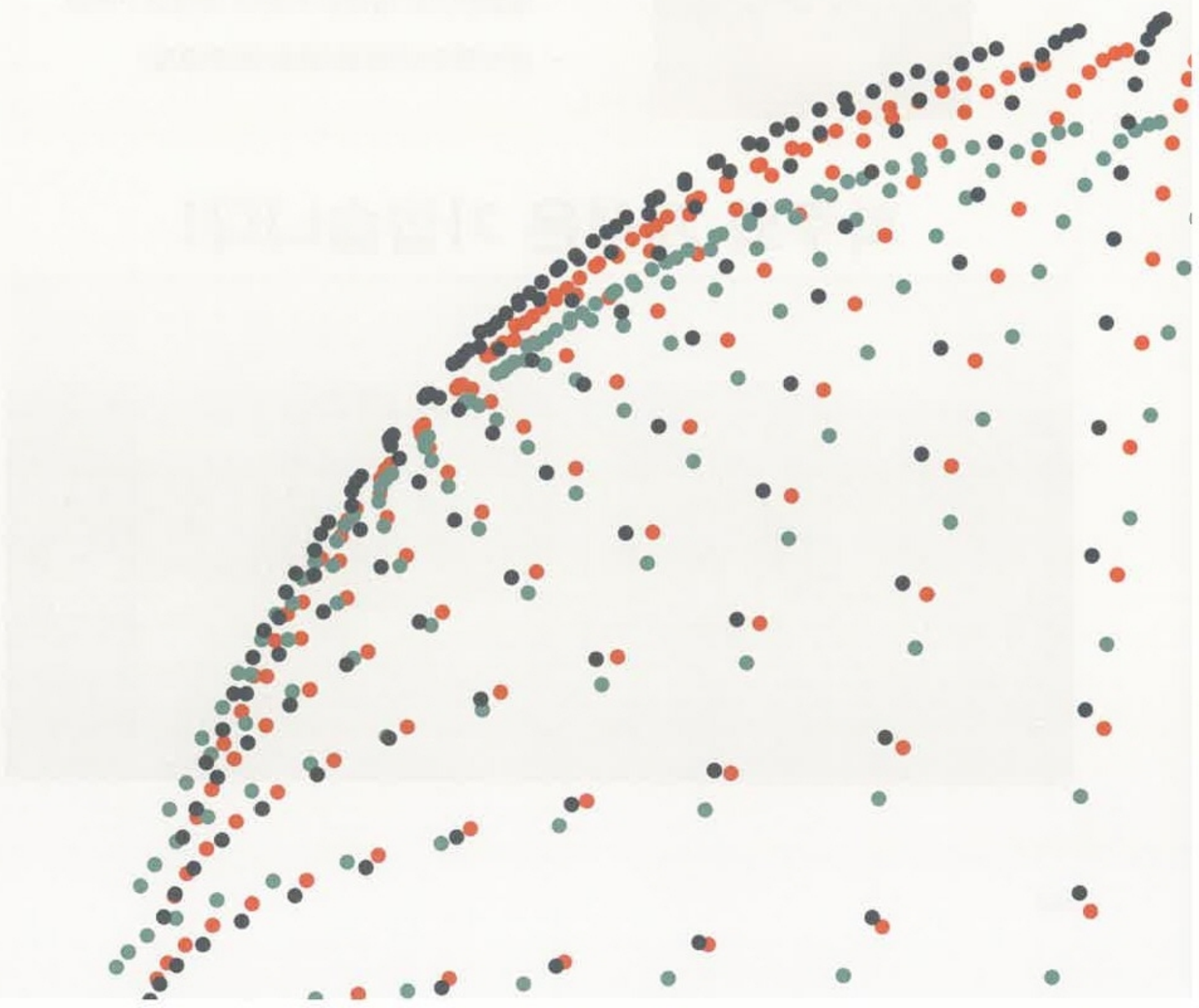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방안 1: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되면 향후 사업에서는 북한 관련 도서의 저자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탈북민들에게 직접 듣는 북한의 도서 및 출판문화 현황 등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준비를 통해 올해 진행된 수동적인 형태 (전시회, 온라인 포럼 등)의 행사를 능동적인 형태의 행사로 발전시켜 진행

◈ 방안 2: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 참여 행사를 최소화하며 보다 심도 깊은 남북문화교류와 파주 출판도시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포럼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행

V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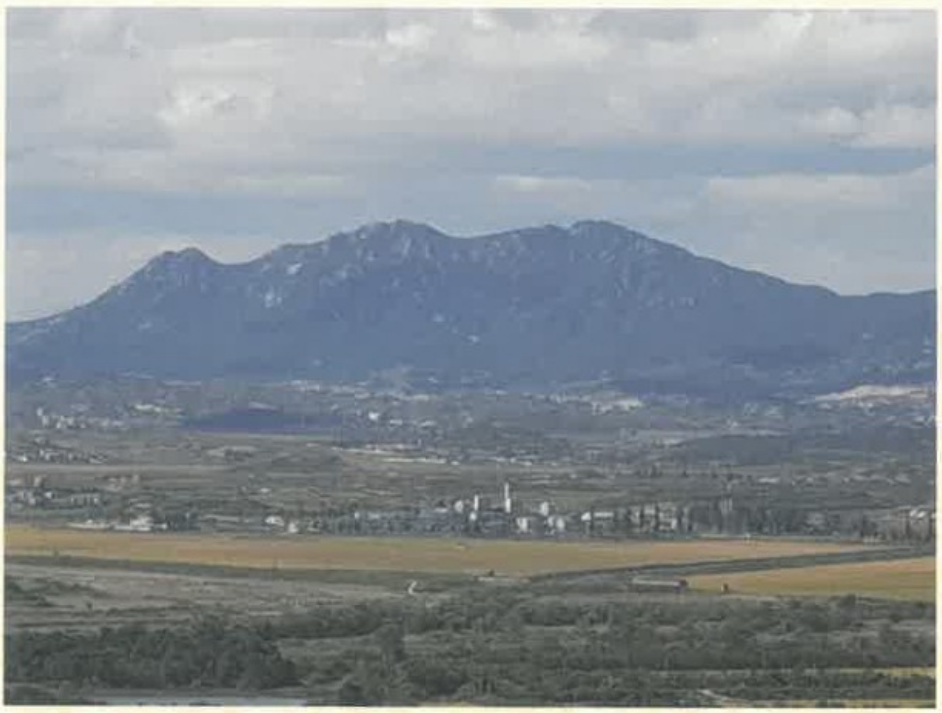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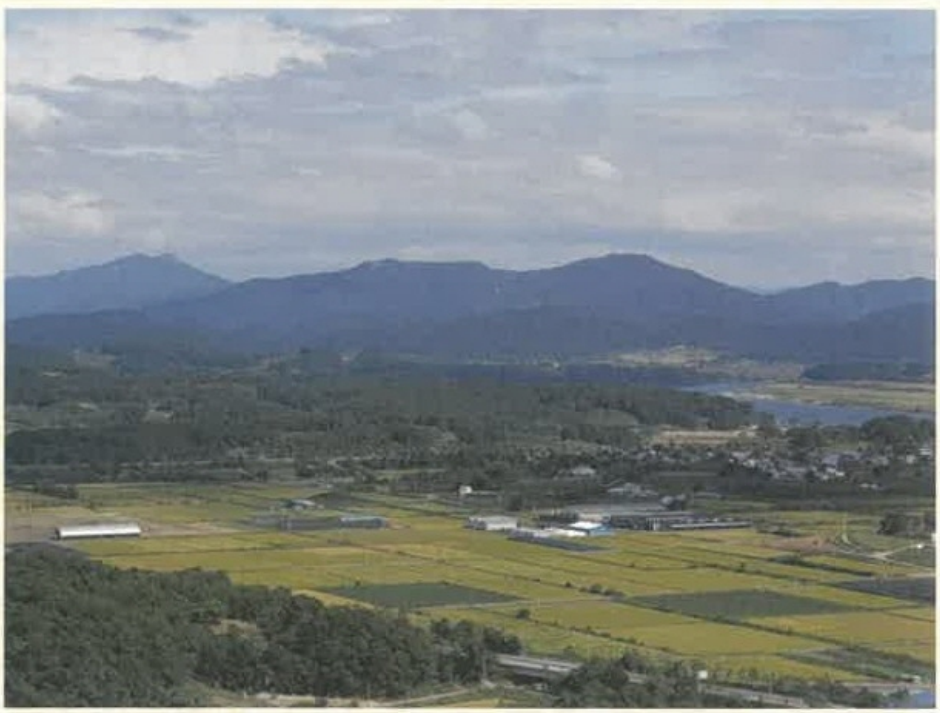
[기조연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 파주와 개성은 가깝습니다

기조연설 : 김진향 개성공단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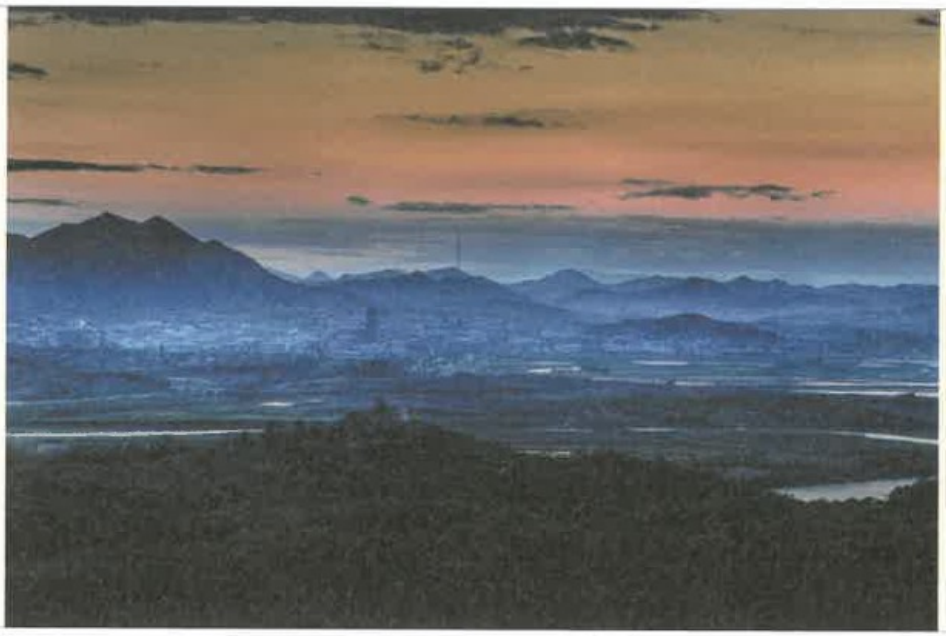
- *개성공단 이사장 / 관리위원장*
-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통일외교안보 행정관
- *청와대 NSC 전략기획실 행정관*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 *정치학박사(북한/통일/평화경제)*

파주와 개성은 가깝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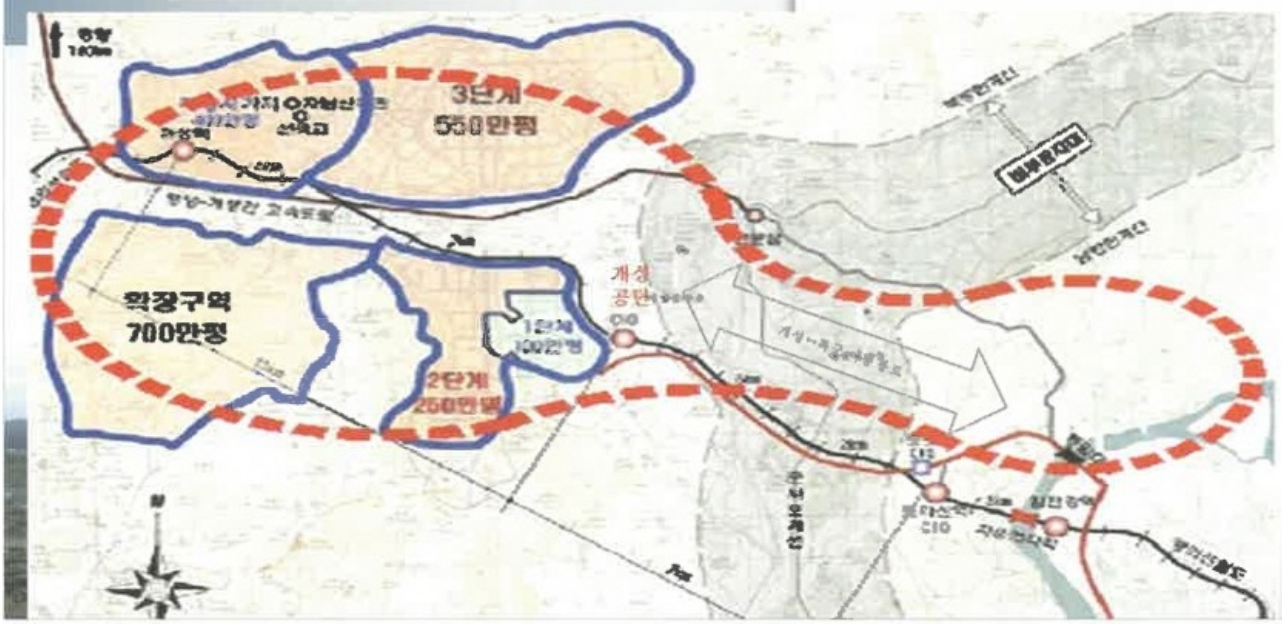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경제의 상징 개성공단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통일경제특구

통일경제특구와 경기도 파주



한반도 평화경제의 상징 파주

분단체제의 접경, 변방에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중심으로!

파주의 민족사적 사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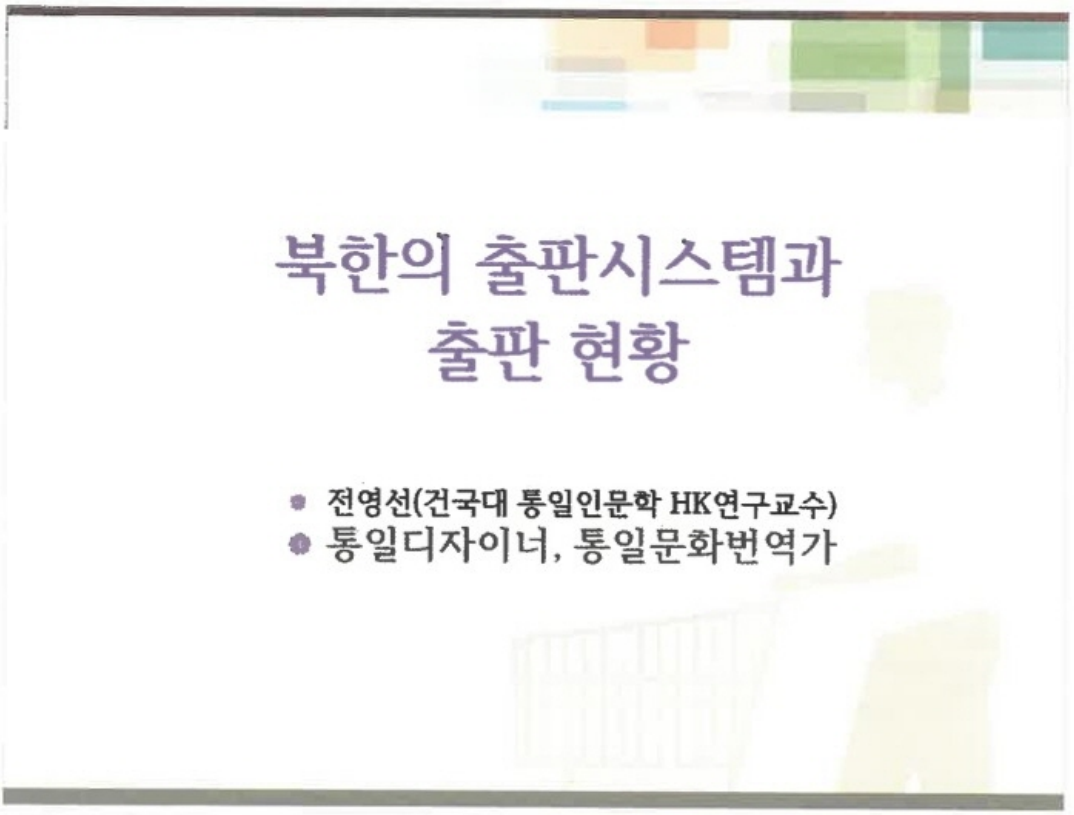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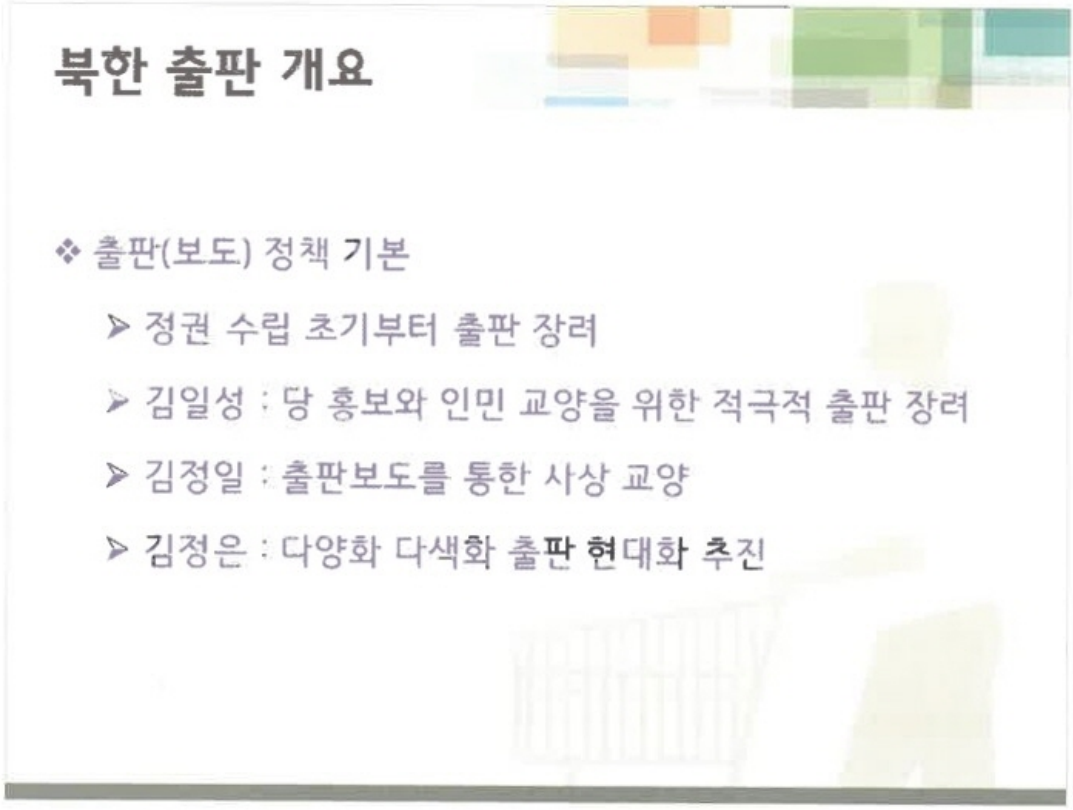
개성공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파주와 개성은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1] 전영선 (건국대HK 교수) – 북한의 출판시스템과 출판 현황





차 례

주체적인 기념비미술의 사상미학적 특질 .... (5)
어버이수령님께 대한 전인민적 송가를 억만년 길이 전할 만수대대기념비 .... (13)
1) 만수대대기념비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 (13)
2) 만수대대기념비의 구성체계 .... (17)
3) 만수대대기념비에 형상된 주체형의 인간세계 .... (51)
4) 만수대대기념비의 조형적 특징 .... (54)

주체적인 기념비건설방침을 가장 빛나게 구현한 삼지연대기념비 .... (62)
1) 삼지연대기념비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 (62)
2) 삼지연대기념비의 구성체계 .... (65)
3) 삼지연대기념비의 조형적 특징 .... (85)

무장투쟁의 기치를 형상한 첫봉화탑 왕재산대기념비 .... (97)
1) 왕재산대기념비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 (97)
2) 왕재산대기념비의 구성체계 .... (101)
3) 왕재산대기념비의 조형적 특징 .... (114)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를 상징한 자주시대의 위대한 창조물 주체사상탑 .... (129)
1) 주체사상탑의 창조와 건립에 대한 위대한 향기 .... (129)

1

당의령도밑에 창작건립된 대기념비들의 사상
예술성(조선미술출판사 1989)

왕재산대기념비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북한 출판 개요

❖ 출판 기본 성격

- 목적 : 출판은 선전선동 수단(당 정책 홍보, 인민 사상 교육)
  - ✓ '보도', '당적' 용어와 결합된 '출판보도', '당적 출판'
- 관리 : 기획부터 검열, 인쇄, 보급 과정에 국가 관리
- 방향 : 시장 < 당의 정책

출판보도

공화국에는 《로동신문》, 《민주조선》, 《평양신문》, 《청년전위》를 비롯한 여러 중앙신문들, 각 도의 지방신문들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사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도, 시, 군 지방방송들이 있다.

TV방송으로는 조선중앙TV방송, 룡남산TV방송 등이 있다.

또한 조선로동당출판사, 금성청년출판사, 외국문출판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문학예술출판사, 교육도서출판사를 비롯한 여러 출판사들과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의 출판사들이 있다.

북한 출판 개요

- <당보를 창간할데 대하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선전부일꾼들과 한 담화, 19945년 10월 17일
- <일본 서적 및 출판물 단속에 관한 규정>, 내각서적출판지도국 규칙 제 1호, 1949년
- <도서판매사업 강화에 관하여>, 내각 지시 제126호, 1950년 3월 11일.
- <출판사업과 학생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출판보도일군 및 민청일군들과 한 담화, 1962년 5월 3일
- <수령님의 위대성을 남조선인민들에게 널리 선전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한 담화, 1965년 4월 27일.

북한 출판 개요

- <당대표자회의결정관철에서 출판보도물의 역할을 높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 및 기자, 편집원들과 한 담화, 1966년 10월 28일.
- <복잡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71년 12월 28일.
- <우리 당 출판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제3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1974년 5월 7일
-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해설』,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불멸의 꽃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주체105(2016)

태양의 꽃
김일성화
세계 화초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온 세계가 공인하는 절세의 위인의 존함을 모신 꽃은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절세위인의 존함을 꽃의 이름으로 제일 먼저 명명한 사람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초대대통령이였던 수카르노입니다.

할미꽃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주체105(2016)

북한 출판보도 체제의 특징

1. 출판보도 기관의 국가관리체제

❖출판보도 운영

- ➢ 당과 국가에서 운영되는 당운영체제, 국가운영체제
- ➢ 모든 출판사들은 당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와 통제
- ➢ 출판물 통제는 광복 직후부터 시작

❖ 1960년대 이전

- ➢ 정권의 정통성 홍보, 일제 잔재의 청산 명목으로 출판 통제
- ➢ 일본 서적의 출판 단속을 강화하여 일본어 서적의 판매금지 단행
- ➢ 이후의 출판물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관련한 서적 중심 출판

북한 출판보도 체제의 특징

0 1960년대 이후

- 김일성 일인 중심의 출판보도 정책으로 전환

- 김정일 주도로 '김일성주의출판보도물'로 정립

: 출판보도물의 기본 사명 "우리(북한)의 출판보도물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간하시고 지도하시는 새형의 주체의 출판보도물이며 영광스러운 김일성주의혁명적출판보도물"이 되어야 한다. 김정일, 1974년 5월 7일 ,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제3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 「우리당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이다」.)

위인칭송의 꽃 김일성화(외국문출판사, 2015)

북한 출판보도 체제의 특징

2. 출판물 검열

0 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내각, 출판지도총국

- 선전선동부 : 모든 표현물 최종적 관리
- 선전사업, 정기·부정기 학습
- 출판·예술·방송을 통한 선전
- 문화·예술·문학 창작 지도
- 영화 지도
- (출판보도지도과) : 중앙통신사, 방송위원회 등을 지도
- 소조 사업에 따른 평가·관리
- 사적지의 건립 관리, 답사 지도

북한 출판보도 체제의 특징

3. 기관출판 체제

0 언론출판의 기관전담 체제

- 언론 : 『로동신문』(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민주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 『조선인민군』(인민무력부와 총정치국), 『청년전위』(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 기관지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출판보도물이 '대중을 교양하고 당 정책 관철로 조직을 동원하는 사업'으로 '선전선동의 매체로서 출판보도물이 없이는 대중을 교양하고 당 정책관철을 할 수 없'기 때문.

조 국 광 복 6 0 돐 에 즈 음 하 여

백두산밀영에서 인민보안성 정변전위들의 맹세모임 진행

기 념 우 표 발 행

조선우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영 화 상 영 순 간 개 막

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세 계 인 민 들 에 게 보 내 는

문화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추동하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자

북한 출판보도 체제의 특징

4. 검열체제와 검열기준

1) 출판물 검열체제

❖ 출판 자유

➢ 언론, 출판 자유에 대해서는 북한 헌법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명시.

그러나 자유는 당의 규정하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유.

"표현의 자유는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제하에서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북한 정치용어 사전)고 규정'.

➢ -언론 내용은 사전 편집

북한 출판보도 체제의 특징

➢ 검열과정

- 부서책임자, 담당주필(국장) → 검열부 → 출판지도총국 → 출판사.언론사의 교정쇄 수정(1차 : 교정부 → 2.3차 : 담당기자.교정부) → 검열본(1호본.일반본) 검토 → 출판지도총국 → 인쇄

➢ 1호본 : 최고지도자 및 고위 간부용(오탈자나 맞춤법 재인쇄)

➢ 일반본 : 정도에 따라서 '고침란'을 첨부하고 재인쇄하지 않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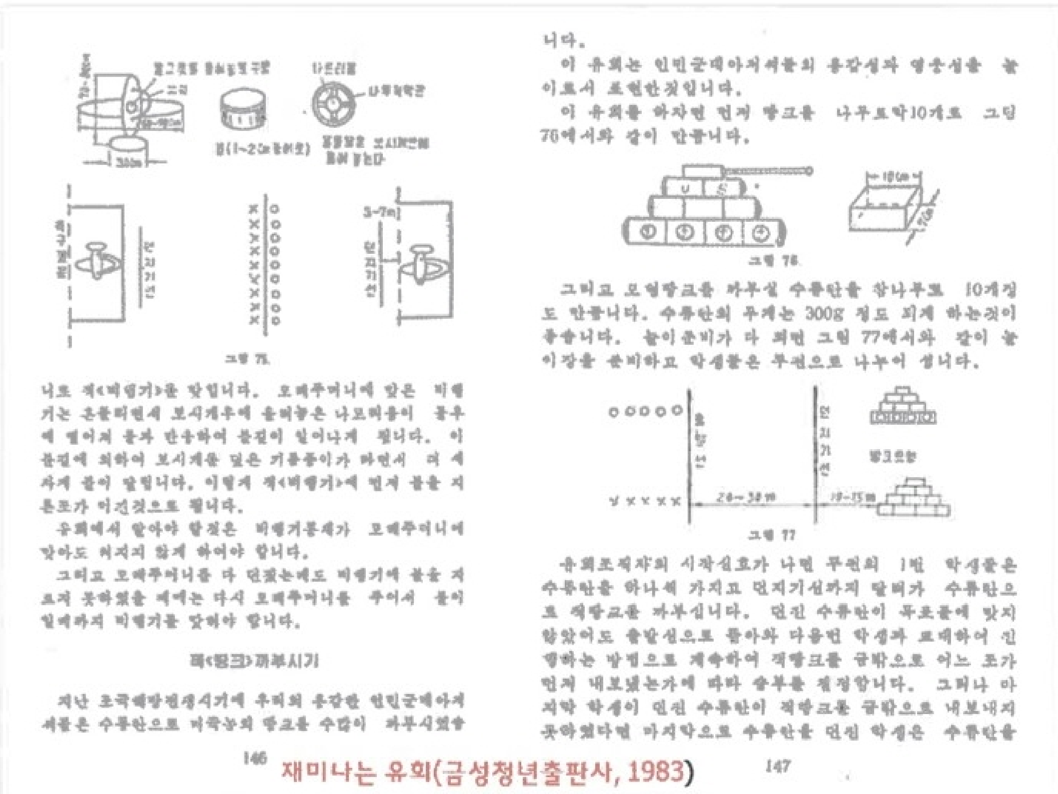


그림 75

니도 제《비행기》를 맞힙니다. 모래주머니에 맞은 비행기는 돈들리면서 보시게우에 올려놓은 나조미동이 물우에 떨어져 물과 반응하여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불길에 의하여 보시게를 덮은 기름종이가 타면서 더 세차게 불이 탈립니다. 이렇게 제《비행기》에 먼저 불을 지른조가 이긴것으로 됩니다.

유희에서 알아야 할것은 비행기통체가 모래주머니에 맞아도 쉬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래주머니를 다 던졌는데도 비행기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모래주머니를 주어서 불이 일때까지 비행기를 맞혀야 합니다.

적《땅크》까부시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의 용감한 인민군대아저씨들은 수류탄으로 미국놈의 땅크를 수많이 까부시였습니다.

이 유희는 인민군대아저씨들의 용감성과 영웅성을 놀이로서 표현한것입니다.

이 유희를 하자면 먼저 땅크를 나무토막10개로 그림 76에서와 같이 만듭니다.

그림 76

그리고 모형땅크를 까부실 수류탄을 참나무로 10개정도 만듭니다. 수류탄의 무게는 300g 정도 되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놀이준비가 다 되면 그림 77에서와 같이 놀이장을 준비하고 학생들은 두편으로 나누어 섭니다.

그림 77

유희조직자의 시작신호가 나면 두편의 1번 학생들은 수류탄을 하나씩 가지고 던지기선까지 달려가 수류탄으로 적땅크를 까부십니다. 던진 수류탄이 목표물에 맞지 않았어도 출발선으로 돌아와 다음번 학생과 교대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적땅크를 금밖으로 어느 조가 먼저 내보냈는가에 따라 승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학생이 던진 수류탄이 적땅크를 금밖으로 내보내지 못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수류탄을 던진 학생은 수류탄을

146 147

재미나는 유희(금성청년출판사, 1983)

북한 출판보도 체제의 특징

2) 출판지도총국

❖위상 - 내각직속, 모든 발간물의 검열을 지도

❖ 기능

- 출판물에 대한 검열, 중앙과 시·군의 보급소, 출판 관련 시설 운영,
- 산하에 출판기술학원을 두고 인력 양성
- 총국장, 부총국장(3명), 출판검열국, 인쇄지도국, 출파물보급국, 조직계획처

❖ 주요 부서

- 검열대상에 따라 7개 부서
  - ✓ 제1부 '김일성 김정일 노작 출판물', 제2부 '번역출판물',
  - ✓ 제3부 '과학기술교육부문 출판물', 제4부 '경제사회부문 출판물',
  - ✓ 제5부 '문화예술 관련 출판물', 제6부 '대외출판 선전물', 제7부 '특수부문 출판물' 검열

북한 출판보도 체제의 특징

0 검열방향

1) 당의 정책적 요구를 견지할 원칙과 방법을 수립할 것.

2) 심의위원의 자질을 높여 보도 수준을 높일 것.

3) 집체적으로 심의 채택한 작품은 개인의 멋대로 개고하지 말 것.

4) 수령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창작의 기초로, 창작 전과정의 지침으로,
창작 총화의 기준으로 삼는 원칙으로 지키고 있는가.

북한 출판보도 체제의 특징

❖ 검열기준

1)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에 철저히 입각하고 있는가.

2) 국가 및 군사비밀을 노출시킨 부분이 없는가.

3) 자본주의적 사상 요소가 나타난 부분이 없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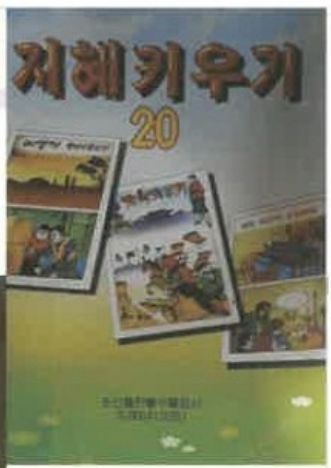
4) 대중의 공산주의 교양에 도움이 되는가.

5) 전투성·혁명성·계급성 등이 충분히 발양되었는가.

6) 예술적으로 지나치게 졸렬하지 않는가.

7) 단어 및 어휘 표현이 정확한가.

지혜키우기(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5)



북한 출판 현황

1. 주요출판사와 출판물

1) 출판물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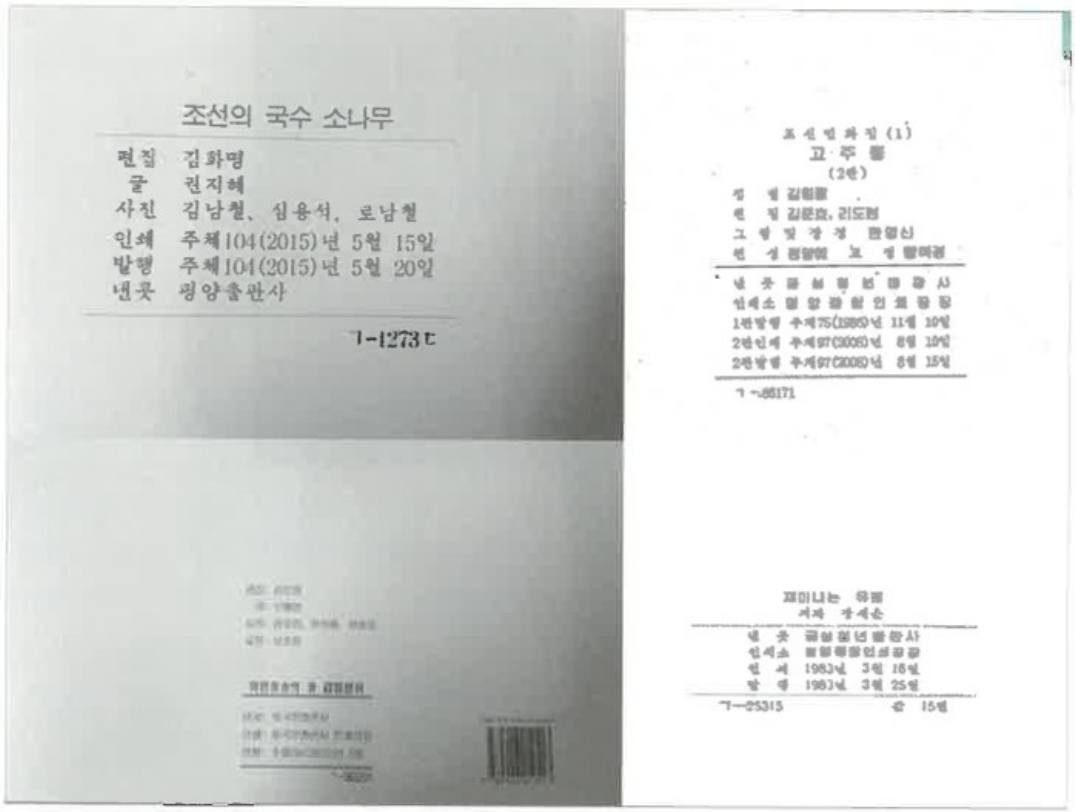
0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에서 80% 인쇄

0 잡지

- 주제 : 정치이론 잡지 『근로자』, 대중종합잡지 『천리마』, 문학예술잡지 『조선문학』, 『조선예술』, 과학기술잡지 『지질과 지리』, 화보 『조선』

- 독자 : 노동자잡지로는 『로동자』, 농민잡지로는 『농업근로자』, 청년잡지로는 『청년생활』, 학생잡지로는 『아동문학』, 여성잡지로는 『조선여성』 등



북한 출판 현황

2) 주요 출판사

0 조선로동당출판사

- 1945년 10월 23일 북조선로동당출판사로 설립, 1948년 10월 조선로동당출판사로 개칭.
- 노동당 직영의 최고 권위의 출판사로 로동당 관련물과 수령노작을 출판.
- 편집위원회와 편집국, 편찬국, 총무국의 3개 국, 그 아래에 편집부, 노작부, 문헌부 등
- 김일성선집'(시리즈),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자료집'(시리즈),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시리즈)

0 사회과학출판사

- 1964년 2월 과학원으로부터 사회과학원이 독립하면서 설립됨. 사회과학 관련 도서 출판 전담. '철학연구'(계간), '조선어문'(계간), '조선고고연구'(계간)

조선예술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주체107(2018)년 제5호

자 례

5.1절

김일성 종합대학 력사학부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 나타난 노래
모범적인 위대한 수령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
조국과 민족 소중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며 ····
위대한 시대를 빛내게 해명해주는 사회주의집권가
-가요 〈우리는 전진한다고 말한다〉 에 대하여-
사회주의 조국건설에서 생산혁신의 새로운 전환을 위하
장편의 《설백》 에 표기주는 로동계급의 무결점신 ····
현주는 중단되었어도 그 동맹은 크다 ····
광대리련락사건에 관계주는 공서력원 ····

위대한 령도, 불멸의 업적

자국총고의 장렬지지를 ····
거수선별사업에 기다란 선물을 기념하시여
계속혁명의 전군가 《전사의 길》 ····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반다시며
조국으로생각하고 심장의 충지로간 노래
애국주의노예바 하시며 ····
우리 식 사주속발전에 바치신 위대한 령도
한신모델 만대모심 《생다 만동기》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옹위넘치는 행곡으로···
시대정신정신기념비에 깃든 심원의 심력

북한 출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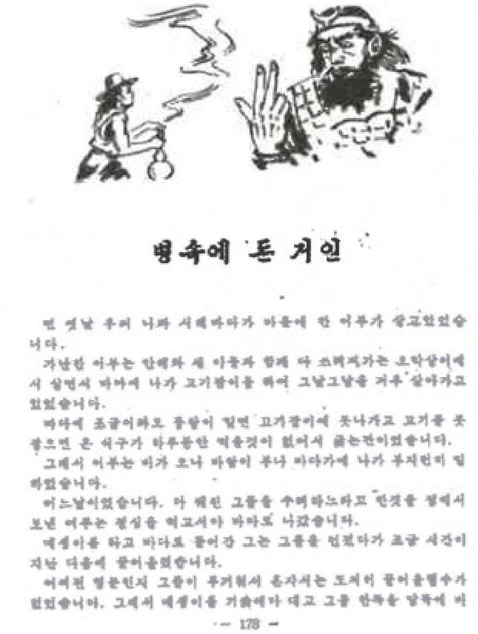
0 금성청년출판사

- 1946년 4월 20일 창립, '청년사'로 창립된 이후 '민주청년사', '민정출판사', '로동청년출판사'(1965년 5월), '사로청출판사'로

- 사상혁명과 관련된 도서 전문 출판사로 초등 및 중등학교 교재와 교원참고 자료 그리고 사회교육용 자료들을 발간. 1961년 12월 28일에 고등교육도서 출판사가 창립될 때까지 대학교재까지 출판하였음.

- '혁명의성지 백두산 밀영', '검쇠이야기', '그림책/피바다', '다시떠나는 발길', '꽃전설집', '만고의 령장', '특수전선', '백악관 비사', '백두의 령장'

조선민화집(1) 고주몽(금성청년출판사 2008)



병속에 든 거인

먼 옛날 우리 나라 서해바다가 마을에 한 어부가 살고있었습니다.

가난한 어부는 안해와 세 아들과 함께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서 살면서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여 그날그날을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조금이라도 풍랑이 일면 고기잡이에 못나가고 고기를 못 잡으면 온 식구가 하루동안 먹을것이 없어서 굶는판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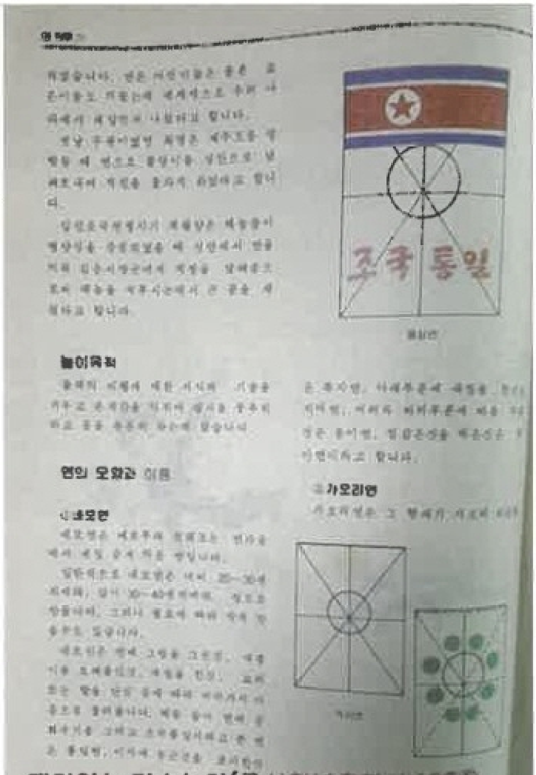
그래서 어부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바다가에 나가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어느날이였습니다. 다 해진 그물을 수리하느라고 한것을 챙겨서 보낸 어부는 점심을 먹고서야 바다로 나갔습니다.

배에 타고 바다로 들어간 그는 그물을 던졌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끌어올렸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물이 무거워서 혼자서는 도저히 끌어올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전이를 기슭에다 대고 그물 한쪽을 말뚝에 비

— 178 —



재미있는 민속놀이(금성청년출판사 1994)

북한 출판 현황

0 문학예술출판사(구 문예출판사, 문학예술종합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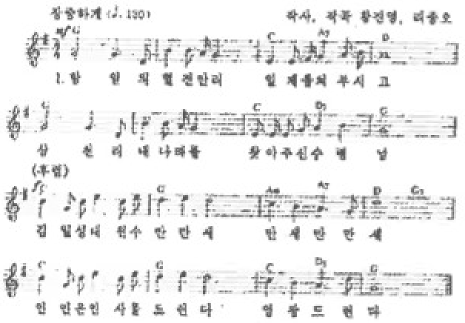
- 1946년 9월 창립 문학예술 관련 전문 출판사, 1961년 3월 문학예술총동맹 결성과 함께 문화예술 관련 출판사인 작가동맹출판사, 국립문예출판사, 조선음악사, 조선미술사 등의 출판사 통합.
- '조선문학', '조선예술'(월간), '청년문학'(월간), '시문학'(계간), '극문학'(계간), '아동문학'(월간), '조선문학예술년감'(연간), '불멸의 력사'(총서), '피바다' 등 각종 문예 관련 선집, '문예상식' 등 단행본.

0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1952년 과학원이 설립됨에 따라 이듬해인 1953년 9월 15일에 '과학원출판사'로 창립되었다가 개칭됨. '경제연구', '력사과학', '문화어학습'(계간), '철학연구', '조선의 민속전통'(시리즈), '조선전사'(시리즈), '현대조선말사전', '문자학개요'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장중하게 (♩. 130)　　작사, 작곡 황진영, 리종오



2. 전화의 불길 헤쳐 미제를 쳐부시고
조국의 존엄을 지켜주신 수령님
(후렴)

3. 이 땅에 자위의 강국을 세우시고
만대의 한길로 이끄시는 수령님
(후렴)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불패성과 강대성을 세계만방에 떨치자!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7(2018)년 제4호
(루계 제846호)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정스러운 그대의 손길
그대의 위업을 위함이라면
나의 심장 나의 목숨
송두리째 다 바치리라

그대가 다시 피워준
나의 청춘을
그대 위해 빛내 하고
닦아다 쓰리실을

그 푸른 한맘이 있고
그 푸른 아버들이 있으니

그렇다
항간도 빛지던 이너들
우리 원수님의 나래 사회주의를
빛내고 찬리고 고백함이
나의 한생 영그의 좋래의 암흙에
아, 사랑하고 또 사랑하리라!

— 유모아 —

4년이나 랑비하다

한 젊은 어머니가 페스탈로찌의 저명한 교육자 방문을 찾아왔다.
《저 언제부터 제 아이에 대한 교육을 시작해야 할가요?》
《아이의 나이가 몇이입니까?》
《네살이예요.》
《어이쿠, 부인!》
방문이 외쳤다.
《여기서 저와 한담하시지 말고 빨리 집에 돌아가십시오. 부인은 이미 4년이나 랑비했습니다.》

조선문학 주체107(2018)년 제4호 (루계 제846호)
편집위원회
문학예술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주체107(2018)년 4월 1일
발행 주체107(2018)년 4월 5일
ㄱ- 861065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8
D P R Korea
ISSN 1727—9437

80

선전화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북한 출판 현황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1952년 과학원이 설립됨에 따라 이듬해인 1953년 9월 15일에 '과학원 출판사'로 창립되었다가 개칭됨.
- '경제연구', '력사과학', '문화어학습'(계간), '철학연구', '조선의 민속전통'(시리즈), '조선전사'(시리즈), '현대조선말사전', '문자학개요'

문학예술사전(상)-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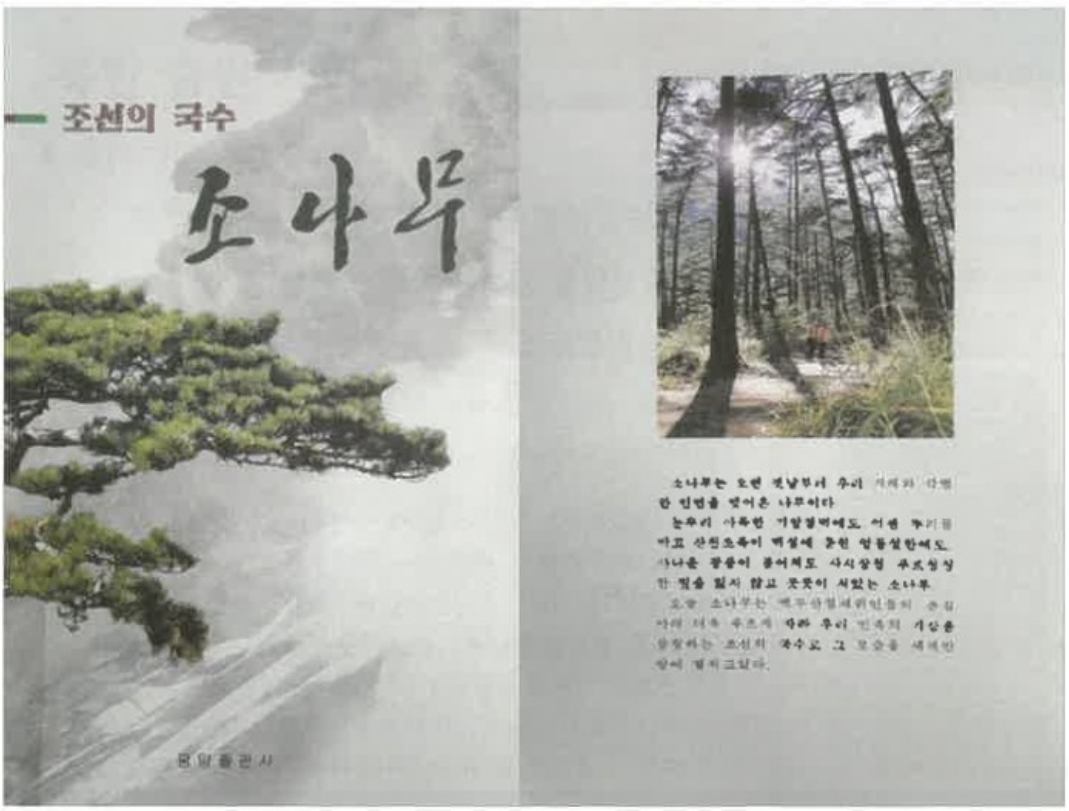
북한 출판 현황

0 평양출판사

- 최근 뜨고 있는 출판사
- '꽃파는 처녀', '민족의 찬란한 태양을 따라', '향도의 태양', '위인의 초상', '우리 민족제일주의론', '김정일 지도자'(시리즈), '김정일장군님과 리인모'

0 외국문종합출판사

- 1949년 12월 4일 '새조선사'란 이름으로 창립한 이후 1956년 5월 외국문출판사로 개칭.
- 해외선전을 목적으로 외국어 번역.출판을 전담.
- 번역부에서 영어.일어.러시아어.중국어.스페인어.불어 번역 출판
- 'Korea Today'(월간), 'D.P.R. of Korea'(월간), 'Foreign Trade of the DPRK'(계간, 칼라화보), '朝鮮の貿易'(계간), '평양타임즈'(영.불어 신문)



북한 출판 현황

0 김일성종합대학교 출판사

- 교육위원회 산하 출판사
-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계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어문'(계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계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경제학'(계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자연과학'(계간)

0 교육도서출판사
- 1945년 11월 창립. - 교과서, 참고서, 교편물
- '조선어', '조선지도첩—'(시리즈), '지리용어사전', '사회주의 교육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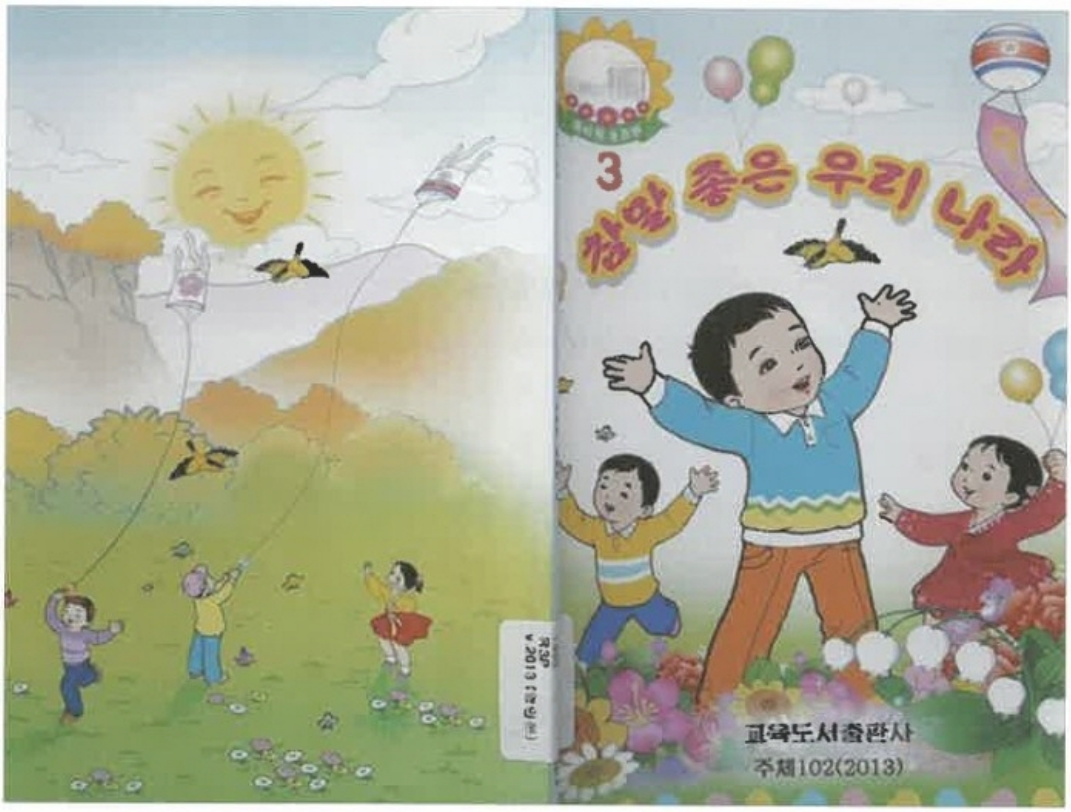
0 예술교육출판사
- 1974년 2월 창립
- '조선화그리기'(시리즈), '조선화가 리석호의 화첩', '꽃·새 그리기', '기타배우기', '시창:인민반용'(시리즈), '조선화실기', '금강산의 노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현지 속사와 습작'

북한 출판 현황

3) 기타 출판사

➢ 학생소년출판사, 과학기술출판사, 과학출판사, 중앙과학기술통보사, 의학과학출판사, 공업출판사, 공업종합출판사, 수산출판사, 체신출판사, 근로단체출판사, 철도출판사, 교통출판사, 건설출판사, 경제출판사, 조국통일사, 농업출판사(구 국립농업출판사), 체육출판사, 무역출판사, 통일문학사, 민족출판사, 조선중앙통신사, 등대사, 근로자사, 근로여성출판사, 오늘의조국사, 조선화보사, 조선인민군출판사, 조선인민군

알고있는지요
?
3l + 4l = ?
6l + 2l = ?
44


3
참 좋은 우리 나라
교육도서출판사
주체102(2013)

북한 출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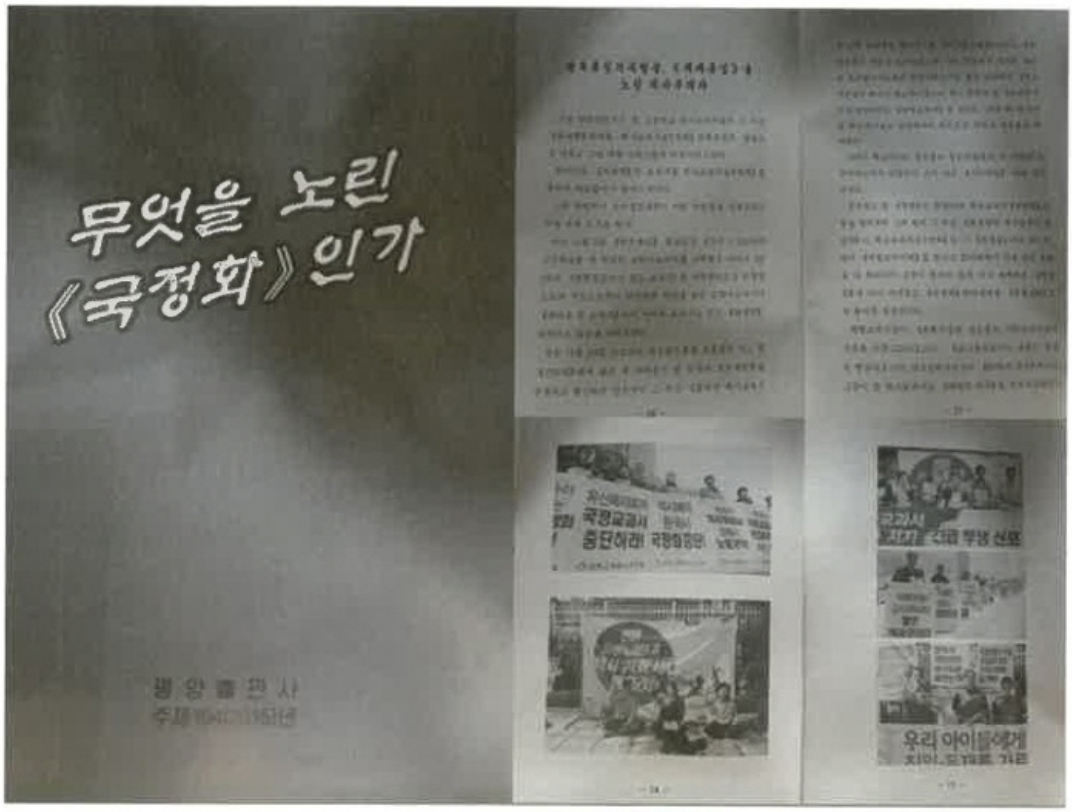
2. 출판보도의 원칙

1) 보도지침으로서 속도전

- 북한에서 출판보도는 사상 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쟁으로 인식.
- 출판보도의 전투적인 기능과 역할을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종자와 속도전.

2) 편집원칙으로서 인민성

-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
- 대중 사상 교양의 목적,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
- 문장과 어투의 중요성을 강조



김정은 시대 출판 트랜드

1. 다색화

0 흑백시대 → 칼라시대

과학환상그림책 싸우는 지혜동산(조선출판물수출입사, 2017)

김정은 시대 출판 트랜드

2. 다양화

0 인민생활제일주의,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관련

인기있는 대동강맥주(평양출판사, 2016)

김정은 시대 출판 트랜드

3. 세계화

조선개관(외국문출판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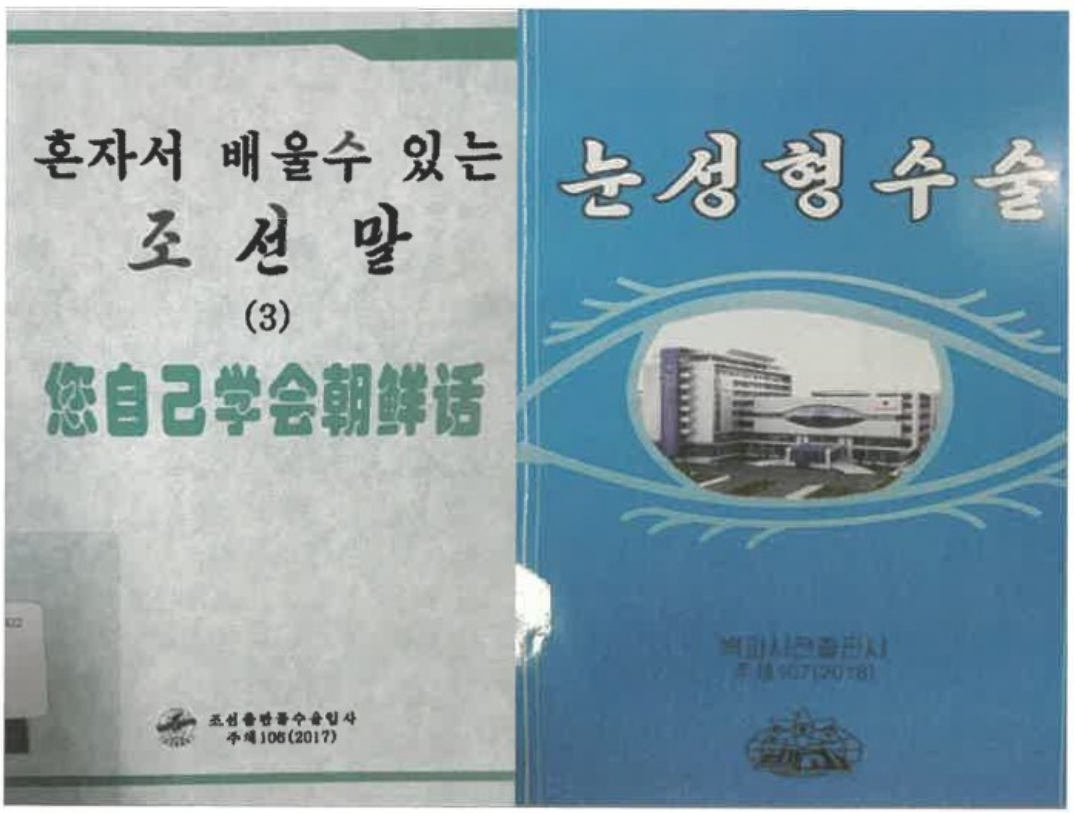
0 세계 명작

0 조선출판물수출입사, 평양출판사

KOREAN FILM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5부-6부)
Multi-Part Film
The Nation and Destiny (Parts 5 - 8)
Yun Sang Min

대하

하나 전자무역회사 Hana Electronics Trading Co.
이동식고성능증폭기
포장주머니


혼자서 배울수 있는
조 선 말
(3)
您自己学会朝鲜话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주체106(2017)
눈성형수술

우리 생활과 평양문화어(평양출판사, 2014)

(보람쉬화)

우리한텐 역시 된장국이 맞는다니까.(요, 지 않습니까)

순 희: 간이 맞아요? 좀 심거운것 같구만요.
옥 주: 동무는 너무 짜게 먹는게 탈이에요.
순 희: 된장국이 참 구수한데요.
옥 주: 우리한텐 역시 된장국이 맞는다니까요.
순 희: 이 물고기튀기를 잡숴보세요. 정말 고소해요.
옥 주: 난 물고기튀기라면 맥을 못 써요.
순 희: 물고긴 나도 좋아하지만 청어만은 물렸어요.

◆ 구수하다－된장, 지짐의 맛이나 냄새와 같이 은근히 좋다.
고소하다－참기름, 깨와생의 맛이나 냄새와 같이 좋다.
물리다－자주 먹어서 더는 먹기 싫어지다.

▷조선어성구 몇가지◁

① 시작은 요란한데 끝은 보잘것없음을 나타낼 때
용두사미(룡대가리에 뱀의 꼬리)
②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을 때
소귀에 경읽기
③ [illegible]
도로리 키재보기
④ [illegible]
목안에 든 [illegible]

(88) 5. 식당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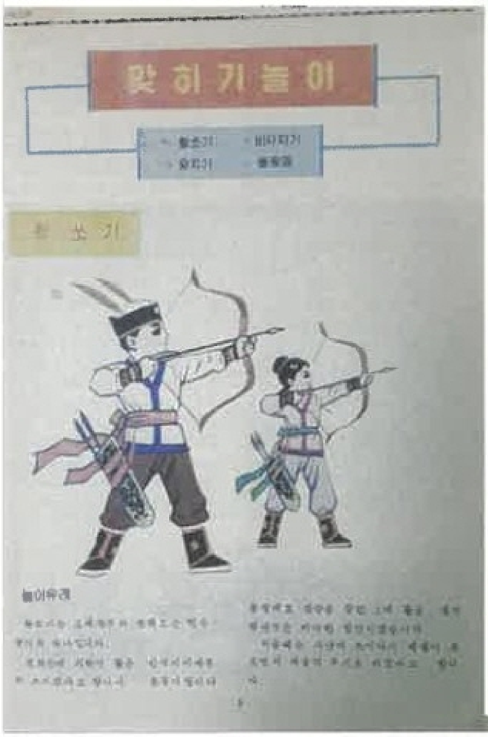
거닐면서

정 심: 공원이 참 아담하지요.
금 혁: 응 그래. 꽃밭이랑 나무랄데가 없구만.
저기 의자에 가서 좀 앉을가?
정 심: 앉는것보다 거니는것이 좋지 않아요?
금 혁: 좋아, 그러지 뭐.
정 심: 저기 분수터에 가볼가요? 아니, 어데 눈을 팔아요!
금 혁: 아무것두 아니야.
정 심: 네 동무 몰라서요? 저기 팔을 끼고 앉아있는 처녀 총각이 부러워서 그러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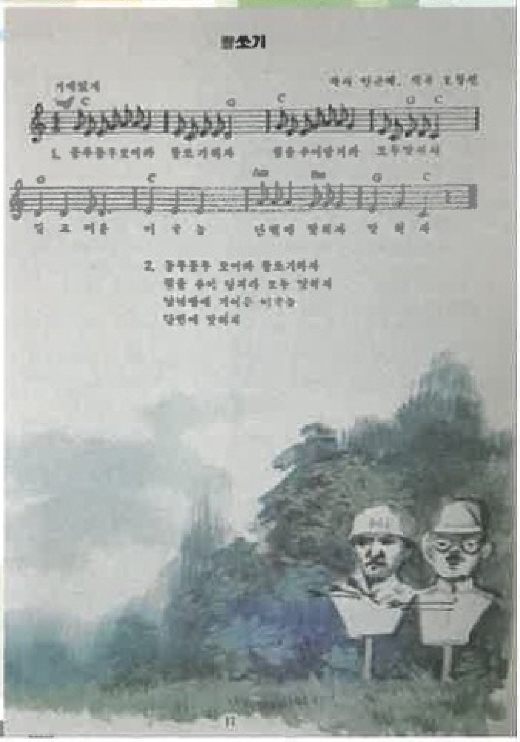
◆ 아담하다－마음에 들게 맞춤하다.
나무랄데가 없다－흠집이나 부족점을 말하거나 탓할것이 없다.
장의자－긴 의자.
하긴 그래－상대방의 말을 긍정하여 하는 말.
눈을 팔다－보아야 할것을 보지 않고 다른것을 보다.
팔을 끼다－서로 팔과 팔을 걸다.
○ …는것보다 …는것이 좋지 않아요?
ㄱ: 앞에까지 나갈게 있어? 여기서 놀지 뭐.
ㄴ: 묻는것보다 보는것이 좋지 않아요?

6. 공원에서 (93)

재미있는 민속놀이(금성청년출판사, 1994)



어린이 민속놀이(예술교육출판사, 1997)



내가 이제 자면 꿈을 꾸고
내가 이제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지혜키우기 20

삼색제비꽃
황 령 아
삼색제비꽃
황 령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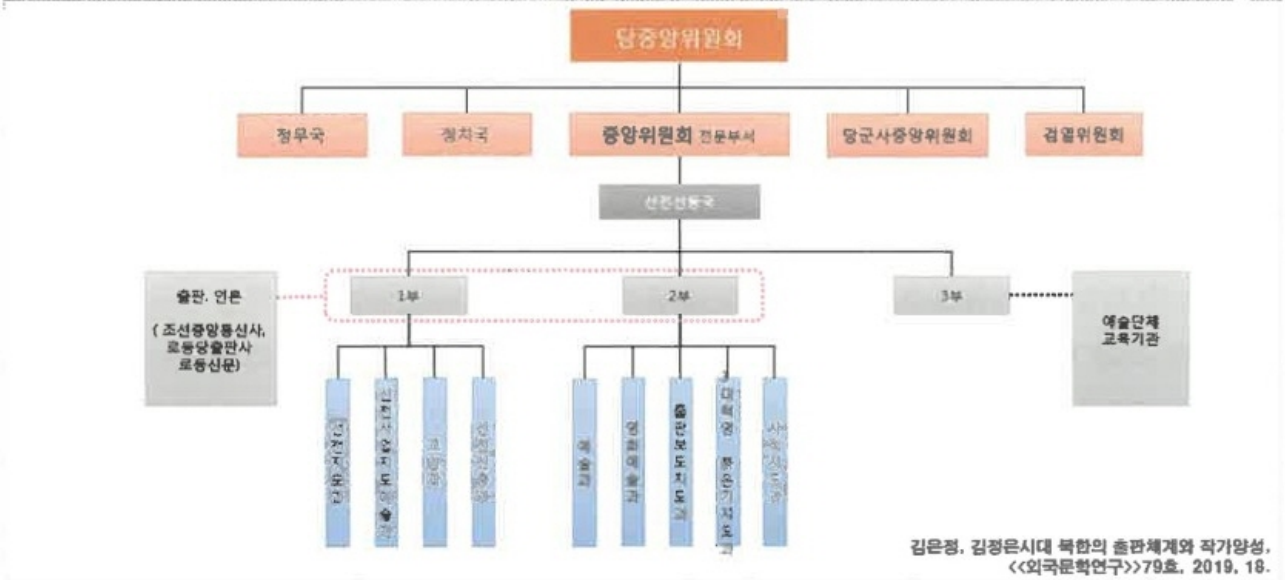
[발제 2] 김은정 (한국외대 교수) – 김정은 시대 북한의 출판체계

김정은 시대

북한의 출판체계

김은정 (한국외대)

출판.언론 조직체계



김은정, 김정은시대 북한의 출판체계와 작가양성,
<<외국문학연구>>79호, 2019. 18.

북한의 출판법 (1/5)

- 언론.출판 자유에 대한 법적 보장은 북한 헌법 제67조에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 헌법은 1946년 3월 23일 방송연설에서 발표한 20개조 정강의 3항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20개조 정강 3항의 내용은 "전체 인민에게 언론, 출판, 집회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 할 것. 민주주의적 정당, 로동 조합, 농민조합 기타 민주주의적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 할 것."(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2, 125)이다.

북한의 출판법 (2/5)

- 북한은 검열을 통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강제하고 있다.
-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사상의 자유를 진보적인 사상을 누르고 부르주아 반동사상을 퍼뜨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으로 판단한 데서 기인한다.
- "출판물, 통신, 방송을 비롯한 선전수단과 교육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진보적사상의 자유로운 발전이란 있을수 없다."라고 비판하면서 "로동계급의 당은 각급 당조직을 통하여 사상사업을 직접 조직진행하는것과 함께 출판보도,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상문화부문들과 국가기관, 근로단체, 교육기관들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따라 대중을 교양하는 사업을 잘해 나가도록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김정일, 김정일 선집 14 , 60)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출판법 (3/5)

- 북한은 이 교시에 따라 출판물의 검열은 물론 출판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한다.
- 출판 사업의 지도통제를 위해 북한은 출판법 47조는 "출판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출판지도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하며, 출판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판물을 통하여 기밀이 새여 나가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 풍조가 퍼지지 않도록 인쇄 설비를 등록하고 그 이용을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50조는 "이 법을 어기고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총람 2003~2010, 940)

북한의 출판법 (4/5)

- 언론출판 사업은 당원과 인민대중들의 사상교양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검열을 받게 된다.
- 내각직속 기관인 출판지도 총국은 북한 내의 모든 발간물의 검열을 지도한다.
- 핵심부서인 출판 검열국은 7개 부서로 나뉜다. 검열부서는 다음과 같다.

부서	업무
1부	김일성.김정일 노작 출판물
2부	번역출판물
3부	과학기술교육부문 출판물
4부	경제사회부문 출판물
5부	문화예술관련 출판물
6부	대외출판 선전물
7부	특수부문 출판물

(북한연감, 1999. 9, 640-641)

북한의 출판법 (5/5)

- 북한 출판보도 검열은 완성된 작품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작가가 출판할 때도 반드시 사전 검열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창작기획 단계부터 시작된다.
- 작가의 글이 출판되기까지는 작품 계획서, 작품의 주제, 당의 비준, 합평회(검토, 비판), 검열, 재검열 등의 절차를 통한 통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검열은 해당 출판물 관리하는 관련 기관에서 수행한다.
- 문예물인 경우에는 출판 과정에 대한 통제, 감독은 김정일의 교시에 의해 조선문학예술총동맹 , 작품국가심의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동맹에서 담당하고 있다. 검열 과정은 크게 작품의 회부과정, 작품의 검열 과정, 작품의 출판 및 공연과정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창작 지침과 계획에 따르도록 통제 받는다.

검열 기준

1)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에 철저히 입각하고 있는가.
2) 국가 및 군사비밀을 노출시킨 부분이 없는가.
3) 사회제도의 부정적인 측명이 드러난 묘사가 있는가.
4) 자본주의적 사상 요소가 나타난 부분이 없는가.
5) 인민대중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교양에 도움이 되는가.
6) 전투성·혁명성·계급성 등이 충분히 발양되었는가.
7) 예술적으로 지나치게 졸렬하지 않는가.
8) 어휘 및 어휘 표현이 정확한가.

출간 및 검열 과정 (1/3)

출간 및 검열 과정 (2/3)

• 김정일 시대의 김정일의 검열은 천세봉의 수기에서도 확인된다.

>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 작품의 줄거리에 대한 제의서가 올라가고 서정시, 서사시들의 원고가 올라가고 3천매, 4천매씩되는 장편소설들의 원고가 올라갔다.(……)
>
> 내가 조잡하게 쓴 3천여매의 초고를 밤을 지새우시며 읽으시고는 나의 눈을 틔워주시는 수정 방향을 말씀해 주셨고 심의본으로 출판되어 나왔을 때에도 한번 읽으시고 고귀한 의견을 주시었다.
>
>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아 완성본으로 찍을 때 또다시 교정지에 붉은 줄을 그어 가시며 읽어주시였다.(김은정, 사적기록성과 미적거리의 길항, 149.)

출간 및 검열 과정 (3/3)

- 이처럼 자체 검열과 함께 출판지도총국의 검열과 노동당(1호본)의 검열을 받는 것은 사상통제를 통해 당의 사상 외의 것을 차단하여 인민을 교양하고, 출판보도부문 일꾼들은 출판보도물의 정치사상적 수준과 질을 높이려는 것이 북한 검열의 목적이다.
- 출판법 27조에는 '교열과정에서 제기된 출판물 원고의 수정은 집필자가 하며, 집필자의 의도를 변경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자도 수정 보충할 수 있다' (북한법령집2015, 939)고 규정되어 있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가가 사망한 경우는 당의 의도나 관점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수정하거나 보충하지 않는다.
- 이런 경우는 당대에 맞게 맞춤법만을 교정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출판사와 인쇄소 및 보급소 현황

- 2020년 현재 북한에는 29개의 출판사와 강서인쇄분공장, 경림 영예군인 인쇄공장, 교육도서 인쇄공장, 동대원 영예군인 인쇄공장, 동메 영예군인 인쇄공장, 모란봉 인쇄공장, 7월22일 인 인쇄공장, 평양고등교육 도서 인쇄공장, 평양 영예군인 교육도서 인쇄공장 등 10개의 인쇄공장, 평양, 남포, 개성, 나선, 평안남도, 평안북도, 한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 등 14개의 출판물 보급소와 산하 22개의 지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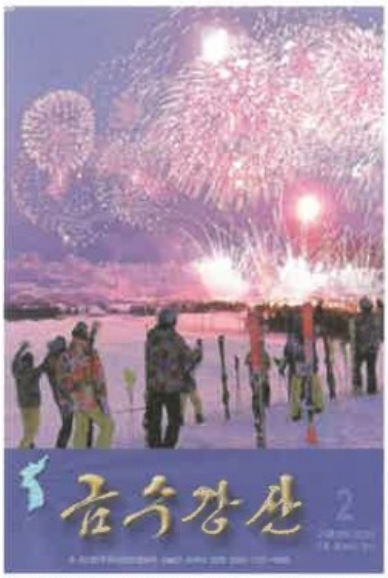
북한출판사와 인쇄소 및 보급소 현황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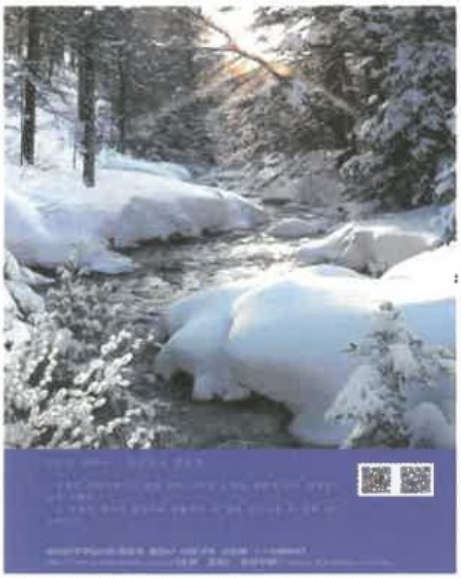
번호	출판사	사장 겸 주필
1	금성출판사	오혜선
2	외국문학출판사	최경국
3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철호 (출판지도국 처장: 리정윤)
4	조선사회민주당출판사	김석준
5	청년동맹출판사	우종학
6	건설출판사	리창규
7	경제출판사	리수철
8	고등교육도서출판사	남창덕
9	공업출판사	김승훈
10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지유건
11	교육도서출판사	현광철
12	근로단체출판사	공선일
13	농업출판사	한용택
14	도서번역출판사	김리화

북한출판사와 인쇄소 및 보급소 현황 (2/2)

번호	출판사	사장 겸 주필
15	문학예술출판사	박영
16	사회과학출판사	서광웅
17	여성출판사	정명희
18	예술교육출판사	
19	외국문도서출판사	허범일
20	2.16예술교육출판사	
21	조선미술출판사	
22	철도출판사	김경수
23	체육출판사	리방연
24	평양출판사	박진식
25	외국문잡지사	한봉찬
26	조선문예사	최환주
27	중앙예술선동사	김용욱
28	혁명역사 사진문헌사	리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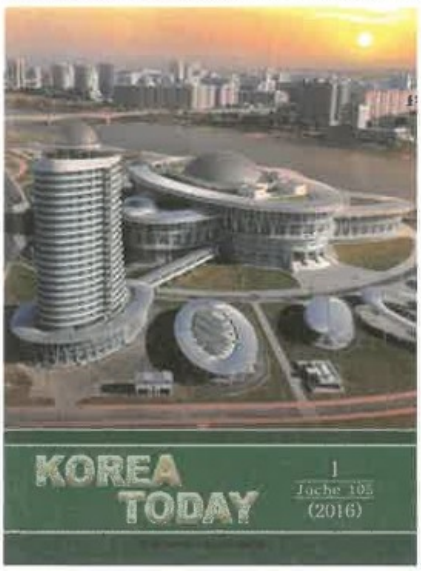
북한의 출판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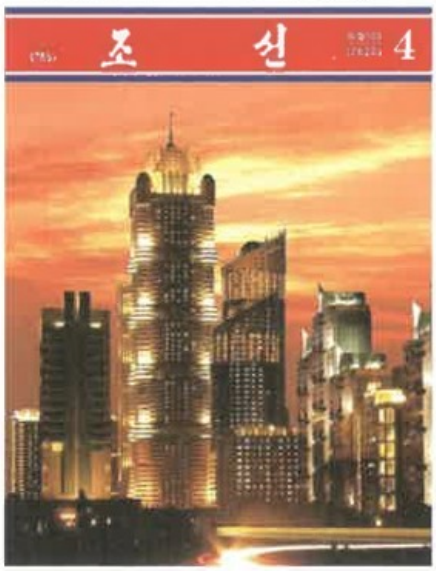




「북•BOOK과 함께」 남북 문화교류와 출판 산업 14

북한의 출판물 (2/3)





「북•BOOK과 함께」 남북 문화교류와 출판 산업 15

북한의 출판물 (3/3)

위대한 김일성 – 김정일주의 만세!

로동신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신년사

김정은

출판의 과학화와 기술화 (1/4)

1. 자외선인쇄설비의 국산화

-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정평인쇄소 새 기술개발실의기술자들에 의해 구현된 자외선 인쇄경화장치와 채인쇄 장치, 양사장치로 구성되어있는 새로운 자외선인쇄공정은 인쇄물의 질적 특성 지표들을 외국산 설비들에 뒤지지 않게 완비되어 있으며, 에네르기절약형, 노력절약형, 환경 보호형으로 개발 완성된 새로운 인쇄공정의 도입으로 상표인쇄물의 질과 생산성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한다.

출판의 과학화와 기술화 (2/4)

2. 제책 열풀의 국산화

- 북한은 인쇄공업부문에서는 제책 공정에 많은 경우 수용성 풀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풀의 건조속도가 느려 출판물생산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 2019년 8월부터는 수입에 의존하던 제책용 열풀을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 인쇄공학부의 과학자들이 북한의 원료와 기술로 해결, 출판물의 질 개선.

출판의 과학화와 기술화 (3/4)

3. 2020년 5월23일 평양출판인쇄대학 첨단기술교류소의 과학자들에 의해 특수인쇄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열전사 테이프와 그 제작기술을 개발.

- 기존에는 케이블을 생산하는 단위들에서는 전용자호인쇄기를 이용하여 특수인쇄를 해 왔음.
- 수입의존에서 벗어남.

출판의 과학화와 기술화 (4/4)

3. 2020년 6월 평양출판인쇄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에 의해 인쇄 기술편성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지능생산 체계를 구축.

   • 출판학부, 기계공학부를 비롯한 여러 학부에서도 교육도서인쇄공장의 지능생산 체계를 완비하고 여러 공장, 기업소의 인쇄설비 현대화함.

북한의 출판물들 (동영상)

외국문화출판사 (동영상)

「북•BOOK과 함께」 - 남북 문화교류와 출판 산업 22

[발제 3] 임채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사업팀장) – 출판분야의 남북교류 현황

출판분야의 남북교류 현황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임채선

목 차

Ⅰ. 출판분야 남북교류 연혁
1. 1957년 이후 해금 조치
2. 1988년 7.7선언 이후

Ⅱ. 출판분야 남북교류 현황
1. 출판분야 남북교류 형태
2. 출판분야 남북교류 저작권 쟁점
3. 출판분야 남북 저작권 법률 분쟁 사례
4. 남북출판 교류 현황

Ⅲ. 출판분야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1. 출판분야 남북교류의 한계
2. 남북 저작권교류 활성화를 위한 절차와 방법

Ⅳ. 결론

I.출판분야 남북교류 연혁

※출판이란?

▷ 출판이란 ? (저작권위원회, 2009)
▷ 광의의 출판 : 방법 및 저작물의 이용행위 또는 그 재료의 여하를 불문하고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모든 행위
저작물을 녹음하여 배포하는 것, 조각을 복제하거나 주조하여 배포하는 행위 등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이든지 또는 어떠한 재료이든지 간에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행위는 출판행위로 간주한다.
▷ 협의의 출판 :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서 복제·배포하는 것을 의미

1. 1957년 이후 해금조치(김성수, 2019)

▷ 1945년 해방과 1948년 남북 정부 수립 이후, 남북 정부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월북/월남'한 '정치적,이념적 타자'인 작가와 예술가를 '빨갱이/부르주아 반동'으로 호명한 후 금지·금제, 검열, 숙청, 정전 누락·삭제 작업 수행

▷ 1951년 공보처에서 '월북작가 작품 판매 및 문헌활동 금지 방침' 월북작가를 6·25사변 전 월북자 A급, 사변 이후 월북자 B급, 사변 중 납치, 행불자로 내용 검토하여 C급'으로 분류, 제재시작하여 1957년 월북작가 작품의 전면적인 출판 및 판매 금지가 시행,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근거하여 반역자 취급, 연좌죄까지 적용

I.출판분야 남북교류 연혁

1. 1957년 이후 해금조치(이봉범, 2017)

▷ 1978년 3.13 조치, 국가권력이 공식적으로 해금문제를 거론(국토통일원)
-해당 문인의 월북 이전의 사상성이 없는 작품으로서 근대문학사에 기여한 바가 현저한 작품
-문학사연구의 목적에 국한하되 그 내용이 반공법,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에 한정
-김일성저작선집 분석, 북한관련 연구과제의 발주, 북한(문학)연구를 대결보다는 통일대상의 차원으로 제고

▷ 1983년 2.23 한국문인협회, '납북작가대책위원회' 발족
-정지용, 김기림작품 출판 허용 건의
-이태준, 박태원, 백석, 조운 작품에 대한 정부와 공동조사연구 제안
-1987년 8.8 문화예술자율화대책에 맞춰 '납북· 월북 작가작품 해금선정위원회'로 확대
-1987년 8.12 76명 해금을 위한 국회영단 제출, 남북문화예술인(이광수, 김진섭, 김동환, 김억, 박영희), 월북작가37명
-1987년 10.19 재북, 월북 문인의 전면 해금 논의와 상업적 출판 허용
-판매금지도서 재심사, 금서 650종 가운데 431종 출판 허용
※1987년 6·29선언의 세부실천계획 일환
-문화예술분야대책의 출판분야 조치, 즉 출판사등록의 자유화, 납본필증의 즉시교부, 판매금지도서의 재심과 대폭해제
-홍명희, 임꺽정 등 21종 심사보류, 루쉰, 바진, 마오둔, 라오서 등 공산권작가도서 17종 심사보류

I.출판분야 남북교류 연혁

2. 1988년 7.7선언 이후

▷ 1988년 7· 7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 선언
-북한에 대한 인식전환, 대결의 상대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기조 변환
-남·월북 작가의 해금조치 단행, 중국현대문학 출간
-백석, 이태준, 박태원, 김남천 작품 등이 납본필증 없이 출판 유통
▷ 1989년 2.29 홍명희, 이기영, 한설야, 조영출, 백인준 작품에 대한 복권 및 상업적 출판

▷ 7· 7 선언 이후에도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로 인해 학계에서만 복권되는 의미
-근대문화사의 중요한 축인 카프와 조선문학가 동맹출신은 여전히 금기 및 무관심
▷ 남북한 대표적인 정전인 '현대문학선집'류 사화집, 북한의 정전화 결과물인 '현대조선문학선집'수록 작품을 전수조사
-남북한 대표적 문학선집을 비교한 결과 남북공통의 근대 대표 작가는 전체600명 중 불과 9명(남원진, 2016)

▷ 해금 조치 이후 30여년
-근대 문학, 예술사의 3,4할 분량의 지워진 존재를 복원, 근현대 문학, 예술사를 재구성
-탈냉전,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통합과 포용의 문화사로 의제 전환 요구(김성수, 2019)

5

II. 출판분야 남북교류 현황

1. 출판분야 남북교류 형태(김정숙, 2015)

▷ 2000년 6·15선언 이후 활발한 남북민간교류기간에 방북한 학자나 여행자들이 개별적으로 출판물 구입해서 반입
-정치 사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중국, 일본 등 제3국에서 구입해서 반입
▷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 출판물 반입하여 국가기관이나 학술목적의 기관에 배포
▷ 남북한 당국이 상호협조로 공동출판, 2005년부터 시작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 민간차원에서 북한 당국과 협의하여 수입(저작권 계약유무에 따라 다수의 저작권 분쟁 유발)
▷ 남북한 각각의 출판물에 남북한 상호 작품을 공동 게재하여 배포
-평양출판사 2005년 3월25일 <통일문학>1호 (누계64호)에 남한의 신경림 시인의 시와 정도상 소설 게재
-남한출판사가 <조선향토대백과>에 북한 사학자 원고 청탁하여 출판

※ 소설가 황석영 방북시 저작권합의로 북에서 '장길산'출간
장기수 출신 최선용, 2006년 <해 뜨면 돌아가리라><통일열차가 곧 출발합니다><천기를 움직이는 사람들>
시집<우주 바깥에서 즘발만한 지구를 보다> 4권 출간, 평양출판사와 저작권 계약(한겨레신문, 2006.8.14일자)

북한의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년 남한 단편소설 10편을 수록한 책 <수난자의 목소리> 출판
윤정모<손떠퀴>, 김하기<벌집사람들>, 이남희<목두기>, 김영현<달맞이꽃>, 손준익<살구나무이야기>
이청준<흰 철쭉>, 위기철<죽음의 굿판>(뉴스파워, 2005년 8월 18일자)

6

Ⅱ. 출판분야 남북교류 현황

2. 출판분야 남북교류 저작권 쟁점

▷ 1990년 이후 남한 출판사들이 북한 저작물을 중국, 일본을 통해 반입하였으나 대부분 저작권 합의 없는 탈법, 불법 형태 (신현옥, 2009)
-저작권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불법 사용을 인지하고 언제든 계약만 맺을 수 있다면 저작권료를 지불할 의사
-남북의 특수한 관계를 악용해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고 이득을 취하면서 저작권료를 지불한 의사가 없는 유형
-저작권을 위임 받은 단체인 양 행세하는 중국, 일본 등 제3국의 브로커들과 사기계약을 인지하지 못하는 유형
-통일운동 차원에서 북한을 알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불법임을 알면서도 저작물 출판하는 유형

▷ 남북 저작권 쟁점(김기헌, 이정철 2018)_199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다수의 법률분쟁 발생
-법률적 지위를 갖는 남북합의서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에서 판례로서 기준 확립
-헌법 제3조에 의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여, 북한의 저작권도 한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음
-월북 작가들의 저작재산권도 생존 기간은 물론 사후에도 50년간 보호되며, 상속인에게 상속됨
-북한 정권수립 이후, 북한 법에 따라 설립된 북한 기관, 단체 등의 저작권도 한국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됨

Ⅱ. 출판분야 남북교류 현황

3.출판분야 남북 저작권 법률 분쟁 사례(최경수, 2015)

▷북한 저작물을 남한에서 출판한 경우 저작권 권리관계로 주요 분쟁 발생
-중개자들과 체결한 저작권 계약의 유・무효 여부
-상속자 확인 여부
-정당한 법률적 요건을 갖춘 저작권 계약인지 여부
-노래가사, 영화 등 공의의 출판권에 관한 사항 포함

서울지방법원, 1989. 7.26, 89카13962 결정(두만강 사건)
대법원 1990.9.28. 89누6396 판결, 두만강 사건 판결, 출판금지처분무효확인
서울지방법원, 1993.11.9. 93카합1501 결정(이조실록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4.2.14. 93카합2009 판결(이조실록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9.12. 96노3819 판결(이조실록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7.5.9. 96가합48324 판결(고향조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2.9. 96나52092 판결(고려사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0.12. 99라130 결정(불가사리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11.5. 99가합13695 판결(은달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3.29. 2004나14033 판결(동의보감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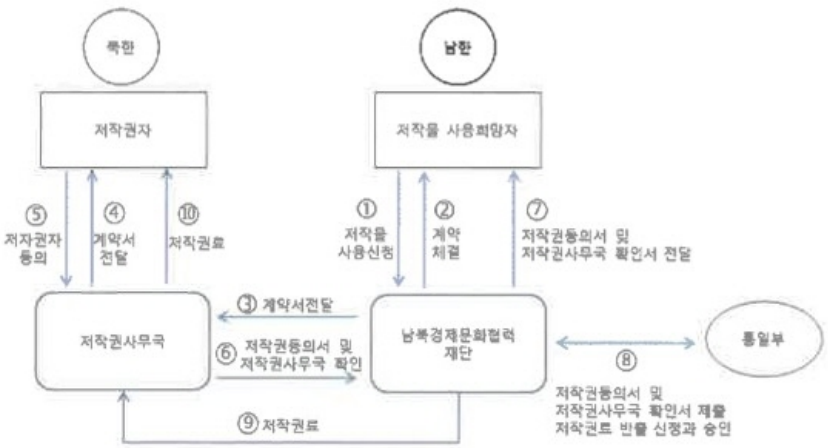
Ⅱ. 출판분야 남북교류 현황

4. 남북출판 교류 현황(김기헌, 이정철 2018)

▷ 북한은 2003년 베른협약에 가입하고, 2004년 6월 내각산하에 저작권사무국 신설
▷ 북한 저작권법은 저작권사무국에 저작재산권의 해외 양도 승인권,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권, 저작권사업의 감독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음
▷ 북한 저작권사무국은 2005년 3월 21일 남한의 민간단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통지서 발송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저작권사무국은 저작권자의 승인과 저작권사무국의 공증확인서가 없는 한 남측에서의 우리 저작권에 대한 리용은 저작권 침해로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 2005년 4월 19일 통일부는 안내문 형태로 "남북 저작권 교류 절차에 북측 저작권사무국 통지사항 반영" 문서 공지
▷ 2005년 12월 31일 북한의 저작권사무국, 민족화해협의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합의서 작성
-"북측 저작물의 남측에서의 사용에 대한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진행하기로"합의 하고,
-북한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사전협상권, 즉 "북측 저작물의 사용을 원하는 남측의 사용희망자와 민족화해협의회와 저자권사무국을 대리하여 포괄적인 사전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부여
▷ 통일부는 경문협을 2006년 3월14일 '북측 저작권 대리, 중개 사업'에 대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 경문협은 북한 저작권자의 대리권 보유
-<림꺽정>,<황진이>, <조선고전문학선집>1~100권, <고려사(한글번역본)>, 리기영 외 9인의 월북· 재북 작가의 인세물
-북한 조선사진가등맹의 저작권을 보유한 사진 일체, 최승희 사진 9컷, 등영상 2편,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 방영 영상물 일체
▷ 2006-2017년, 한국의 출판사, 방송사가 경문협 저작물 사용 건수 약 860건, 어문저작물 685건, 영상물 130건

Ⅱ. 출판분야 남북교류 현황

<그림 1>한국에서 북한 저작물 이용 절차와 과정



자료 : 김기헌, 이정철 2017

Ⅱ. 출판분야 남북교류 현황

<표 1>2006~2017년 북한 저작물 사용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어문저작물	30	17	16	17	31	100	89	97	50	75	74	89	685
사진저작물	3	6	3	1	4	4	3	1	2	5	5	6	43
음악저작물	1	-	-	-	-	-	-	-	-	-	-	-	2
영상저작물	1	6	6	10	9	10	13	13	15	16	15	16	130
합계	35	30	25	28	44	114	105	113	67	96	94	111	860

자료 : 김기헌, 이정철 2017

Ⅱ. 출판분야 남북교류 현황

<표 2>사회문화 협력사업 통일부 승인사업 중 출판관련 분야 현황(2015년 현재)

사업자	사업대상자	사업 내용	승인일
(사)평화문제연구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북한<조선향토대백과>편찬, 출판	2003.5.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앙과학기술통보사	백두산자연종서개발, 과학기술정보 DBGHK	2003.11.5
㈜영진닷컴	인민대학습당	도서 공동번역 및 출판	2003.11.1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북학과학원, 식물자원연구중심	남북한 식물공동조사 및 영문판 <한반도 종합식물지>작성	2004.4.2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앙과학기술통보사	과학기술대백과 사전 편찬 등	2004.9.16
(사)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회	민화협	<겨레말큰사전>공동편찬	2004.10.25
한국과학진흥재단	아태위원회 산하 은방울사	<남북학술용어집> 공동연구개발사업	2005.7.11
광토출판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북한역사유물유적총람> 발간	2005.7.15
월간 <민족21>	북한 통일신보사	남북공동사진전 개최 및 공동단행본 발간	2006.6.8
6.15민족문학인 남측협회	6.15민족문학인 북측협회	6.15민족문학인협회 기관지 <통일문학>창간 및 발간	2008.1.18 2008.11.11

자료 : 통일백서, 통일부, 2015

Ⅲ. 출판분야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1. 출판분야 남북교류의 한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정치 · 군사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반목을 거듭하고 있음
▷출판분야도 유사한 영향을 받고 있으나 차별점은 2005년도 민간기관간의 합의서로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됨
▷사업의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 송금은 대북제재로 인해 송금 불가
▷2005년 합의는 북한저작물의 남한내 이용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남한저작물의 북한 사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2005년 합의는 민간기관간의 합의를 정부기관이 인정한 형태로 정부당국자간 위원회 등의 새로운 합의가 요구됨
- 이와 더불어 저자권자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사안이 합의되지 않음
▷역사물, 일제강점기 작가작품, 고전문헌번역물, 어린이작품 등이 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가짐.
-좀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필요함(순수 미술, 음악 등 광의의 출판분야로 확대)

13

Ⅲ. 출판분야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2. 출판분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절차와 방법

▷출판교류는 남북문화교류의 큰 흐름 속에 존재
▷문화교류 제도화 및 문화교류 기본계획이 요구됨
▷2007년 11월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구성, '남북사회문화협정' 체결 필요성
-위원회산하에 남북 저작권 교류위원회(분과위원회), '남북저작권 교류합의서' 세부 사항 합의
▷남북저작권관리를 위한 공동기구 설치 및 역할 부여
-저작권은 사적 소유권임을 인정하여 한국 저작권법은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어 적절성 여부 논의
▷남한의 저작물의 북한에서 이용에 관한 구체적 논의

▷서독정부는 '접근을 통한 변화"를 일관되게 추진, 경제적 실익보다는 긴장완화와 등질성 유지 노력(이해정, 2013)
-1970년 우편협정, 1971년 베를린협정, 1972년 동행협정, 1972년 기본조약, 1974년 체육, 보건협정
1986년 문화협정, 1986년 도시간 자매결연협정, 1987년 방송협정 및 과학, 기술협정 등 각종 사회문화 교류 협정체결
-1986년 문화협정시 문화의 개념을 연극, 문학, 음악, 미술 분야를 포함한 교육, 학문, 출판, 도서관, 역사적인 문서, 대중매체, 스포츠, 청소년 분야까지 확대
-1986년 4월 동서독간 자매결연 협정 이후,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까지 동서독 도시간 자매결연 73건 성사

14

Ⅳ. 결론

▷협의의 남북한 출판교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대리 중개
▷광의의 출판분야로 교류확대 필요(영화, 회화, 조각, 미술, 음악 등)
-일반인 접근성 확대 필요(북한자료센터 운영 한계)
▷남북한 시민의 문화적 욕구가 출판교류확대의 필요조건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남북출판교류인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
-온, 오프라인 사전편찬 및 부대사업 확대
▷저작권사업은 대북제재국면에서도 지속가능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사업 활성화
-출판기념회, 낭독회, 영화제, 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일부이므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권 사업으로 확대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등

▷'겨레말큰사전'사업의 시작은 문익환목사의 방북 및 제안으로 시발됨
-대북제재는 절차적으로 해제되기 어려운 법률, 행정적 구조이므로 담대한 발걸음이 필요
-역사문화, 민족, 환경, 청소년 분야에서 문화적 요소와 인도적 요소가 포함된 소규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일본문화 전면개방시 과잉 우려는 기우에 그쳤으며, 문화는 개방적 태도가 수용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역사적 교훈 인식

참고 문헌

김기헌, 이정철 (2017), 남북 교류의 제도화와 저자권 협력의 역할_역사와 전망, 현대북한연구21,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수(2019), 재 · 월북 작가 '해금' 조치(1988)의 연구사·문화사적 의미
김정숙(2015), 남북한 출판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제42권 제1호 통권 제73호, 한국출판학회
전영선(2006), 남북 저작권 교류의 현황과 전망_출판물을 중심으로
(2018), 새로운 남북관계와 남북 문화교류
박영정외(2016),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 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봉범(2017), 냉전과 월북, (납)월북 의제의 문화정치
이부형(2018), 남북 사회문화협력의 비전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이재용(2015), 북한 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고려대석사학위논문
이해정(2013), 남북간 사회문화협력의 특징과 과제,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한지영외(2019), 저작권 기반 남북 문화 예술 교류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 저작권정책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일부, 통일백서, 2015, 2018, 2019, 2020

[발제 4] 최순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 – 남북교류와 파주시의 역할[1]

Ⅰ. 들어가며

프랫(M. L. Pratt)은 '접촉지대'를 "고도로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의 맥락에서, 문화들이 서로 만나고 충돌하고 싸우는 사회적 공간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즉, 접촉지대가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주체(개인 및 공동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역동하는 사회적 공간이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물리적 만남이 사람 간 소통을 전제로 한다는 맥락에서 남북교류 역시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 상호작용하는 곳이자, 그 결과로 남북한 사람 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남북관계를 귀납적으로 이론화한 연구들은 남북한 교류협력이 '사람의 통합'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양문수 외(2013)는 개성공단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남한 기업 대표자 및 관리자가 북한 직원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못하는 특수 노사관계를 갖고 있었고, 개인 간 접촉이 거의 불가능했으며,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그 경직성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상호 적대감이 완화되거나 서로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등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3] 이우영(2014)은 대북 인도적 지원 과정 과정에서 남한 정부 및 지자체는 공여자로, 북한주민은 수혜자로 만나게 되는데, 남한 사람들에게서는 우월감, 동정심 등이 생기고, 북한 사람들은 경계심과 고마움 등이 공존하게 된다고 밝혔다.[4] 성기영 외(2018)는 남북한 교류협력이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 대북인도적 지원 등의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 행동양식의 체득, 남한에 대한 인식 변화, 관계 변화, 감정 표현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5]

이러한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남북한 교류협력은 사회의 통합, 사람의 통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법과 제도의 구축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반면, 사람의 통일을 준비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긴 시간과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남북한 교류협력은 남북한의 내외부적 상황과 사건(event)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정치

1 본 고는 학술회의 발표를 위해 작성한 연구노트 수준의 글입니다.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이우영 외, 『분단된 마음잇기』, (서울: 사회평론, 2016), p. 16에서 재인용.

3 양문수·이우영·윤철기,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남한 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59호(2013), pp. 147~148.

4 이우영,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마음의 통합,"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2014), pp. 44~84.

5 성기영 외,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8).

적 부침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교류협력 사업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기도 한다.

남북한 교류협력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은 이전의 남북 공동선언문과 다르게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의 행위자로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를 예로 들면, 대북제재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최근 몇 년 동안에도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제한적으로나마 추진해왔다. 이는 대북제재 하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이 있다.

이에 본고는 남북교류 환경과 지자체 남북교류 사례를 분석하여, 경기도 및 파주시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남북교류를 둘러싼 법/제도와 지금까지의 남북 교류 전개를 정리하고, 남북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 사례를 경기도, 강원도, 서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4장에서는 남북 교류에 있어 파주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파주시의 특성과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하면서 5장을 통해 글을 맺고자 한다.

II. 남북 교류의 환경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의 정의는 "남한과 북한의 왕래 접촉 교역 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다. 교역과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교류협력법 2조의 정의에서 교역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 반입"이다. 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이다.

1990년 8월 1일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은 2014년 3월까지 18차례 개정되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1994년과 1998년 1 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규제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변화되었다. 또한 금강산 관광이 실행되고, 개성공단사업이 진행되면서 보완되었다. 나아가 2005년 남북교역이 증대하면서 12조 2항,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개정되었다. 그러나 2009년 1월 개정에서 12조 1항 교역의 주체 조항(지방자치제 포함)을 삭제하여 지자체 등이 남북 교류협력의 독자적 주체로 나서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2020년 8월 27일에 통일부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개

정안 내용 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주체가 되어 직접 교류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한 '제17조 3항(경제협력사업)'이 신설되어 "공동 투자 후 사업수행 결과 발생 이윤을 투자비율 및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 혹은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토지·건물 사용 수익권 ▲산업재산권·저작권·지식재산권 사용권 ▲광업·어업·전기·열·수자원 에너지 개발·사용 및 자연 개발권 ▲공동투자 형태의 모든 재산 및 재산권에 대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장관이 사업 규모·계속성·파생관계 특성을 고려해 협력 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 ▲ 남북 합의에 의한 경제개발 지정 구역상 포괄적 사업권 취득 인원과의 계약을 통한 투자행위 ▲ (남북)상대방 주민 고용 행위 ▲ (남북)상대방에 용역 제공 및 피제공 행위 ▲ 공동 행사 개최 및 조사·연구 등이라고 적시했다.[6]

2. 남북 교류의 전개

남과 북의 교류협력은 대개 1970년대 초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본다. 물론 정전협정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중재로 1964년 제18회 동경올림픽대회 단일팀 출전 문제로 1963년 1월 스위스 로잔과 5월 홍콩에서 남북 체육회담을 가졌지만 무산되었던 사례가 있다. 1979년 평양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2월과 3월 판문점에서 네 차례 '남북한탁구협회회담'이 진행되었다가 무산되기도 하였다.

1984년 북한의 남한 수해 물자지원, 1985년 서울- 평양 간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 남북경제회담이 진행되었고,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발표 이후 1989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설치되었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5년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중앙정부 차원을 남북교류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 되었고, 금강산 관광,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사업,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사업 등의 공동사업이 이루어졌다. 종교, 체육, 교육학술, 언론출판,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가 이루어졌고,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도 수시로 진행되었다.

6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통일부 공고 제2020-113호),' 통일부가 밝힌 예고안 중 문제가 되는 신설 조항은 바로 '제17조3항(경제협력사업)'이다. 통일부가 내놓은 해당 예고안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위반될 공산이 크다. 북한은 광물 등에 대해 제재를 받고 있는데다 '부동산·채권·금융' 또한 자금줄을 댈 수 없다. 심지어 통일부는 북한의 투자행위에 대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는 "북한은…반(反)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는 법원의 판결까지 거스르는 셈이 된다. 한편 통일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변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08년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인한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5.24조치로 남북교류 및 대북 지원 중단, 2016년 북한의 4차-5차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교류는 단절 상태에 이르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고, 이어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공연단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졌으나, 대북제재의 큰 틀 안에서는 상호 교류에 한계가 있었고,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비핵화와 대북제재 사이의 합의가 결렬된 후 지금까지 남북교류의 시계는 멈춰있다.

3. 남북 교류의 변수들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적 변수들은 남한 정권의 의지, 북한 당국의 정치적 기조, 남북관계, 대북제재 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대북제재 상황의 지속과 코로나19 팬데믹, 북한의 수해, 남북 간 사건 등이 남북 교류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국제사회와 남한의 대북제재는 이제 남북교류의 구조적 한계로 굳어지고 있다. 북한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핵시설 해체를 조건으로 미국과 비핵화-대북제재 완화 협상에 나섰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의 결렬로 이어졌고, 2019년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 스톡홀름 실무자 회담도 북한의 표현대로 빈손으로 끝났다.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기대가 한국과 미국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바뀐 북한은 2020년 7기 5차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라는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정책 선회를 공식화하였으며, 남한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협방식에서 탈피하여 자신들이 주도하는 사업에 외부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공언하였다.

〈표 1〉 시기별 UN 대북제재 주요 내용

구분	원인	주요 내용
제1695호 (2006.7.15.)	미사일 발사 (2006.7.5.)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으로 미사일 관련 물자·상품·기술·자본·재원의 이전을 금지
제1718호 (2006.10.13)	제1차 핵실험 (2006.10.9.)	재래식 무기, WMD 관련 물자, 사치품 등의 금수, 금융 규제, 출입국 규제, 화물 검색 등 대북제재 조치
제1874호 (2009.6.12.)	제2차 핵실험 (2009.5.25.)	기존 안보리결의 제1718호에 화물 및 해상 검색 강화, 금융·경제 제재 강화, 무기 금수 조치 확대 등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 포함
제2087호 (2013.1.22.)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2.12.12.)	기존 안보리결의 제1718호 및 제1874호에 제재 대상의 확대, 금융기관 활동 감시 상화, 대북수출통제 강화 등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
제2270호 (2016.3)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석탄, 철, 철광석 수출 금지(민생용 예외) 북한과 UN회원국 상호 금융기관 및 계좌폐쇄 북한과의 수출입 화물 검색 의무화
제2321호 (2016.11)	제5차 핵실험	석탄 연간 수출액 5억 달러 상한, 기타 광산물 수출 금지 對북한 무역을 위한 공적·사적 금융지원 전면 금지

제2371호 (2017.8)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	석탄 연간 수출액 5억 달러 상한, 기타 광산물 수출 금지
제2375호 (2017.9)	제6차 핵실험	섬유제품 수출 금지 원유 공급량 동결(연간 400만 배럴), 석유정제품 공급량 제한(연간 200만 배럴), 석유정제품 공급량 제한(연간50만 배럴), 전기전자·자동차·기계·금속제품 수입금지 북한과의 모든 합작 사업금지 및 기존 사업체 폐쇄
제2397호 (2017.12)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상-15형' 발사	식품, 농산물, 목재, 선박, 기계류, 토석류 등 수출 금지, 어업권 거래 금지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둘째, 2020년 전세계 코로나19 상황 역시 남북 교류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20년 초부터 북한은 모든 국경을 철저히 봉쇄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남한 사회 내에서는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에 겹쳐, 2020년 하절기 큰물 피해(수해)를 겪었다. 북한 언론에서는 직접 수해 현장까지 운전하여 주민들을 살피는 김정은 위원장을 보여주며, '일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선전하는 한편, "큰물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 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련의 사건들, 즉,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탈북민 월북, 남측 공무원 사살 사건 역시 중대한 이슈로, 남북관계의 경색과 남북교류 이슈에 대한 남남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Ⅲ. 지자제 남북 교류 사례

1. 경기도

경기도는 접경지역 최대 지자체로서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고 2000년대 초부터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였다.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2001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03년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와 남북교류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4년에는 평양에서 합의서를 채택하여 의향서에서 합의한 사항을 실제로 추진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경기도가 추진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 가운데 특히 '당곡리 농업협력사업'은 그 성과와 방향성 등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표 2〉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연도별 추진 실적[7]

연도	사업명	사업 내용
200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02	인도적 지원	경운기 200대, 지붕개량제 19,200장, 축구공 2,002개
2003	경기도-북측 민화협간 남북교류협력 의향서 체결	
2004	남북교류합의서 채택	
	인도적 지원	농업 : 경운기 100대, 콤바인 20대 보건 : 치과장비 5세트, 환자수송용 버스 5대 식품 : 평양 식품가공공장 설치(착공) 구호 : 룡천역 긴급구호 의약품 지원
2005	인도적 지원	경운기 200대, 지붕개량제 180천㎡, 축구공 2,002개
	벼농사 시범사업	농약 150톤, 분무기 1,200대, 손수레 1,400대, 경운기 100대, 콤바인 20대
2006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농업기반조성 : 도로포장(3.7km), 도정공장 및 창고 자재지원, 중장비 지원 환경개선사업 : 주택·소학교·유치원 보수물자 지원, 의약품 지원
2007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농업기반조성 : 도정공장 완공, 농기계수리센터 환경개선사업 : 소학교 보수, 진료소·탁아소 신축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	온실 양묘장 설치, 트럭, 트랙터, 굴삭기, 경운기, 종자, 비료 등 지원
	북한수해 복구지원	라면 4,200박스, 밀가루 20kg/3,800포, 의약품 12종
2008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오대벼 종자 7.5톤, 농약 5종, 모판 95천개, 비료, 상토 등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	관리사, 창고, 차고, 전기 공급시설 신축, 종자 8종 2,480kg, 묘목 7종 457천본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방역차량 7대, 방역장비, 방역약품, 진단기구 등 13종
	남북 친선 유소년 축구대회	경기도 경수유소년축구클럽과 북한 4·25체육단 유소년 대표팀간 친선 축구경기 개최
2009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	양묘장 조성 확대, 양묘하우스 증설, 종자 8종 3,242kg, 묘목 3종 300천본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살충제 3종, 유충구제약품 1종, 진단킷, 5,000개, 모기향 60,000박스
	평양 농축산사업	양돈장 설치사업·벼농사 협력사업·시설채소 재배단지 관련 자재 지원(일부)
	인도적 지원	우리민족서로돕기와 공동으로 대북 긴급식량 지원 (옥수수 10,000톤)
	기타	시·군 및 민간단체 남북협력사업 기금 지원
2010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	종자 5종 1,290kg, 묘목 8종 40만1천본, 상토, 살충제, 살균제, 영양제 등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유충구제약품 1,000kg, 임신부 예방약 45천정, 말라리아 진단키트 12만개, 모기장 122,000㎡, 모기향 15천개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밀가루 300톤), 영유아 지원(분유 14천개)
2011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	살충제 1,300리터, 말라리아 진단키트 34만개, 모기장 450,000㎡, 모기향 95천개, 초음파진단기 3대, 액상기피제(6종)
	인도적 지원	영유아 지원 (영양죽 17만개)
2012	개성한옥 보전사업	기초조사
2013	개성한옥 보전사업	남북공동학술회의 및 기본설계도면 제작
	전염병 예방사업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2014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한국, 북한, 중국, 우즈베키스탄 4개국 6개팀이 참가
	전염병 예방사업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7 김동성 외,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구상과 전략 연구」, (경기: 경기연구원, 2018).

2015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평양 능라도 5·1일 경기장에서 경기도, 강원도 대표팀과 북한 대표 등 참여
	국제양궁교류전	중국 장쑤성에서 남북 대표팀 참가하여 훈련 및 경기
2016	결핵환자 치료지원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2017	기타	'금강 1894' 뮤지컬 평양공연 추진 사업 점검,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 사전접촉신고 승인
	결핵환자 치료지원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2. 강원도

강원도는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을 독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2002년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한 의사결정과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간기구, 남북강원도협력협의회를 설립하였다. 2002년 통일부로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북사업자로 지정되어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표 3〉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사례[8]

구분		사업내용
1998	9월	남북협력조례 제정
1999	12월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조례제정
2000	12월	도지사 방북 및 비닐 지원 합의서 채택
2001	3월	철원군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4월	연어방류
	6월	솔잎혹파리 공동방재
	12월	자전거 1000대 지원
2002	4월	연어 방류 및 연어부화장 협의
	6월	솔잎혹파리 방재
	8월	연어 부화장 추진협의
2003	3월	연어부화장 건설현장 확인 및 실무협의
	7월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 및 물자인도
	10월	연어부화장 건설현장 준공 확인 및 기술지도
	12월	연어부화장 준공식 참석, 합의서 채택
2004	4월	어린연어 남북공동방류 및 2단계 사업 실무협의
	6월	농민 기술 강습소 보수자재 및 잣나무 넓적잎벌 방재재인도 인수
2005	7월	산림병충해 공동방제 및 실무 협의
	9월	민속문화축전 개최 및 협력사업 실무회의, 합의서 채택
	11월	연어포획·방류 기술지도, 원산 농민 기술 강습소 모니터링

8 강원도, 『남북강원도교류협력 10년의 발자취』, (강원: 강원도청, 2010).

2006	1월	아이스하키 친선경기 실무협의 (1, 2차)
	4월	안변연어사료공장 건립 등 협력사업 실무협의
	7월	연어공장 기술협의, 산림병충해 방재
	11월	협력사업 및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관련 협의 합의서 채택
2007	7월	산림병해충제, 당명 협력사업 협의
	9월	연어사료공장 기술협의 등
	10월	솔잎혹파리 효과조사, 연어사료공장 기술협의
	12월	안변연어사료공장 기계조립점검 및 시험 생산
2008	5월	안변연어 사료공장 준공식 참석
	7월	산림병충해방제 협력사업 실무협의
	9월	송어양식장 건립 협의 및 기타 협력사업 실무협의

민간 참여를 통한 남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종교계에서 천주교 춘천교구청에서 1997년 옥수수 1천 톤과 감자 300톤을 지원하였다. 2000년, 2001년에는 북강원도 의료지원으로 엑스레이 검진차 5대를 지원하였고, 2003년에는 연어부화설비 관련 자외선 유수 살균기, 고압 여과기 등 2종을 지원하였다.

강원대학교는 1997년 컴퓨터를 200대 지원하고, 2000년 4월 씨감자 30톤을 지원했다. 농협 강원지역본부는 못 자리용 비닐 2만 4천 롤을 지원하였다. 강원도 기독교 연합회는 2001년 자전거 1천 대를 지원하였으며, 남북강원도협력협의회는 2004년 '용천역 지역 폭발 참사 피해 돕기 강원도민 긴급행동'을 결성하여 모금 활동을 통해 2,100만원을 지원하였다.[9]

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18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중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8건, 역사교류 3건, 문화축제교류가 5건이다. 2012년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북한의 요청에 대응하는 형태, 또는 민간단체 사업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남북교류가 이루어졌다.

〈표 4〉 서울특별시 시기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사례[10]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2015	북한아동 제과원료 지원	설탕, 밀가루, 분유, 콩기름, 버터 등
	고구려 유물전시회	행사비 지원(유물대여료 및 유물전시 비용)
	남북공예 대전	행사비 지원
	서울통일한마당 지원 등	행사비 지원 등

9 정주리·조은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2011, p. 38.

10 강원도, 『남북강원도교류협력 10년의 발자취』, (강원: 강원도청, 2010).

2016	평양 고구려 안학궁터 공동발굴	연구비 지원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 지원	행사비 지원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지원	전자 위내시경, 유선암진단설비 등
	북한수해구호 의약품 지원	항생제, 수액, 연막소독기, 구급의료세트 등
2017	서울평양간 협력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지원	만능수술대, 복강경수술기구, 전신마취기, 혈압계, 청진기, 자동인공호흡기 등
	북한수해구호 의약품 지원	항생제, 피부질환치료제, 진해거담제, 제산제, 해열제 등
2018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지원	의료장비, 수액제조설비 등
2019	대북 옥수수 지원	옥수수 2,500톤
	평양조선종양연구소 지원	의약품·수액, 의료소모품 등
2010	북한 수해지역 밀가루 지원	밀가루 구입비, 수송비, 모니터링비 등
2012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학술대회 지원	학술회의 운영경비 등
	통일·평화교육 지원사업	경비지원 등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기념행사 지원	토론회, 행사비용 등

Ⅳ. 남북 교류와 파주시의 역할

파주시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시정 비전으로 하여,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 ▲파주-해주 간 이이 선생 유적 문화교류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평화통일교육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11]

1. 접경지의 특성

경기도의 군가분계선은 파주시 장단면에서 시작하여 판문점을 지나 연천군 신서면까지 약 86km 구간으로 이어진다. 파주시는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함께 주한미군 2사단 사령부와 다수의 미군 기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파주시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비율은 90.8%나 된다. 이는 파주시가 접경지인데다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주요 공격 경로였기 때문이다.

〈그림 1〉 파주시 기본현황(2019.1.1.기준)[12]

11 국민일보, "파주시-통일연구원, 접경지역 발전 위한 간담회 개최," 2019년 7월 23일.

12 파주시 홍보자료, 『2019 KINU 학술회의 자료집2』, p. 62.

파주시는 접경지라는 특성 때문에 국가안보가 최우선시 되고 군사적 긴장을 유지해야하는 지역이지만, 실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면 접경지로서의 지리적·상징적 이점도 크다. 남북한 공동 방역 사업을 예로 들면, 경기도에서 말라리아 공동방역 사업을 추진할 당시, 파주시가 주요 거점 중 한 곳이 되었던 것도 파주시가 북한지역과 접해 있기 때문에 공통의 방역 필요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13]

현재 파주시는 접경지로의 이점을 고려하여, ▲DMZ와 임진각의 생태·평화관광 거점화 ▲파주 DMZ 기록화사업 용역 추진 등 파주시의 DMZ 관련 구상 및 계획을 갖고 있다.[14]

2. 한강 하구의 이점

남북 접경지역이기도 한 한강하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서해로 빠져나가는 출구로서 과거 한반도 중부지역 주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곳이다.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한강하구는 만우리부터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이르는 지역을 지칭하며 총 연장은 67km이다. 남한은 경기도의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와 인천광역시의 강화군이, 북한은 황해남·북도의 개풍군, 배천군, 연안군 등이 한강하구와 연접해있다.

〈그림 2〉 한강하구 중립구역[15]

13 이성우 외, "2020 북한의 정책전환과경기도의 대응,"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401호, 2020.

14 국민일보, "파주시-통일연구원, 접경지역 발전 위한 간담회 개최," 2019년 7월 23일.

15 김동성·이성룡,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342호, 2018, p. 1.

만약 남북한이 하구의 복원과 활용에 상호 협력한다면, 한강하구 지역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은 서부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평화협력과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16]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제4조 4항에는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고 명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공동의 한강하구 복원과 평화적 활용에 대한 1차적 또는 예비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대북제재 완화 국면에 접어들면 한강하구는 주요 남북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다.

3. 경의축 통일경제특구

파주시 내륙지역은 경의축을 따라 첨단산업단지와 프리미엄아울렛, 출판문화단지 등 경제·문화 시설이 입지해 있어, 경의선 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의 거점이 조성된다.

특히 파주시의 접경지역 일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제시한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의 핵심지역으로서, LCD 전후방 연관 산업과 개성공단 관련 부품·소재 산업 중심의 통일경제특구로 조성하여 남북경제교류를 위한 거점으로의 구상을 갖고 있다.[17]

4.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파주시는 올해 2월 기존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수정하여,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파주시민의 화합과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파주시가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2020년 3월에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독자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다.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의 범위는 조례에 따

16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에서는 생태·환경, 관광·지역개발, 교통·SOC, 산업·경제 등 4대 분야 15개 사업이 제안되었다. 생태·환경 분야로는 한강하구의 제도적 관리대안 및 법적 요건 연구, 한강하구 생태자원 특성 남북공동조사, 한강하구 수산자원 현황 파악 및 남북공동 활용, 한강하구 중립수역 남북공동 람사르 습지 등재 및 관리 등 4개 사업이 제시됐다. 관광·지역개발 분야에는 뱃길(신곡수중보~김포 연안~서해 및 파주 임진강) 복원, 포구마을 조성(역사·문화 복원), 한강하구 도보길 조성 등 3개 사업이 포함됐다. 교통·SOC 분야에는 평화도보다리 건설, 남북 연결도로 건설, 평화시장 플랫폼 설치 등 3개 사업이 제안됐다. 산업·경제 분야로는 남북 수산협력, 수산종묘배양장 건립, 남북 농식품 유통센터 건립, 경기북부 농업기술원 개원, 남북경협 활성화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5개 사업이 담겼다.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 청사진 작성," 2019년 10월 17일.

17 김동성·이성룡,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342호, 2018, p. 20.

라 추진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 · 단체를 포함한다)과의 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며, 문화·학술·역사·체육·관광·경제 등에 관한 사업, 인도주의적인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진출한 남한의 법인·단체와 연계하여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파주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예로 들면, 첫째, '파주-개성' 간 농업 협력 사업으로 인삼과 장단콩이라는 두 가지 농산물을 북측과 공동 생산하는 사업이다. 생산 방식은 일반적인 농업 협력 사업과 비슷하게 북측의 토지, 노동력과 남측의 기술, 종자, 농기계 등이 결합되는 것이며, 생산한 농산물은 파주 장단콩, 인삼 축제에 출품해서 판매하고, 판매된 수익금을 북측에 전달한다. 남과 북이 공동 생산한 농산품이라는 평화의 가치가 축제에 더해져 참여도가 증대되면 남한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파주시의 구상이다.

두 번째는 '파주-해주' 간 율곡 이이 유적 문화교류이다. 파주는 율곡 이이의 고향으로, 율곡리라는 지명도 있으며,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자운서원도 있다. 율곡 이이가 죽은 뒤, 후학들이 스승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학문을 널리 알리려고 세운 서원으로 내부에 가족묘도 있다. 반면, 율곡 이이의 처가는 해주인데, 당시 율곡 이이가 직접 지은 해주 소현서원은 북측에서 국보 유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즉, 율곡 이이는 남과 북에서 동시에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율곡 이이에 대한 유적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V. 결론을 대신하여

본 연구는 남북교류 환경과 지자체 남북교류 사례를 분석하여, 남북교류 주체로써 파주시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고를 작성하면서 가장 의아했던 것은 그동안 파주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하고자 하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은 비교적 잘 준비되고 있는 반면, 그동안 파주시 입장에서 추진한 남북교류 사업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남북교류 사업 중 일부는 대북제재의 국면에서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을 찾고, 장기적으로는 실행 가능한 시점을 대비해 각 사업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북제재 하에서도 가능한 사업에는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보건의료 협력 등 제재 면제 사업 ▶관광, 에너지자립, 농업현대화 등 북한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 ▶DMZ 내 GP 철거, JSA 무장해제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서해경제공동특구, 한강하구

활용 등 남북 공동번영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 등이 있다.[18]

특히 파주시는 위 사업에 모두 해당되는 지역으로, 향후의 역할은 물론이고, 우선 과제에 있어서도 파주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원도, 『남북강원도교류협력 10년의 발자취』, (강원: 강원도청, 2010).

국민일보, "파주시-통일연구원, 접경지역 발전 위한 간담회 개최," 2019년 7월 23일.

김동성 외,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구상과 전략 연구」, (경기, 경기연구원, 2018).

김동성·이성룡,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342호, 2018, p. 1.

김동현, "지방자지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황과 전망: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아태지역연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김택희,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추진과정의 특징 분석: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김형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2.0 시대의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 제18권 1호, 2018.

성기영 외,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8).

양문수·이우영·윤철기,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남한 주민의 태도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59호(2013), pp. 147~148.

이성우 외, "2020 북한의 정책전환과경기도의 대응,"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401호, 2020.

이우영,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마음의 통합,"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2014), pp. 44~84.

이우영 외, 『분단된 마음잇기』, (서울: 사회평론, 2016), p. 16.

이창희, "남북 교류협력사업 평가와 발전 방향," 『평화학연구』, 제19권 3호

임정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질적 전환 조건 연구," 『GRI연구논총』, 제20권 3호, 2018.

임정관, "지방정부 '대북지원사업자'로의 의의와 주체적 역할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연구," 『북한법연구』, 제23권, 2020.

정주리·조은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2011, p. 38.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통일부 공고 제2020-113호),' 2020.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 청사진 작성," 2019년 10월 17일.

파주시 홍보자료, 『2019 KINU 학술회의 자료집2』, p. 62.

18 이성우 외, "2020 북한의 정책전환과경기도의 대응,"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401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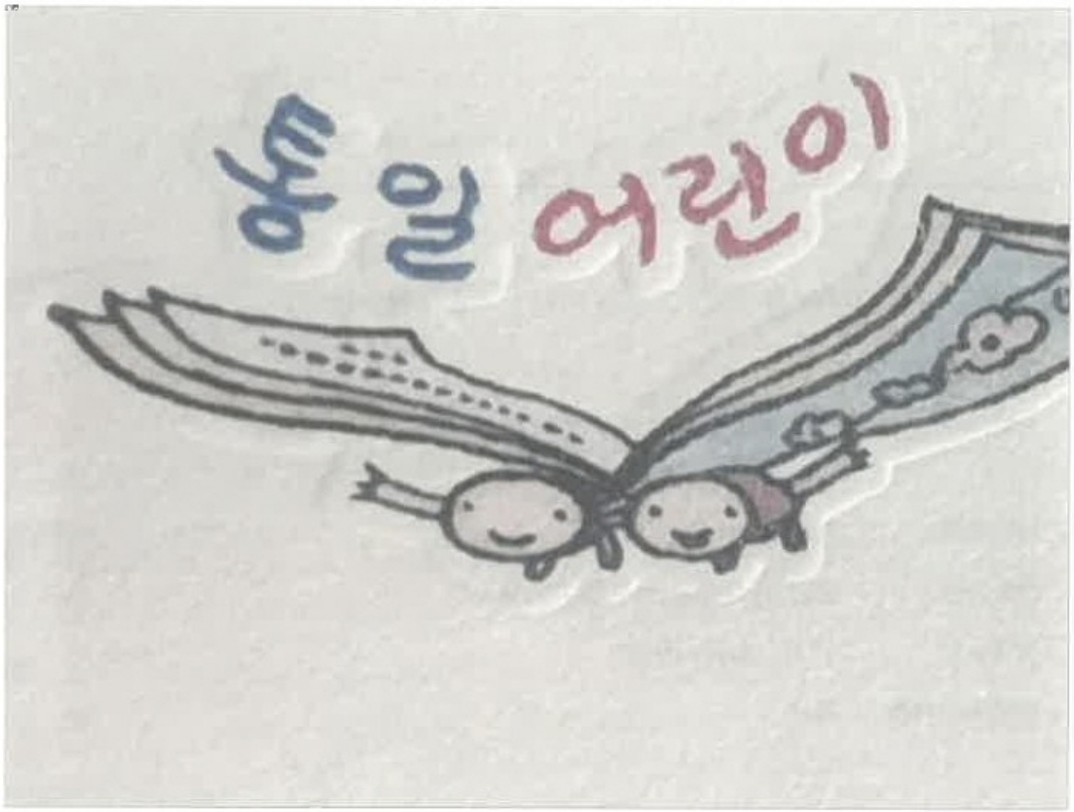
[토론문] 김보근 (한겨레 선임기자) – 남북문화교류와 출판 사업

남북문화교류와 출판산업 토론문

파주 출판도시 2020 북·BOOK과 함께

김보근
한겨레 선임기자
전 한겨레평화연구소장

평양 어린이학습장공장 기증식
한겨레통일문화재단 · 평양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
2007년 5월 15일(화)



이미지형 리스트형 출판년도 내림차

31 [단행본] 조선민화집(1) :고주몽
저자 : 김원룡 집필 | 발행처 : 금성청년출판사 | 발행년 : 2008
소장정보 열기

32 [단행본]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전설
저자 : 최홍식 저 ;최영석 그림 발행처 : 조선출판물수출입사 | 발행년 : 2008
소장정보 열기

33 [단행본] 고주몽과 소서노
저자 : 최홍식 저 ;김명제 그림 발행처 : 조선출판물수출입사 발행년 : 2008
소장정보 열기

34 [단행본] 주몽
저자 : 김호성 저 | 발행처 : 자음과모음 발행년 : 2006
소장정보 열기

소장 자료검색 > 통합검색

통합검색

그림으로 본 조선력사 10: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전설 (고구려편 · 1)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그림으로 본 조선력사 10: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전설 림.**
개인저자	최홍식
발행사항	평양: 조선출판물 수출입사, 2001.
형태사항	152p.: 삽도; 19cm
이용제한사항	특수

미제라블(3)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레 미제라블(3) /빅또르 유고 저**
개인저자	유고, 빅또르
발행사항	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2000.
형태사항	591 p. ;23 cm
총서사항	세계문학선집 ;38
이용제한사항	특수
비통제주제어	장발장, 프랑스 소설, 장편소설,

미국의 비극(1)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저자사항	미국의 비극(1)/ 시어더 드라이
개인저자	시어더 드라이저
발행사항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
형태사항	434p.; 21cm
총서사항	세계문학선집; 68
이용제한사항	특수

4

[도서] 아메리카의 비극 2 -세계명작 100선102

시어도어 드라이저 저 / 반광식 역 | 일신서적출판사 | 1995

10,800원 (10% 할인) P 600원

판매지수 48

출고 예상일 : 2 일 이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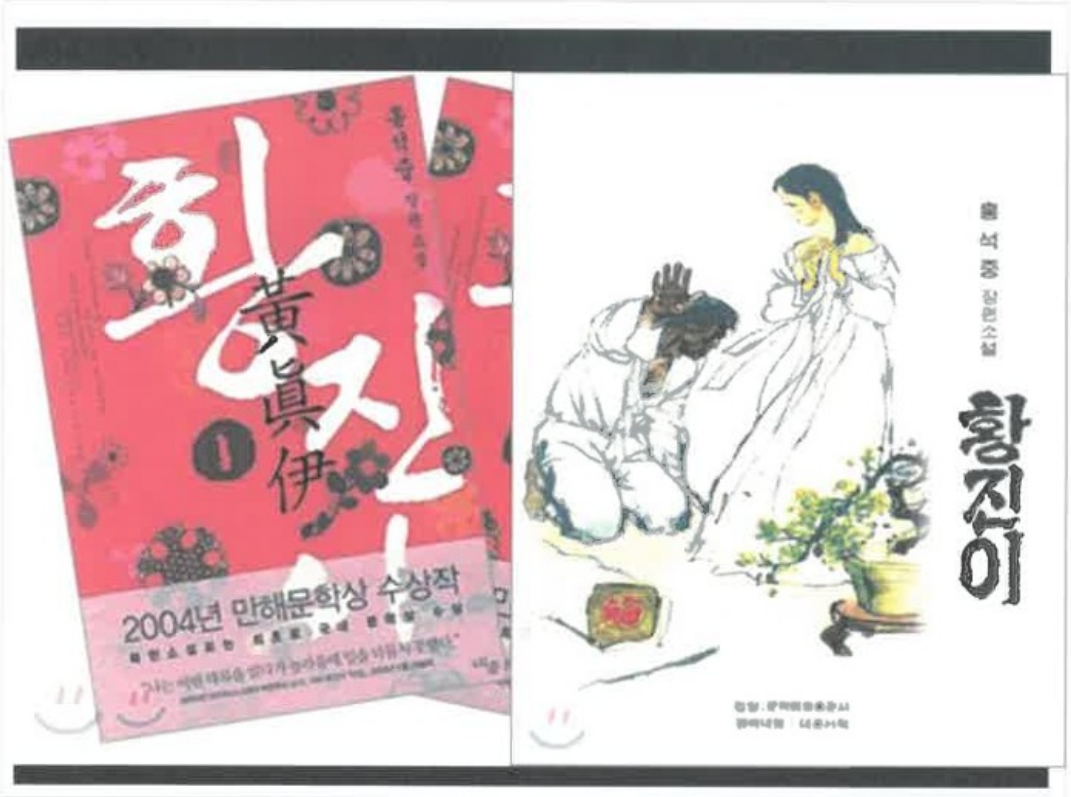
5

[도서] 아메리카의 비극 1 -세계명작 100선101

시어도어 드라이저 저 / 반광식 역 | 일신서적출판사 | 1995

10,800원 (10% 할인) P 600원

판매지수 60



끝